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IB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14권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IB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14권



IB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 책임자 | 류영철(정책연구부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 최태영(본청 창의인재과 수학교육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류영애(본청 창의인재과 수학교육연구센터 파견교사)

[연구 요약]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전히 기존의 객관식, 단답식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등을 신장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 및 평가방법 모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 학습을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도 일방적인 강의식 교수학습법이 아니라 토론, 토의, 프로젝트, 문제해결 방식 등의 새로운 교수학습법의 도입과 학교 현장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혁신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내실화와 배움 중심 교수학습방법의 변경은 쉽게 일반화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데 한계를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장과 접목에서의 형식과 실제사이에서 괴리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수업혁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강의식의 일방적 수업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 수동적이므로 아이들이 무기력하다. 아이들의 무호응이 반복되면 교사도 잘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진다. 과거에 열린교육(open education)을 통해 수업개선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신장시키려는 자발적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정부가 개입한 이후에는 실패했다.

1990년대 열린교육이후에도 수업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김태현, 2015; 의정부여자중학교, 2015; 손우정, 2015; 정형권, 2016; 권순현, 2016)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수업만을 개선해서는 교육개혁이 달성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평가를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는 담론(김해경 외, 2017; 성태제, 2017)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수업과 평가를 본질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역시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에 수업과 평가를 결정하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정성식, 2016)이 움트기 시작했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국가와 교수중심이 아닌 현장의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를 일체화 하는 논의(이형빈, 2015; 박승열 외, 2017)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지방자치시대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학교변화를 위한 혁신학교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처음 실시한 경기도 지역에서도 일반화와 확산이 생각보다 더디게 늦은 속도로 진행(백병부, 2015)되고 있다. 이를 보면 혁신학교도 우리나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명약은 아닐 수도 있다. 또한 모든 교육개선과 혁신의 노력 움직임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에 대한 반성도 일어나며 이에 본질적 교육혁신은 결국 대입을 위한 평가

이며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변화해 보려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J교육감이 국제심포지엄(2016)을 통해서 IB를 소개했고, 이러한 IB에 대해서 교육현장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IB라는 외국의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교육청도 IB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도입과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학교현장의 변화와 평가방식의 혁신을 통한 학생의 미래 역량 및 융·복합 능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문가 및 IB 교육과정 운영학교 관계자 인터뷰와 J, D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및 수업과 평가혁신에 대한 인터뷰 내용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경남교육의 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로 설정했다.

첫째, IB교육과정도입을 결정한 교육청 담당자 면담에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개선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IB교육과정 전문가 면담에서 IB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개선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IB교육과정 적용 학교 관계자 면담과 관찰에서 IB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개선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문헌 및 자료 분석

문헌 분석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도입국 학생 및 청소년 연구 관련 국내 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분석했다. 주로 박사학위 논문과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등의 공인된 연구물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범주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IB 교육과정 적용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정책적 실천이 있는 J교육청, S교육청, C교육청, D교육청 등의 정책연구보고서(용역)와 관련 자료도 검토했다.

2. 전문가 및 유관 교육청 기관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는 2명을 실시했다. 우선 ① IB 교육과정에서 특히, 중등분야 수업, 평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해 L○○ 박사를 실시했다. L○○ 박사는 S대학교 박사 출신 교육학자로서 특히, IB에 대한 조예가 깊어 S교육청, J교육청 IB 영역 정책연구에서 연구책임을 맡아 연구를 진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② IB 교육과정에 중학교 및 수학교과에서의 수업, 평가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기 위해 D교육청 IB수학분과 T/F 팀장을 인터뷰 했다.

유관 교육청 인터뷰는 IB 교육과정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교육청(J, D)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3. 분석 방법

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는 L○○ 박사, 교육청 담당자(J, D교육청), T/F 분과 팀장 등을 중심으로 녹취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전사내용을 통해 분석했다. 질적 분석 방법은 스프래들리(12단계) 방법을 활용했다.

나. 일선학교 방문

일선학교는 IB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학교를 관찰했다. 방문한 학교는 모두 사립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K외고를 방문했다. K외고는 남녀공학 국제반 1반(25명)을 IBDP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S고는 K외고교장으로 재직 중에 IBDP를 도입한 P박사가 새롭게 이직하여 IB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S그룹이 세운 고등학교이다.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J 국제학교는 2곳을 방문했다. 먼저 B학교는 여자학교로서 캐나다에 본교가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다. IB교육과정은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운영한다. 즉 PYP, MYP, IBDP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NJ는 남녀공학으로 영국에 본교가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영국식 교육과정인 A-LEVEL을 운영하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2년 과정을 IBDP로 운영하고 있다.

III. 연구결과 및 결론

1. 교육과정

IB는 10개 인재상, 12개 태도, 5가지 스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다 연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IB 시스템에서 교육과정 설계는 학교단위로 설계하고 사립과 공립의 교육과정 설계는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IB 교육과정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회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친 후 100년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IB를 도입하는 데 필수 요소로 인식했다. IB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평가체제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IB는 6개 과목군을 상대적으로 수준화 하지 않고 균등하게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 교과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했다. 교육과정 설계의 단원은 1년에 학교 급에 따라 4~6개를 유닛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 1개 유닛은 보통 6주정도가 소요되었다. IB는 그 나라 모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 대입제도와 차별점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IB 교육과정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DP코디네이터는 수업과정 설계, 확인, 학생 등록 및 과목별 배치, CAS 확인, 파이널 시험관리 등 업무과다로 수업을 가급적 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leadership, management, administration, 교사 counselor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업무 부담이 상당했다.

한편, 선도 교육청의 IB 교육과정(프로그램) 도입현황 분석을 보면, 현재는 J교육청과 D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초에는 S교육청과 C교육청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도입을 포기했거나 도입에 대한 여론추이를 보면서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J교육청과 D교육청은 자체 팀을 꾸려서 2018년 3월과 9월에 IBO 대표단과 한국어판 도입에 대한 상호연계 협의를 했으며 IBO에서 조만간 한국어판 도입에 대한 결정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J교육청은 IB 도입에 대한 용역연구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발표회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교조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일반 교원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J교육감은 반대의견중의 하나인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과의 충돌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사업운영 명칭을 'IB 교육과정 도입'이라고 하지 않고 'IB 프로그램 도입'이라고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시범학교 선정을 도시 일반학교에서 읍면지역 학교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D교육청에는 현 교육감 이전에 IB에 대한 풀뿌리 학습단체가 있었다. 수업과 평가혁신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IB를 알게 되고 이를 더 잘 알기위한 공동체가 생기고 이 공동체가 현재의 IB T/F로 구성되어 진행 중이다. 이 T/F를 교

육청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감 공약으로 IB 교육과정 도입이 제시됐고 이를 위한 전담 부서가 지정 되면서 IB 교육과정에 대한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D교육청은 로드맵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IB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교' ○개를 모집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IB T/F팀을 이끌고 일본의 IB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평가관찰을 실시했다. 2018년 12월경에는 영국의 IB운영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평가관찰 등을 할 예정이다. D교육청은 지역적 집중도를 높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교사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교육변화에 대해 거부감이 부족하고 혁신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이 많았다. 주변여건도 호의적이다. K대학교 사범대학이 IB 채점관 양성연수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D교육청과 용역연구를 체결하여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판 IB가 도입된다면 현재로서는 J교육청보다 D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IB ○○학교에 IB교육과정이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수업

IB 교육의 수업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강의식 수업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혁신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B 교육의 수업방식은 강의식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학교 급별로 보면 특히,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IB 교육의 교사의 수업설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에 맞춰 교사 본인이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수업연찬을 위해서는 행정업무 경감이 중요한데, D교육청은 관리자 연수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IB 교육체제 도입을 준비 중인 S고는 교무 행정원을 10명 내외로 채용하여 교사의 업무경감에 힘을 쏟고 있었다.

수업개선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학교 급별 연계가 중요하다. IB는 PYP(초)-MYP(중)-DP(고)를 통해 연속성을 높이고 있다. 수업의 내용은 삶과 사회문제의 연결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사회적 책무성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의 몰입도가 상승하고 있었다. IB 교육의 수업활용 자료는 우리나라 혁신학교와 비슷했으나 이에 대한 활용에서 매우 적극적인 것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수업혁신에서의 시사점 분석 내용을 정리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수업에서 중요한 것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같은 스kill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간 수업에서의 본질적인 것은 배워야 할 주제에

대해 배워야 할 학생이 중심이 되어 교사와 상호소통하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거기에 파생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온전히 개별적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업은 배워야 할 진도, 범위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단순하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었다. 물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즉, 하부르타, 배움의 공동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기반학습, 플립러닝 등이 일부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IB라고 해서 강의식 수업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개념을 학생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지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우리 초중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은 엄밀하게 말하면 학생중심이 아니라 교사중심이다. 교사가 이미 수업지도안과 프로그램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수업 배치와 수업진행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수업내용과 형태가 평가로 정확히 연계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시행되는 수행평가의 비율은 미미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대표되는 지필고사가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학생들은 지필고사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IB 교육과정은 본인의 생각을 수행평가 및 체험, 발표 및 토론, 에세이를 통해 활동하고 이 활동이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하는 것이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모두가 그러하기에 입시준비를 수업에서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수업도 그렇게 되어야만 수업이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 결국 평가와의 일체화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IB를 통해서 살펴본 수업혁신에서의 시사점은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자체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본질을 형식화하고 사문화하지 않고 실제로 수업에서 적용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으로 돌아가자는 생각과 관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었다. 수업방법적인 면에서는 IB 교육체제 수업방식과 우리나라 혁신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업방식과의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IB 교육과정은 교사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 개발하는 것이 차이였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교사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있었다.

3. 평가

IB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형성 및 과정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7점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IB 교육의 평가는 외부 및 내부평가로 나누어져 있는데, 과목별로 평가비율(외부, 내부) 및 방법(토의, 발표, 페이퍼) 이 달랐다. IB 교육의 내부평가의 어려움으로는 IBO에 제출할 때 학생 예상점수를

미리 기입해서 추후 IBO로부터 평가받는 것이었다. IB 교육의 평가와 피드백은 다음 학기 수업 및 시험 준비와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IB 출신 학생들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IB출신 학생들을 실력과 영어역량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되는 IB 교육의 CAS는 활동 내용중심으로 운영되나 활동내용 확인을 통한 양적 점수가 아닌 이수의 성격이 강했다. IB 교육에서 학생 개인에 대한 학생부 기록은 별도로 없고, 7점 기준에서의 평가만 진행하면 된다.

IB 교육과정에서 소논문(에세이)은 모든 학생이 작성해야 하며 일본IB 학교에서도 영어로 작성하고 있다. IB 교육과정에서 소논문을 지도하는 교사역량은 교원역량강화워크숍 등을 통해서 신장하고 있었다. IB 교육의 평가기준인 루브릭은 수업시간에 사전 제시 하고 학생과 이에 대해 소통하고 있었다. 또한 사전 평가에 대한 학부모 동의를 구했다. IB 교육과정에서 평가 루브릭은 대강화 되어 있어서 이걸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교사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B 교육과정에서는 평가를 위한 교사의 자율권을 매우 존중하고 있었다.

IB 파이널 시험은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3번까지 응시가 가능하다. 6개 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을 먼저 평가하는 것도 가능했다.

IB 교육의 시험에 대한 출제 및 평가는 공동협의 및 공동출제가 가능하다. 혹시 평가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이 이의제기를 하면 IBO에서 그 이의제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거나 책임을 진다. 또한 이의제기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은 재채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재채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점수가 기존 점수보다 상향될 지는 미지수이고, 오히려 점수 재조정으로 인해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 평가혁신에서의 시사점 분석을 정리했다.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변경하고, 출제와 채점을 공동으로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평가의 본질은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될 역량 즉, 개념적 핵심 지식, 지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태도를 개별 학생이 온전히 체득했는지를 학생의 성장에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모니터링하여 학생 스스로의 발전을 격려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즉 지식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역량중심 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평가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타당성 보다는 공정성, 변별력이 더 높은 위치에 처해 있다. 이는 결국 신뢰 문제와 맞닿아 있다. 타당성이 평가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평가는 서열을 정하기 위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의 구간을 구별하기 위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지필평가가 아니라 주관식 논술

과 서술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교제도와 학교문화에서 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 그러므로 평가의 본질이 서열, 변별을 통한 줄 세우기로 왜곡되었다. 평가를 위한 지침도 사전에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루브릭으로 제시하여 공개하기 보다는 채점에 대한 사후 대비용으로 출제 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IB는 교사의 평가권한, 출제권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IB를 통해서 살펴본 평가혁신에서의 시사점은 평가자체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학습역량이 부족한 아이를 찾아내고 발견하여 그 부족한 면을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보충하기 위한 지원의 의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보기 중에서 바른 답안을 찾아내는 훈련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글로 쓰고, 말로 하며, 체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평가를 개인별 변별의 도구로만 삼고, 그걸 위해 타당성이 아니라 공정성만 강조한다면 다수의 진보교육감들이 주장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구호도 한낱 외침과 메아리로만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IB는 교사평가권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평가에 대한 노하우는 학부모, 학생의 신뢰와 교사평가권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더욱 고도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IB교육과정 적용에서 중요한 것이 수업이나 평가개선이 아니라 결국 교육의 본질적 철학의 구현과 그 철학적 구현이 온전히 교육과정 전반에 스며들 때까지의 ‘기다림’이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처럼 교육은 결국 기다림이다. 교육의 목적은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만 교육은 정치처럼 즉각적으로 제도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사람을 통해서 바꾼다. 그래서 교육적 성과는 잘 보이지 않거나 보이더라도 더디 보인다. 그런데 교육을 정치적 관점으로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진정한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했고 여전히 그 모습은 진행 중이다. 그러다보니 실제나 본질보다는 양적인 형식이나 수치에 치중했다. 짧은 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하니 상대평가에 매달렸고, 이를 통해 학벌을 서열화 해야 했다. 이제 이러한 악 순환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 IB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우리나라 교육에 신뢰를 줄 것이고 그 신뢰가 결국 내용중심과 교사 전달위주, 시간이수 위주의 우리 교육을 역량중심, 학생 성장 중심으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기타 검토사항

IB 교육프로그램의 한국어판 도입은 J교육청에서는 2017년 12월 초등도입을 결정했고, D교육청에서는 2018년 7월 교육감 공약 및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IBO의 한국어판 도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2개 교육청은 현재 IB 6개 과목 중 4개는 한국어, 2개는 영어로 추진 중에 있다. 도입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는 데, ○○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순서로 진행된다. 인증학교 이후에도 5년마다 갱신평가가 진행된다. 만약 한국어판이 도입되면 교원역량강화 워크숍은 국내에서 개최가 가능하다.

D교육청은 현재 IB ○○학교를 학교 급별로 ○개 모집했다. J교육청은 시범학교를 모집했으나 실패했고, 추후 읍면지역 학교를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J교육청과 D교육청의 IB 도입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평가에서의 시사점을 통한 모델 개발이었다. 이러한 모델 개발을 위해서 현재 IB자료가 비공개라는 점, 평가를 바꾸는 핵심은 DP라는 점이 일치했고, 이에 대한 평가한계 때문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IB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검토할 문제 사항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교사의 어려움으로 제기되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육역량의 축적 및 후임 교사에게로의 전수 어려움이었다. 또한 행정업무의 과중한 부담문제, 수업과 평가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평균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때까지의 기다림 문제, 실적위주 행정관행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전문가들은 IB 학교의 구성은 혁신학교 형태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공모제로 선발하며, 철학의 공유와 확산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MYP는 한국어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므로 추후 도입된다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IB 교육 프로그램의 교사 채점관 양성기관으로는 K대학교 사범대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 IB 도입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립은 빨리 승인 처리가 되나, 공립학교는 승인과정과 절차, 이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 더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본 국내 대학보다 해외 대학 인기가 적고, 상대적으로 일본에 일자리가 풍부해서 굳이 해외대학을 나가려 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서 그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전문가들은 만약 IB 교육이 국내에 도입되면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수업밀착형 평가가 중심이 되므로 내신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평가이므로 어느 수준까진 사교육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스스로 해야 하는 글쓰기, 소논문 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일본의 IB 학생선발은 우리나라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비슷했다. 선발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데, 서류-개별면접-집단 활동 평가의 3단계 형태였다. 일본의 IB 교육에 대한 교사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IB 제도 도입으로서의 의미는 첫째, 교사에게는 단순 전달자가 아닌 교사 정체성 및 개성의 회복과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둘째, 학생에게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가치인식, 이로 인한 진로교육의 활성화, 발표 및 피드백으로부터의 역량 제고, 성장 중심(지원) 교육으로 인한 자존감 제고, 활동자체가 교육 및 평가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에서의 IB 교사 선발은 각 학교마다 달랐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영어가 필수인 나라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교원역량 강화워크숍 중 카테고리1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았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원 채용박람회를 통해 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델로서 일부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IB 교육과정 도입 적용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가정한다고 전제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급으로의 적용도입은 상위학교로의 연계를 바탕으로 기저로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질문으로 바꾸면, “어느 학교 급에서 도입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IB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은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K외고의 1개 국제반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는 초중고 교육과정이 IB 또는 A-LEVEL 등 학생활동 중심이 되는 수업방법과 주관식 또는 발표, 에세이가 중심이 되는 형성평가, 과정중심평가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으로 연계되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IB 교육과정 체계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교육과정을 하는 학교나 우리나라 학교에 전학해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시 IB 교육과정 운영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K외고는 고교 1개반(국제반)만을 운영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K외고 국제반 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살다 온 경우가 많거나 조기 선행학습을 통해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 영어실력이 월등히 높아서 영어수업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특성이 있었다.

만약 초등학교에서 IB교육을 받았는데 중학교에서 받지 못하거나 중학교에서 IB교육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격차로 인해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면 초중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만 도입의 본질적 의미가 있다. 이는 혁신학교의 연계성, 일반화 정책과 같은 맥락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개의 학교 급에만 도입해야 한다면 K외고 사례처럼 교과과정인 IBDP가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에서도 IB 도입의 승패의 핵심은 DP라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의 본질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접목 가능성에서도 다른 학교급에 비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IB교육 프로그램 한국어판 도입과 대입전형(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학교나 K외고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IB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K외고나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수를 위해 고교 1학년 때 국사, 사회 등의 과목을 미리 이수하고 있었다. 이는 IBDP를 실제적으로 2년 만에 이수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투트랙(TWO-TRACK) 교육과정은 각 교육과정 그룹 군과의 연계성이 미흡할 수 있고 학습효과성 면에서도 부족할 수 있다. IB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판이 도입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IB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계는 총론과 현행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IB 교과목을 별도 절차 없이 국내 과목으로 인정하는 것과 신규 과목 개설 및 인정 부분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 IBDP 과목을 국내 교육과정 안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과목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목군, 과목명, 이수 단위, 교과서 문제 등이 법률로 묶여있기 때문에 IBDP 과목을 국내 교육과정 과목으로 편입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과정인 2015개정 교육과정 체제 내에 국내고교가 IB 교육과정을 도입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규정을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융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교교육과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달리 선택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더 IB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IBDP를 위한 과목을 국내 고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주기만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교생 중 디플로마 취득을 위한 종합적 IB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에서부터 일부 과목만 선택해 수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육과정과의 융합과 조화의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률적 문제와 더불어 각 시도교육청과의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통해 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타당한 적용이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원의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업에서의 교수학습방법역량, 과정중심평가에서의 주관식 문제출제 및 채점역량, 그리고 수업과 평가혁신을 위한 교원연수, 교원 이동문제 등이 있다. 교원의 수업이나 내부 평가역량 문제는 부산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역 내 외국인 학교에 교사를 일정기간 파견하여 방법적 노하우와 스킬, 관점 등을 체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과 평가부분을 제외하고 검토할 문제를 2가지로 좁히면 교원연수와 교원 이동문제로 구분 할 수 있다.

교원 이동문제는 선도시범학교를 선정하고 난 후 모든 교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서류, 면접 등의 단계 순으로 선발하고 현재 행복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소 5년 정도는 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리더 그룹의 안정적 양성과 5년 근무 후 다른 일반 학교에 수업과 평가혁신 등의 방법적 개선점을 연수나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연수는 채점관 양성, 리더 그룹 양성이 중요하다. 채점관 양성은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사회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사회가 여의치 않다면 교육청 내 교사 채점관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성과 평가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법적으로는 오프라인 연수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강의 위주 프레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명의 강사가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집합 연수는 형식적인 효율성은 좋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성은 상당히 미흡하다.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단순 연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에도 전혀 맞지 않다. 따라서 교원연수의 방향은 상호집단 토론, 토의가 가능하도록 월드 카페식, DACUM, 해커톤(HACKERTON) 방식 등의 집합 연수방식으로 변경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리더 그룹이 주도하며 사례나 샘플 소수를 가지고 끝장토론 하는 것이 IB연수의 핵심이므로 이러한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연수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클릭하고 피드백 없는 과정으로 시험을 통해 이수하는 형태로는 연수의 실질적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IB 온라인 연수는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고 타이트(tight)하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과제를 하는 데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와 피드백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온라인 연수를 듣는 전 세계 교원들과 소통도 가능하다. 우리도 이러한 연수방법을 준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IB연수를 방법론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도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청에서 온라인 연수

비용 지원, 오프라인 연수비용의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현재의 사립학교 도입 위주가 아닌 공립학교에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립학교 도입도 전반적이고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모델학교처럼 선도적 학교를 시범 또는 선도학교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별학교에서는 도입하려고 할 때 절대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사립의 경우는 법인으로부터, 공립의 경우는 교육청으로부터의 승인을 먼저 받고, 단위 학교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스터디와 준비가 필요하다. 개별학교가 IBDP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예산을 5년 이상 장기계획 하에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에서 IB 학교를 일단 승인해 운영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제도와 프로그램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전면 도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IB교육 프로그램의 한국어판이 원활하게 도입된다면 경남의 행복학교 중에서 소수를 선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한국어판 도입이 원활하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영어로 발표·토의·토론하고 에세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므로 공립인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학교당 드는 약 천만원(10,000,000원)의 비용은 연구결과에서처럼,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예산(3천만원 내외, 행복 나눔학교는 1억내외) 지원처럼 교육청의 사업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2년의 과정 후 개인적인 1인당 외부 평가비용은 9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개인 전부 부담 또는 교육청 일부 지원 등의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좀 더 숙의와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IBDP를 하는 고등학교로 인증을 받으려면 준비 기간이 2년 반 이상 소요된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후에는 2학년부 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도입 결정부터 IBDP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최소 4-5년을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의 한국어판 IB 교육과정(또는 교육프로그램)의 도입현황을 지켜보고 이를 통해 우리 경남교육청도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도입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목 차례>

I. 서론	24
II. 연구의 배경	26
1. IB 교육과정의 설계	26
2. IB 교육과정 도입 및 적용 현황	36
3. IB 인정학교 인정 절차와 과제	40
4. IB 교육과정과 2015개정 교육과정 비교분석	46
5. 선행연구 분석	49
III. 연구 방법	54
1. 연구 내용 및 절차	54
2. 연구 방법	54
IV. IB 교육과정 도입결정 교육청 면담 내용 분석	56
1. J교육청	56
2. D교육청	78
V. IB 교육과정 전문가 면담 내용 분석	87
1. L○○ 박사 면담 내용 분석	87
2. D교육청 T/F분과 팀장 면담 내용 분석	119
VI. IB 교육과정 적용학교 면담 및 관찰 내용 분석	120
1. K외국어고등학교	120
2. S고등학교	129
3. J지역 국제학교	136
VII. 결론 및 제언	146
1. 결론	146

2. 정책적 제언	153
참고문헌	157
[부록] 1. 개방형 설문지	162
[부록] 2. J지역 탐방 보고서	164
[부록] 3. D지역 탐방 보고서	166

<표 1> IB가 제시하는 학습자상	27
<표 2> MYP의 학습 평가	31
<표 3> DP의 교과 그룹	32
<표 4> PP의 중핵요소	32
<표 5> IB의 교수 접근 방법	34
<표 6> IB의 학습 접근 방향: 5가지 스킬	36
<표 7> IB 교육과정 운영 국가 및 학교 현황(2018. 3 기준)	37
<표 8> IB 교육과정 운영 국가 및 학교 현황 비교	37
<표 9> 한국의 IB 도입 학교 및 적용 프로그램 현황(2018.3. 현재)	39
<표 10> IB 인정교 인정 절차에 따른 WS 종류 및 대상(DP)	43
<표 11> IB 인정교 인정 절차에 따른 WS의 범주	44
<표 12> IB 인정교에 따른 소요 비용	45
<표 13> 학생 1인당 DP 수험료	46
<표 14>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요약	48
<표 15> 초등교사교육의 지향점과 IB프로그램의 유사성	50
<표 20> 교직원 현황	131
<표 21> 학생 현황	131
<표 22> 디플로마 취득 유형	134

<그림 차례>

[그림 1] 연구 절차와 내용	54
[그림 2] S고 건학이념	130
[그림 3] 수강과목 개설 및 신청	133
[그림 4] 디플로마 이수 모형도	134
[그림 5] 디플로마 취득 유형	135

1. 서론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여전히 기존의 객관식, 단답식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 등을 신장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 및 평가방법 모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수 학습을 위한 방법적 측면에서도 일방적인 강의식 교수학습법이 아니라 토론, 토의, 프로젝트, 문제해결 방식 등의 새로운 교수학습법의 도입과 학교 현장 적용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혁신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내실화와 배움 중심 교수학습방법의 변경은 쉽게 일반화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데 한계를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장과 접목에서의 형식과 실재사이에서 괴리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수업혁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강의식의 일방적 수업은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 수동적이므로 아이들이 무기력하다. 아이들의 무호응이 반복되면 교사도 잘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진다. 과거에 열린교육¹⁾(open education)을 통해 수업개선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력을 신장시키려는 자발적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정부가 개입한 이후에는 실패했다.

1990년대 열린교육이후에도 수업변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김태현, 2015; 의정부여자중학교, 2015; 손우정, 2015; 정형권, 2016; 권순현, 2016)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나 수업만을 개선해서는 교육개혁이 달성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평가를 동시에 개혁해야 한다는 담론(김해경 외, 2017; 성태제, 2017)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수업과 평가를 본질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역시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이에 수업과 평가를 결정하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정성식, 2016)이 움트기 시작했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국가와 교수중심이 아닌 현장의 교사를 중심으로 수업과 평가를 일체화 하는 논의(이형빈, 2015; 박승열 외, 2017)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지방자치시대를 통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학교변화를 위한 혁신학교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처음 실시한 경기도 지역에서도 일반화와 확산이 생각보다 더디게 늦은 속도로 진행(백병부, 2015)되고 있다. 이를 보면 혁신학교도 우리나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명약은 아닐 수도 있다. 또한 모든 교육개선과 혁신의 노력 움직임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1) 학생에게 스스로 교육적 활동을 선택하는 자유를 주며, 학생의 개인차와 흥미를 기초로 교과 내용을 개별화된 수업형태를 제공하고, 흥미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마련하여 창의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육성과 개성 신장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는 것에 대한 반성도 일어나며 이에 본질적 교육혁신은 결국 대입을 위한 평가이며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변화해 보려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J교육감이 국제심포지엄(2016)을 통해서 IB를 소개했고, 이러한 IB에 대해서 교육현장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IB라는 외국의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교육청도 IB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도입과 적용방안 연구를 통해 학교현장의 변화와 평가방식의 혁신을 통한 학생의 미래 역량 및 융·복합 능력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전문가 및 IB 교육과정 운영학교 관계자 인터뷰와 J, D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및 수업과 평가혁신에 대한 인터뷰 내용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지속 가능한 경남교육의 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로 설정했다.

첫째, IB교육과정도입을 결정한 교육청 담당자 면담에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개선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둘째, IB교육과정 전문가 면담에서 IB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개선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셋째, IB교육과정 적용 학교 관계자 면담과 관찰에서 IB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수업, 평가개선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II. 연구의 배경

1. IB 교육과정의 설계

IB는 창설 성격 및 이념에서 비추어 '국제적 시각'을 중심으로 그 '임무·사명(mission)'과 기르고자 하는 '학습자상(learner profiles)'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자면 지향하는 이념 및 철학이면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과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체제(curriculum framework)'는 IB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과 영역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IB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수업의 교수와 학습의 기본 방향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을 구성함과 함께 실제 수업에서도 이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IB의 임무·사명

IB는 그들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이념 및 철학,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임무·사명(mission)'을 통해 밝혀 두고 있으며, 이하와 같이 국제적 시각 및 학습자상, 교육과정 체제, 교수 접근 방법과 학습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IB, 2017). 임무·사명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평화로운 세계 창출, 이에 기여하는 탐구심과 지식, 배려심 있는 인간 육성, 도전적인 국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엄격한 평가, 타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 이에 대한 생애 학습 등이다.

IB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정신을 통해 보다 나은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탐구심과 지식, 배려심이 풍부한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IB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학교와 정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도전적인 국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세계 각지의 학생들에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적극적이고 공감적이고 생애에 걸쳐 배우도록 한다.

출처: IBO, 2017

2) IB 교육의 중심 목적으로서의 '국제적 시각' 형성

'국제적 시각'은 IB 교육의 중심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IB 교육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은 이 '국제적 시각' 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리매김 된다. '국제적 시각'은 세계에 대한 열린 태도와 다른 사람과의 깊은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인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사고와 존재, 행위 방식을 파악하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개념이다.

세계에 대해 열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B 프로그램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과제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목전의 상황이나 경계를 초월하여 사태를 보고자 하는 자세는 글로벌화와 새로운 기술에 따라 지역, 국내, 세계라고 하는 종래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세계에서는 필요 불가결하다고 본다.

IB 교육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시각과 문화, 정체성을 되돌아봄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국제적 시각을 기른다. IB 학습자는 다른 신념과 가치관, 경험에 대해 평가하고 문화와 학문 전반에 걸쳐 생각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운다.

이에 따라 보다 평화롭고 지속적인 세계로의 진보에 필요한 이해를 함양한다.

또한 IB 교육은 다언어주의를 통해 국제적 시각을 향상시킨다. IB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복수의 언어로 학습하도록 요구한다. 왜냐하면 복수의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다문화 이해와 존중심을 기르는 데 대단히 훌륭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 세계관이 수많은 것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3) IB 학습자상

모든 IB 프로그램은 국제적 시각을 지닌 인간 육성에 목적을 둔다. 그들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인간성과 지구를 함께 지키는 수호자임을 인식하고 보다 나은,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창출해 가도록 한다. IB 학습자로서 지녀야 할 학습자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IB가 제시하는 학습자상

학습자상	과제수행
탐구하는 사람 (Inquirers)	호기심을 기르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기능을 익힌다. 스스로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방법을 안다. 열정을 가지고 배우고 생애에 걸쳐 배움의 기쁨을 계속 가진다.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 (Knowledgeable)	개념적 이해를 깊이 하여 활용하고, 폭넓은 학문 지식을 탐구한다. 지역사회와 글로벌 사회의 중요한 과제와 아이디어에 열의를 가지고 임한다.
생각하는 사람 (Thinkers)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을 활용한다. 주도적으로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내린다.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 (Communicators)	여러 언어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다른 개개인과 집단의 시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서로 협력한다.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Principled)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정성과 정의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행동한다.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에 수반되는 결과에 책임을 진다.
개방적인 사람 (Open-minded)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와 개인사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다양한 관점을 추구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성장해 가고자 한다.
배려심 있는 사람 (Caring)	공감과 인정, 존중의 정신을 보인다.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다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Risk-takers)	깊이 생각하고 결단력을 가지고 불확실한 사태에 맞선다. 스스로 또는 협력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 전략을 탐구한다.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여 기지를 발휘하고 결연히 임한다.
균형을 이룬 사람 (Balanced)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관련하여 우리들의 삶을 구성하는 지성과 신체, 정서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와 상호 의존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반성적인 사람	우리가 사는 세계와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 경험에 대해 깊

(Reflective)	이 생각한다. 우리 자신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	--

10개의 학습자상의 특성은 IB 교육의 전인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10개의 특성은 지식과 기능(skill)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기심과 공감(compassion)과 같은 소질을 육성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그것들은 IB 프로그램이 인지 발달과 함께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 건강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 다른 사람, 주변 세계를 존중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IB 교육자(교사)는 IB 교육의 과정(course)에서 학생들이 이들 특성을 육성하고, 또한 그들이 성숙해 감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세련되게 그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IB에서는 이들 특성을 개발하는 것은 보다 나은 세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시각을 지닌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고 본다.

4) 종류: 연결성을 지닌 교육과정

IB에서는 4개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는데, 초등교육 프로그램(Primary Years Programme, 이하 'PYP'라고 칭함)과 중등교육 프로그램(Middle Years Programme, 이하 'MYP'라고 칭함), 디플로마 프로그램(Diploma Programme, 이하 'DP'라고 칭함), 직업 연계 프로그램(Career-related Programme, 이하 'CP'라고 칭함)이 그것이다. 4개의 각 IB 프로그램은 폭 넓고 균형 있고 개념적이고 연결성을 지닌 교육과정으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발달단계상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체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IB 프로그램은 폭 넓고 균형 잡힌 교과 학문 연구(academic studies)와 학습 경험을 하는 장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그것들은 교과 영역 간의 연결성·관련성을 강조하고 통합 학습과 교육과정의 일관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개념학습을 촉진하도록 한다. 각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 범위를 초월하여 연결의 중요성과 교과 학문(academic disciplines) 간의 관계성 탐구, 세계에 대한 학습을 강조한다. 그것들은 또한 학생들의 학습과 그들 주변 세계와 연결시키는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4개 프로그램은 모두 국제적 시각과 IB의 학습자상을 육성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면서도, 또한 각기 독자적 정체성과 발달 단계상 적합한 요소들을 구성하고자 한다.

IB는 그들의 교육과정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평가는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강조한다. 따라서 평가는 교육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실시한다. IB 인정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한다. 교수와 학습에 유의미한 정보를 주는 데 필요한 평가 데이터 해석의 중요성과,

학생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수행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을 인식시키는데 평가의 중점을 둔다.

IB는 원래 1960년대 구미에서 해외 주재 자녀들이 증가하여 고등교육 기관에 진할 수 있는 세계 공통의 자격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IB 기구는 다양한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고등교육진학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이 1968년 IB 창설과 함께 도입된 DP 프로그램이다. 그로부터 26년 후 1994년에 MYP가, 1997년에 PYP, 2012년에 CP가 각각 개발·도입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IB 교육 및 교육과정을 도입·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IB에서 설계·개발한 이 4개의 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각 프로그램은 IB의 이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것으로, 본 발표에서는 이하 개략하여 소개해 두고자 한다 (IB, 2017: IB, 2018a:2018b: 2018c: 2018d: 2018e: 2018f: 2018g: 2018h: 2018i: 2018).

(가) 초등교육 프로그램(Primary Years Programme, PYP)

PYP는 3~12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과 신체의 양 측면 발달을 중시하고, 사용 언어는 어떤 것을 사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전통적 교과의 경계를 초월한 학습을 지향한다. 아래와 같이 학생들은 글로벌의 중요성과 관련한 6개의 교과 초월의 통합적 주제(transdisciplinary themes)를 탐구한다. 최종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프로젝트로 '발표회(exhibition)'가 있다.

- 우리는 누구인가?
- 우리는 어떤 장소와 시대에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가?
- 세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는가?
- 지구를 공유하는 것

이들 교과 초월의 통합적 주제를 탐구하면서, PYP의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사회, 수학, 과학, 예술, 체육 교과를 학습한다.

(나) 중학교 교육 프로그램(Middle Years Programme, MYP)

MYP는 11~16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학습과 사회관계를 학습하게 되는 프로그램이고, 사용 언어는 초등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사용해도 가

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MYP 교육과정 체제는 초기 청소년들에게 폭 넓고 균형 잡힌 교육을 제공하는 8개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8개 교과군인 언어와 문학, 개인과 사회, 수학, 과학, 체육과 건강, 언어 습득, 예술, 디자인으로 구성된 핵심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아래와 같이 MYP의 특징은 학생들이 PYP의 교과 통합적 주제를 확대·발전시킨 6개의 글로벌한 맥락과 개념에 집중하여 탐구한다는 것이다.

- 정체성과 관계성
- 개인적 표현과 문화적 표현
- 시·공간 속의 위치 결정
- 과학과 기술의 혁신
- 공평성과 발전
- 글로벌화와 지속 가능성

MYP에서는 최종적으로 '개인 프로젝트(personal project)'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에세이, 예술 작품 제작 또는 다른 형태의 표현 등과 같은 독자적인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학생들은 독자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게 된다. 또한 '지역사회 프로젝트(community project)'도 수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수행할 권리와 책임감을 경험하도록 권장되는 것이다.

MYP에서 평가는 언어와 문학, 과학, 수학, 개인과 사회의 4개 교과군과 교과 초월의 간학문 학습은 외부평가로 시행되며 IB 시험관에 의해 개별 채점된다. 언어습득, 체육과 건강교육, 예술, 디자인의 4개 교과군은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로 자체 평가하여 IB 시험관이 국제 기준에 따라 채점한 후 외부에서 확인·조정한다. MYP e평가는 전통적인 시험 방식을 초월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념적인 이해와 복잡하고 낯선 상황에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하여 IB에 의한 외부평가를 받은 학생들은 IB 과정 성적(IB course results)과 IB MYP 자격증(IB MYP Certificate)을 받는다.

<표 2> MYP의 학습 평가

현장 시험 교과	수학, 언어와 문학, 과학, 개인과 사회, 간학문 학습
	개별적으로 외부평가에 의한 채점
수업활동 e포트 폴리오	언어습득, 체육과 건강 교육, 디자인, 예술
	자체평가에 의한 채점 후 외부 확인·조정

MYP 개인 프로젝트	자체평가에 의한 채점 후 외부 확인·조정
-------------	------------------------

출처: IB(2018g)

(다) 디플로마 프로그램(Diploma Programme, DP)

DP는 16~1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2년 간 이수하게 된다. 최종 시험을 거쳐 기준 성적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인정된 대학 입학 자격(IB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 언어는 원칙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 스페인어이다.

<표 3> DP의 교과 그룹

교과 그룹	과목 예시
1. 언어와 문학 (모국어)	언어A: 문학, 언어A: 언어와 문화, 문학과 연극
2. 언어습득(외국어)	언어B, 초급 어학
3. 개인과 사회	비즈니스, 경제, 지리, 글로벌 정치, 역사, 심리학, 환경 시스템 사회, 정보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사회, 철학, 사회·문화, 인류학, 세계의 종교
4. 과학	생물, 화학, 물리, 디자인 테크놀로지, 환경 시스템과 사회, 컴퓨터 과학, 스포츠·운동·건강과학
5. 수학	수학 연구, 수학SL, 수학HL, 수학FHL
6. 예술	음악, 미술, 댄스, 필름, 문학과 연극

<표 4> DP의 중핵 요소

교과 그룹	과목 예시
과제논문 (Extended Essay, EE)	이수과목과 관련한 연구 분야에 대해 개인연구 형태로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 성과를 4,000자의 논문으로 정리한다.
지식의 이론 (Theory of knowledge, TOK)	· '지식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지식에 관한 주장'을 분석하여 지식 구성에 관한 물음을 탐구한다.

	<p>비판적 사고를 배양하고 학생이 자기 나름의 견해나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관점과 가정에 대해 보다 명료하게 인식하게 되도록 한다. · 최소 100시간 학습한다.
창 의 성 · 활 동 · 봉사 (Creativity/Action/Service)	창의적 사고를 수반하는 예술 등의 활동, 신체적 활동, 무보수의 자발적 교류활동 등과 같은 체험적 학습을 수행한다.

DP에서 교육과정은 <표 -6>와 <표 -7>과 같이, 6개의 교과 그룹(subject groups)과 3개의 DP 중핵 요소(elements of the Diploma Programme core)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6개 그룹에서 각 과목을 선택하여 6개 과목을 2년 간 학습하게 되는데, 다만 ‘예술그룹’은 다른 그룹의 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6개 과목 중 3~4개 과목은 상급 과목(HL, 각 240시간), 그 나머지를 표준 수준(SL, 각 150시간)으로 학습한다. 또한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3개의 DP 중핵 요소도 병행하여 필수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과제 논문(extended essay)’은 DP에서 최종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프로젝트이다.

DP에서 IB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DP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외부평가(IB 시험)와 자체평가를 통해 총 45점 만점 가운데 원칙적으로 24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배점은 6개 과목마다 각 7점(계 42점)이고, 필수이수 요건인 ‘중핵 요소’에서 TOK와 EE의 평가 결과를 조합하여 최대 3점이 부여된다. CAS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IB의 시험은 남반구와 북반구의 학교 연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 2회로 일제히 실시된다.

(라) 직업 연계 프로그램(Career-related Programme, CP)

CP에서 학생들은 DP 코스 학습과 직업 연계 프로그램의 4개 중핵 요소를 결부시켜 학습하게 된다. 이들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개인과 직업 기능 코스’는 학생들이 장래 직장에서 조우하게 될 개인적 및 직업적인 여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수행하는데 초점을 둔다. CP에서는 최종 프로젝트로 ‘성찰 프로젝트(reflective project)’를 수행한다.

5) 교수-학습 접근 방법

IB에서는 6개의 '교수 접근 방법(approaches to teaching)'과 5개의 '학습 접근 방향(approaches to learning)'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접근 방법 및 방향은 IB 인정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제를 안내하고 명확히 한다. 이들 접근 방법 및 방향은 IB 교육의 열망(바람)을 교실에서 실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접근은 묻고 (asking) 실행하고(doing) 사고하며(thinking), 상호작용적인 탐구(inquiry), 실천(action), 성찰(reflection)의 순환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매일의 활동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교수 접근 방법

6개의 교수 접근 방법은 모든 IB 프로그램의 교수(teaching)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들 접근은 의도적으로 폭 넓게 제시하고 있는데, 각 교사들이 그 수업의 특정 맥락과 학생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데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 II-5>에 제시되어 있는 6개의 교수 접근 방법에서 볼 때, 교사는 IB의 이념과 철학의 중심에 있는 국제적 시각을 둘러싼 실생활과 주변 세계와 연결한 학습경험에 중점을 둔다. 또한 교사의 주도적 교수 활동보다는 학생 중심의 상호작용적 학습활동이 일어나도록 설계되고 평가 피드백으로부터의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교수 접근을 강조한다.

<표 5> IB의 교수 접근 방법

교수	접근방법
탐구에 기반 한 교수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개념 이해에 중점을 둔 교수	교과(disciplinary) 이해의 심화와 연결성(connections)을 찾아내 새로운 맥락(상황)으로 전이 학습이 일어나도록 돕기 위해 개념 탐구가 이루어진다.
지역과 글로벌 맥락에서 전개되는 교수	이 교수 접근은 실생활 맥락과 사례를 활용하고, 학생들이 그들의 경험과 주변 세계를 연결시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팀워크와 협력에 중점을 둔 교수	이것은 학생들 간의 팀워크와 협업(collaboration)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협업적 관계도 포함한다.
학습 방해 요소 제거 설계 교수	교수는 포괄적이고 다양성에 가치를 둔다. 이 교수 접근은 학생들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모든 학생들이 그 자신의 적합한 개인 목표를 개발하고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학습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지향한다.
평가 정보를 활용하는 교수	평가는 학습 성과를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을 지원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교수 접근에서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 기능을 인식하고 있다.

(나) 학습 접근 방향

학습 접근 방향에 대한 IB의 초점은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학생 교육의 기본이다.'라는 신념에 기반하고 있다. 상호 관련성을 지닌 기능(skills)의 5개 범주 목적은 모든 연령대의 IB 학생이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알고, 효과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들의 열망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를 하는 자기조절 학습자(self-regulated learners)가 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들 5가지 기능 범주는 각 프로그램 내에서 발달단계상 적합한 방법으로 강조되는 기능과 함께 모든 IB 프로그램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들 기능들은 적극적이고 공감적이고 생애에 걸쳐 학습하는 학습자를 육성한다는 IB 임무·사명을 뒷받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기능들이 비록 범주화되어 개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그것들의 사이에는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들 범주들은 상호 관련지어 파악되어야 함을 밝혀 두고 있다.

<표>의 5가지 기능들은 IB 교육 후 학생들이 갖게 되는 역량을 제시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IB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IB에서 제시하는 사고 기능과 의사소통 기능, 사회성 기능, 자기 관리 기능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과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IB에서는 '연구 기능'이라는 독특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하위 구성 요소들이 정보의 비교와 대조, 검증, 우선순위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처리 역량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IB가 핵심역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 구성 핵심역량도 유사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표 6> IB의 학습 접근 방향: 5가지 스킬

기능	하위 구성요소
사고 기능 (thinking skills)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윤리적 사고
연구 기능 (research skills)	정보의 비교, 대조, 검증, 우선순위
의사소통 기능 (communication skills)	기술(記述)과 구두 의사소통, 효과적인 경청, 논쟁의 구성
사회성 기능 (social skills)	긍정적 관계 형성 및 유지, 경청 기능, 갈등 해결
자기 관리 기능 (self-management skills)	시간과 과제 관리와 같은 조직화 기능, 감정 상태와 동기 관리와 같은 정의적 기능

2. IB 교육과정 도입 및 적용 현황

가. 주요국의 도입 및 적용 현황

<표 7> IB 교육과정 운영 국가 및 학교 현황(2018. 3 기준)

프로그램	설립시기	대상연령	2009	2014.3	2017.11	2018.3
PYP	1997	3-12	467	1,130	1,520	1,610
MYP	1994	11-16	568	1,062	1,222	1,457
DP	1968	16-19	1,771	2,469	3,200	3,299
CP	2012	16-19	-	-	178	170
각 프로그램 운영 학교수 합계			2,806	4,661	6,120	6,536
IB 인정교 수 합계			-	3,725	4,612	5,060
IB 운영 국가 수			-	146	153	153

출처: 교육과정평가원, 2018.

<표 8> IB 교육과정 운영 국가 및 학교 현황 비교

국가	최 초 연도	2014.3.					2018.3.				
		PYP	M Y P	DP	프 로 그 램 합계	IB인 정 교 합계	PYP	M Y P	DP	프 로 그 램 합계	IB인 정 교 합계
미국	1971	412	508	801	1721	1497	540	648	923	2207	1792
캐나다	1974	66	164	152	382	334	84	172	176	435	373
영국	1971	13	11	149	173	156	11	12	107	169	113
호주	1978	92	41	62	195	150	128	45	71	245	183
인도	1976	49	11	94	154	108	76	29	122	227	145
멕시코	1980	49	32	61	142	101	58	38	71	172	111
중국	1991	30	22	63	115	76	60	36	99	197	128
스페	1977	8	10	72	90	74	17	17	106	141	109

인											
에과 도르	1981	7	8	63	78	64	13	16	265	294	266
독일	1971	23	9	54	86	59	27	12	76	117	81
싱가 포르	1977	17	6	21	44	29	18	8	24	51	33
일본	1979	15	7	19	41	27	26	14	38	78	55
한국	1980						8	6	11	25	12

출처: 교육과정평가원, 2018.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IB 기구가 1968년 창설 이래 매년 운영 국가 및 프로그램, 학교가 상당한 폭으로 증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2018년 3월 현재 153개국의 5,060개교에서 6,536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I->에 제시된 국가별로 보면 거의 모든 국가가 IB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있고,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다만 영국의 경우는 운영 학교 수가 2014년 156개교에서 2018년 3월 현재 113개 교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DP 프로그램 운영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의 경우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늦게(1991년) IB 교육과정을 도입했지만 2018년 3월 현재 IB 인정교가 128개교로 세계 6위로 성장했다.

나. 우리나라의 도입 및 적용 현황

실제 IB 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IB 인정교는 <표III->과 같이 2018년 3월 현재 12개교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이들 학교 모두 설립주 체가 사립이고, 대부분의 학교가 외국 학교 분교이거나 외국인 학교인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정규 학교라고 부를 수 있는 학교는 2010년에 인정교가 된 경기외국고등학교 정도이고, DP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IB 기구에 등록된 과목에서 볼 때 K외고는 IB 과목은 생물, 경제, 영어 B, 수학, 한국어 A 문학, 화학, 영어 A 언어-문학, 역사, 일본어 B, 지식의 이론(TOK)의 10개 과목을 설치하고 있다(IB, 2018a).

우리나라에 처음 IB 과정을 도입한 학교는 1980년에 도입한 'S 외국인 학교(Seoul Foreign School)이다. 2018년 3월 현재 PYP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는 8개교, MYP는 6개교, DP는 11개교로 DP가 처음 도입한 것이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학교가 운용하고 있다. DP에서 가장 많은 과목을 설치하는 학교는 Dwight School Seoul과 Gyeonggi

Suwon International Foreign School로 29개 과목이고, MYP에서는 가장 많은 과목을 운영하는 학교는 Gyeonggi Suwon International Foreign School로 18개 과목이다. 그리고 3개 프로그램(PYP, MYP, DP)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Branksome Hall Asia를 비롯하여 6개교이다.

<표 9> 한국의 IB 도입 학교 및 적용 프로그램 현황(2018.3. 현재)

학교	설립주체	사용언어	PYP	MYP	DP
			도입연도	도입연도	도입연도
Branksome Hall Asia	사립	영어	2013	2014	2013
Busan International Foreign School	사립	영어	2009	2015	2008
Chadwick International	사립	영어	2013	2017	2015
Dulwich College Seoul	사립	영어			2015
Dwight School Seoul	사립	영어	2014	2014	2013
Gyeonggi Academy of Foreign Languages K외고	사립	영어			2010
Gyeonggi Suwon International School	사립	영어	2011	2012	2009
Gyeongnam International Foreign School	사립	영어			2015
Namsan International Kindergarten	사립	영어	2016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사립	영어			2012
Seoul Foreign School	사립	영어	2017		1980
Taejon Christian	사립	영어	2008	2012	2004

International School					
----------------------	--	--	--	--	--

출처: 교육과정평가원, 2018.

다. 일본의 도입 및 적용 현황

일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육 개혁을 단행한 일본은 2013년 시마무라 요시노부 문부상이 IB를 전국 공교육에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천명한 이후 2018년 2월 현재 약 140개 학교가 IB 교육과정 인증을 받았다. 연말까지 200개 이상으로 인증 대상 학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매일경제, 2018).

3. IB 인정학교 인정 절차와 과제

가. 인정학교 인정 절차

IB 인증을 위한 절차를 [그림 III-1]과 같이 크게 관심 학교 단계(관심 학교 단계, IB 기구에 후보 학교 신청, 후보 학교 인정), 후보 학교 단계(IB 기구 컨설턴트의 방문, IB 기구에 인정 학교 신청, IB 기구의 확인 방문), IB 인정 학교(인정 결정, IB 기구의 평가방문)의 단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림 III-1]의 각 단계에 따라 걸리는 기간은 전체적으로 약 2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IB 신청에서 후보교 지정까지가 약 6개월 정도, 후보교를 거쳐 인정교가 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걸린다. 또한 일정교가 되고 나서 IB 수업 실시 준비 기간이 약 6개월 걸린다(교육과정평가원, 2018).

(1) 관심 학교 단계

이 단계는 'School Information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IB 인정 교를 위한 관심 학교의 첫 단계이다. 이 양식을 작성하여 IB 기구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작성하는 주요 내용은 학교명 및 학교장명,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로 되어 있다.

'School Information Form'이 접수되면 IB 기구로부터 해당 학교로 IB 관련 문서가 송부된다.

(2) 후보 학교 신청서 제출

학교는 IB 기구에 후보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후보 학교가 된다.

후보교 신청을 하기 전에 학교의 관리자는 DP 워크숍(Administrator 대상)을 수강할 필요가 있다. 후보교 신청서를 IB 기구에 제출하는 시기는 매년 2회, 4월 1일, 10월 1일이 제출기한으로 되어 있다. 후보교 신청서는 소정 양식의 'Application for candidacy'와 첨부 자료로 구성 되어 있다. 후보교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첨부 자료는 ①Action Plan, ②학교의 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서류, ③관리단체로부터의 재정 지원을 증명하는 서류, ④조직도의 4가지이다.

(3) 후보교 신청서의 검토

학교가 제출한 후보교 신청서는 IB 기구의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약 4개월 정도 걸린다. 후보교 신청서에 형식상의 미비점이 없으면 대개 후보교로 통지 받게 된다.

후보교 인정 후 학교는 OCC(Online Curriculum Centre)(IB에 관한 다양한 서류를 열람할수 있는 사이트), IBIS(International Baccalaureate Information System)에 로그인할 수있는 패스워드 등이 주어지게 되며 이후 이들 웹 페이지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4) 컨설턴트의 결정.방문

학교가 후보교로 인정을 받은 후 IB 기구가 컨설턴트를 결정하게 된다. 후보교의 학교는 컨설턴트의 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컨설턴트의 조언은 학교가 제출한 'Action Plan'에 따라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웹 또는 전화로 행하게 되는 DP 코디네이터와 컨설턴트가 조정한 후, 컨설턴트가 실제로 학교를 방문을 한다. 컨설턴트 방문에 따른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는 학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컨설턴트 방문 결과는 '컨설턴트 보고서'로 학교에 통지한다. 컨설턴트 보고서는 항목마다 3단계(좋음, 보통, 좀 더)의 평가가 내려진다. 이때 모든 항목이 '좋음'으로 평가받을 필요는 없고 '보통', '좀 더'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컨설턴트는 후보교가 인정교를 받아 가는 가운데 이 보고서에서 '좀 더'의 평가를 받은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을 위한 조언을 행한다.

(5) 인정교 신청서 제출

컨설턴트 방문을 거치면서 수차례의 협의를 거친 후 컨설턴트 보고서의 각 항목이 대략 ' 좋음 ' 평가를 받는 시점에서 컨설턴트로부터 학교에 인정교 신청서 제출 허가 통지가 있게 된다. 통지를 받고 학교는 인정교 신청서를 IB 기구에 제출한다. 인정교 신청은 지정된 양식의 'Application for authorization'과 첨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주로 후보교 신청 때의 자료를 경신하는 형태가 된다.

(6) 인정교 신청서의 검토

학교가 제출한 인정교 신청서는 IB 기구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약 4개월 소요된다. 서류 검토 후의 결과가 IB 기구로부터 피드백이 있게 되고 그것을 받아 담당자와 수차례의 협의를 하게 된다. 또한 서류 검토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한 후 확인방문의 일정 조정을 한다.

(7) 확인 방문

확인 방문단의 방문 일정 조정 후 확인 방문단(통상 2명)이 학교를 3일간 방문을 하여 인정교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최종 확인 한다. 확인 방문단의 방문 때 드는 교통비 및 숙박비는 학교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 또한 3일간의 방문에서는 시설확인, 교직원(교장, 코디네이터, 교원, 도서관 사서 등)과의 면담, 학생 및 학부모와의 면담 등이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8) 인정

확인 방문단의 방문을 거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인정 학교로서의 인정통지를 받는다. 이 통지로 학교는 IB 인정교로서 DP 수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9) 인정 후의 정기평가 방문

IB 인정교가 된 후에도 학교는 정기적으로 IB 기구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5년에 한 번 실시되는 정기평가 방문이 그것에 해당된다. 또한 정기평가 방문은 모든 학교가 IB 기구에 의한 방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방문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1년 전에 그 취지를 연락하며, 방문 할 때에는 확인방문과 동일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문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는 서류에 의한 자체평가(내부평가)를 제출하여 IB 기구로부터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받게 된다.

나. 인정학교 인정 절차에 따른 과제

(1) 워크숍 참여 수강

<표 Ⅲ->에 보는 바와 같이 IB 후보 학교를 신청하고 인정교가 되고 난 이후까지도 IB 학교 교원은 IB가 지정하는 각종 워크숍(Workshop, WS)을 수강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도 지불하게 되어 있다. IB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은 이른바 IB의 교원연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워크숍의 모든 영역에 참여 수강하면 그에 해당하는 연수 참가 인증서가 주어진다.

통상 1개 워크숍은 3일 간 실시된다. <표 Ⅲ->에 보는 바와 같이 워크숍의 수준(참가자의 IB 이해도)에 따라 '카테고리 I ~Ⅲ'가 있다. 참가비는 조기 등록할 경우 1인당 860 싱가포르 달러(SGD, 약 73,000엔, 약 730,000원)이 되고, 통상의 등록인 경우는 1인당 940 싱가포르 달러(SGD, 약 79,000엔, 약 790,000원)이다(2015년 현재).

DP의 경우, 최소한도로 참가 수강해야 하는 워크숍은 <표 Ⅲ->과 같다.

<표 10> IB 인정교 인정 절차에 따른 WS 종류 및 대상(DP)

워크숍 종류	대상자	필요기한
Administrator	교장, 교감 등의 학교관리자	후보교 신청까지
DP 코디네이터 [카테고리1]	코디네이터가 되는 자	확인방문까지
TOK [카테고리1]	TOK 교원이 되는 자	확인방문까지
CAS [카테고리1]	CAS 코디네이터가 되는 자	확인방문까지
그 밖의 각 과목 [카테고리1]	각 과목의 교원이 되는 자	확인방문까지

출처: 교육과정평가원, 2018.

또한 <표>와 같이 DP의 코디네이터 WP 및 각 과목 WP은 참가자의 경험 수준에 대응하여 3가지로 구분된다.

<표 11> IB 인정교 인정 절차에 따른 WS의 범주

카테고리	내용
1	IB 신청 학교를 위해 전문능력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 WP를 수강하면 IB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됨.
2	경험이 있는 IB 교육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실시에 초점을 둔 포럼을 제공함.
3	경험이 있는 IB 교육자를 대상으로 전문적 능력을 촉진·강화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함.

출처: 교육과정평가원, 2018.

(2) 소요 비용

<표 III->와 같이 IB 후보 학교를 신청하고 인정교가 되고 난 이후까지 인정교 신청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상당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은 단위 학교가 IB 기구에 인정교를 신청하는 최초 단계에서 인정교로 승인받은 이후까지 들게 되는 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IB 기구의 IB 인정교 승인에 이르기까지 관심교 단계, 후보교 단계, IB 인정교 단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명목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단순 계산해서 볼 때 인정교가 되기까지는 약 2~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인정교가 되면 연회비로 매년 1천만원, 5년마다 IB기구 방문평가로 약 4백만원이 들게 된다.

<표 12> IB 인정교에 따른 소요 비용

단계	항목	비용	
		엔	원
관심교	후보교가 되기 위한 신청	약 470,000	약 4,700,000
후보교	후보교로서 연회비	매년 약 1,060,000	매년 약 10,600,000
	IB 컨설턴트 방문 (인정교 신청 전)	여비, 숙박비	여비, 숙박비
	IB의 인정 방문 (인정교 신청 후)	여비, 숙박비	여비, 숙박비
인정교	인정교로서의 연회비	매년 약 1,090,000	매년 약 10,900,000
	IB의 평가방문	5년마다 약 390,000	5년마다 약 3,900,000

출처: 교육과정평가원, 2018.

또한 이와는 별도로 <표 III->과 같이, 학생들도 IB 자격증 취득에 따라 비용이 들게 된다. 이른바 IB 수험료이다. 먼저 시험 등록비가 약 16만원, 자격조건이 되는 6개 과목마다 약 11만원, 과제는문(Extended Essay, EE)에서 약 8만원, 지식의 이론(Theory of Knowledge, TOK)에서 약 4만원, 창조성·활동·봉사(Creativity/Action/Service, CAS)에서 약 1만원, 합계 약 93만원(합계 1.097SGD, 93,000에 따른 환율)이 들게 된다.

<표 13> 학생 1인당 DP 수험료

단계	비용	
	엔	원
시험 등록비	약 16,000	약 160,000
과목당 수험료*6과목	약 11,000×6과목 =66,000	약 110,000×6과목 =660,000
과제논문(EE)	약 8,000	약 80,000
지식의 이론(TOK)	약 4,000	약 40,000
창조성·활동·봉사(CAS)	약 1,000	약 10,000
합계	약 93,000	약 930,000

출처: 교육과정평가원, 2018.

(3) 코디네이터 확보

<표>의 '필수 워크숍'에 '코디네이터'가 등장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는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 코디네이터는 IB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IB 기구, 학교 관리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간의 연락·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코디네이터는 IB 교육이념에 정통하고 해당 학교의 인정교를 위한 과정 및 교육과정 구성·평가, 시험 실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여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한 IB 기구와 연락 조정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표 III->에 적시되어 있듯이 IB가 실시하는 코디네이터 대상의 워크숍(WS)을 IB의 확인방문 때까지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IB 교원·교사 확보

IB 교원 및 교사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IB 기구가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가 수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3일 간의 워크숍에 참가하면 IB 교원으로서 현장에 설 수 있다. 또한 교원은 교과 가이드가 개정되는 시기마다 다시 워크숍에 참가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IB 교육과정과 2015개정 교육과정 비교분석

국제 사회 변화에 대한 학교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대응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에서도 등장하게 된다. 여기서는 향후 우리나라 교육에서 인재 육성 전략이 '기능 인력 중심'에서 '창의 인재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국내적 인재'에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야 하며, 이 인재 상을 '글로벌 창의 인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글로벌 창의 인재의 모습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설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이 인간상은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박순경 외, 2010: 12-13).

핵심역량의 아이디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보다 구체화되어 총론과 각론에 각각 반영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창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설계의 커다란 방향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 과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는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서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 핵심역량 반영 교육과정 설계이다. 후자는 분과적 교과 교육과정을 극복하여 '단편적 지식 습득'보다는 '다양한 지식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실제 활용'에 중점을 두는 창의 융합 교육과정 설계이다. 이를 위해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핵심개념과 성취기준의 코드 등을 설정하여 단위 수업에서 교과 내 및 교과 간 '연결성'을 도모하여 '연계.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정영근 외, 2016: 18, 21).

<표 14>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요약

<p>2015 개정 교육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구하는 인간상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핵심역량: 사례 - 교과 (*국어과) <p>총론: 자기관리 역량, 지식 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p> <p>성격: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p> <p>내용 체계 * '기능' 제시: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 맥락 이해·활용하기, 청자 분석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등</p> <p>교수·학습 방법: 국어과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하기 등</p> <p>평가: '국어'에서 기르 고자 하는 교과 역량 및 창의·인성 등 평가 내용의 특성을 고려....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학교교육목표 -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고등학교교육목표 -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p>출처: 교육부(2015: 1, 2, 5, 6)</p>
--

제7차 교육과정부터 비롯된 세계 및 국제적 시각의 교육과정 반영과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주목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반영 도모한 핵심역량 및 연계·융합 설계를 시도한 다는 점에서, IB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방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B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에 도입·적용한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학생들의 전환을 위해 제도적 및 학교 구조적 개혁보다는 전환이 보다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수업 방법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영근 외, 2014: 40).

IB 교육과정의 도입·적용을 고려한다면, 세계·국제적 시각을 반영하고 핵심역량과 연계·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방향에서 볼 때, 국제적으로 보다 진전되고 검증된 프로그램인 IB 교육과정의 도입·적용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5. 선행연구 분석

가. IBDP 과정

1) 교육과정적용가능성

고등학교 과정에서 EE(소논문)나 TOK(Theory of Knowledge: 지식이론 수업→ 에세이 작성)은 학교 내에서 이수가 가능할 수 있으나 CAS(Creativity, Action, Service: 창의적 외부활동)는 지역사회의 연계와 더불어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세계 시민적 자질 함양을 위한 CAS와 TOK의 운영 사례는 우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구성·운영함으로써 세계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를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2) 도입시사점

① 사립학교의 경우에 IBDP 운영·도입을 위한 의사결정에서 교육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의 필요성(과정?), ② 각 시도교육청이나 교과부의 IBDP 도입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③ 국내 외교 및 국제고의 발전 방향으로서 IBDP 도입을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필요성 ④ IBDP 도입을 위한 인증 절차 표준화, ⑤ 필요한 예산 편성 운영, ⑥ 국내 대학들의 입학전형 시 IBDP 고려, ⑦ 교과교육전문가들의 IBDP 관련 연구 참여, ⑧ 동아시아 국가 간 IBDP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

3) 대입전형자료가능성

미국과 영국의 유명대학의 입학전형과정에서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대학 입시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만 AP와 IB성적을 반영할 뿐, 국내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경우에 한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P와 IB점수를 학생부에 자유롭게 기재하도록 정부는 허용하고, 대학은 이들 점수의 반영기준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4) AP와 IB 비교

AP는 시험만으로 이수를 보증하는데 반해, 2년간 정규 수업을 해야 하는 교육과정 기반인 IB는 교과 통합적 중핵 교육과정적 요소와 세계적 문화 이해의 관점을 가진 개방적 세계인과 자국민을 기르는데도 균형 잡힌 교육과정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나. IB 교육과정²⁾

(유초등: PYP, 중학교: MYP, 학습자 진로 및 자기주도학습력)

1) 초등교육의 지향점 및 시사점³⁾

(1) 초등교사교육의 지향점과 IB프로그램의 유사성

<표 15> 초등교사교육의 지향점과 IB프로그램의 유사성

	초등교사교육	IB교육 프로그램
전 분야의 지성	• 전 교과를 다루어야 하며, 각 분야 지식이 일정수준에 모두 도달해야 함	• 6개 영역에서 모두 SL(표준수준) 이상은 이수해야 함. • 논문 작성을 필수화하여 지적 수준 확보. • TOK 이수로 교양수준 이상의 지적 훈련
특별 전문 지식	• 1-2개의 특기 전문 과목을 갖도록 요망함	• 학생이 선택하는 3개 영역은 HL(고급수준)으로 이수해야함
실천	• 실천적 측면이 강조되는 직업교육	• CAS: 다양한 활동과 실습위주의 프로그램
봉사	• 아동을 상대로 하는 봉사적인 특성을 가진 직업	• 봉사 과목을 필수화하여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하게하고 체계적 관리

2) IB유 초등과정(Primary Years Program), IB중등과정(Middle Years Program), IB학위과정(Diploma Program)의 3가지로 구분. 학년별 4단계 교육과정, 그룹별 교과목군, 6개 학과목 외 필수항목으로 구성. 일본 2013년 IBO와 문부성 합의.

3) 교육논총 제47집 2호 참조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마인드 형성을 주요 목표로 함 • 국제 이해를 위한 학교 프로그램 제공 ◦2개 언어 습득이 필수
융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 지역사회, 계층에 따른 다양한 교육환경에 대응해야 함 : 융통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선택과목 ◦다양한 국가별 학교별 사정에 따라 운영의 융통성 부여

(2) 초등교육에서의 시사점

IB 교육제도가 초등교사교육에 시사 하는 바를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교육과정의 과목들을 수준별로 제공하고 선택하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특별 전문분야를 가질 수 있도록 영역별 수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각 분야 교과목 운영에 좀 더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화 시대 사회적 요구에 더 민감할 필요가 있다.

넷째, 봉사를 필수화 하고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과정에서의 융통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학습자 진로 및 학습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형 교육과정 설계는 多교과분산 피상 학습보다 少교과 집중 심층 학습을 통한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개척하는 데에서의 도움과 대학진학 이후에도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및 선수학습을 철저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3) MYP 교육과정의 평가 운영 시사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수학과 교육과정의 평가 원칙 중에 역량과 관련하여 “수학과의 평가에서는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기능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소통, 정보처리, 태도 및 실천과 같은 수학교과 역량을 균형 있게 평가한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이러한 역량의 성장정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정중심평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평가 항목에 기술되는 내용은 차시별로 일관되지 않으며, 수행하는 내용의 수행 진행 정도에 초점을 가지는 경향이 많다. 수행하는 학생의 역량이 어느 수

준에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이 학년별로, 교과별로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는 않는 것이다. 이는 학생의 역량의 성장을 일반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면, MYP 교육과정에서 수학교과 운영 매뉴얼을 보면, 중학교 수학의 학습 목표는 4가지(알고 이해하기, 패턴 조사하기, 의사소통하기, 실생활 문맥에 수학 적용하기)로 제시되어 있으며, 각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학생의 수행을 일반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공통의 평가 루브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평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게 되어 있다. 비록 평가 루브릭의 세부 사항에 대한 모호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부분의 모호성을 IB는 IBO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관리해 오고 있다.

IB 중학생은 매년 수업을 통해 상기 4가지 평가 항목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보다 나은 성취를 위해서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자신의 플래너를 통해 누적시키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IB교사는 학습기간이 끝나면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경험과 성취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학생의 수행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성장에 대한 명확한 성찰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며, 자신의 성장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격려를 받게 된다.

미국의 한 IB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성장에 대한 소유권을 찾기 위해 수행편지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는데, 이 편지에는 수행내용, 수행점수, 개선계획을 담도록 하게 하는데, 실제 학생은 수업의 수행을 성찰함으로써 언제 자신이 수업 활동에서 이러한 역량을 썼는지, 이 역량을 어떤 수준으로 수행했는지, 앞으로 수업 활동에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이러한 역량이 더욱 개선되는지를 활동사례에 기반하여 기술하게 된다.

학생의 이러한 자신의 학습경험을 역량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실패에 대한 탄력성을 높여주며, 성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도와주게 된다. 아래는 한 학생의 수행편지 기록 사례이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저는 세계지리학 과목에서 도달해야 할 4가지 학습 목표 중 비판적 사고 부분에서 수행활동 중 아이디어의 주요 포인트를 잘 확인하여 수행점수 6점 또는 7점을 받았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을 일관되게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이 때문에 종종 이 기준(비판적 사고)에서 3~4점을 득점해 전반적으로 점수가 떨어졌어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성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활동에서 전체적으로 5점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인구과잉이 전 세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이해는 했지만, 많은 인구가 사는 작은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개인이 영향을 받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단원에서 비판적 사고를 개선시키기 위해 저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읽은 정보, 특히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수업 시간에 우리는 종종 누구? 무엇인지? 언제인지? 어디인지? 그리고 왜?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세부 정보를 얻지만, 저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하여 비판적 사고를 개선시키는 데에 더 집중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Ⅲ.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및 절차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총 3단계 방법을 절차적으로 진행했는데, 1단계는 선행연구 분석을 했고, 2단계는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 교육청 및 국내·(국제)학교방문을 실시했다. 마지막 3단계는 전문가 인터뷰, 교육청 및 학교방문 내용 분석, 설문조사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초등, 중등 교육과정 적용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p>1단계: 선행연구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 교육과정 연구 - 보고서 ▪ 일본 IB 분석 ▪ 해외 대입제도 비교 	<p>2단계: 전문가 인터뷰, 교육청 현황 조사, 학교 방문 및 설문조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등)L○○ 박사 - (중등)D분과 T/F 팀장 ▪ 교육청 현황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교육청 - D교육청 ▪ 학교방문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외고 - S고 - J 국제학교 	<p>3단계: 전문가 인터뷰, 교육청, 학교 방문 분석 및 설문조사 내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개선 시사점 내용 도출 ▪ 정책제언 제시
---	--	--

[그림 1] 연구 절차와 내용

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문헌연구를 위해 혁신학교 연구 관련 국내 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여 분

석했다. 주로 박사학위 논문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KC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기도교육연구원, 학술 및 교육서적 등의 공인된 연구물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범주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나. 질적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전문가 인터뷰 2명(초등전문가, 중등전문가)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전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범주화 과정을 거쳤으며 (Spradley, 1979), 이후 전사된 면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상황과 내용을 키워드(keyword)로 묶고 세분화 한 후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또한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책임 연구자가 1차 범주화한 결과에 대해 면담을 위한 기초 질문지 작성 과정과 공동 연구원 2명과 함께 특정어휘, 사고방식, 사건, 내용들을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해당 범주의 목록을 바탕으로 범주의 위계를 고려하여 다시 상위, 하위 범주를 만들고 분석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Bogdan & Biklen, 1992).

IV. IB 교육과정 도입결정 교육청 면담 내용 분석

1. J교육청

가. 도입현황: 2017년 12월 초등도입 결정

J 공교육에 한국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뉴스1, 2018).

그러나 일선 교사들이 현실 적용 가능성과 업무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J지부는 도교육청의 추진 태도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J교육청의 의뢰로 'IB 교육과정 및 평가제도의 J교육 적용방안 연구'를 수행한 교육과학혁신연구소는 "2019년 중1부터 연차적으로 IB를 도입해 첫 졸업생이 2022년 IB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2022년은 고교 학점제 도입 등으로 고교 체제가 정비되고, 외교·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혁신연구소는 연간 수천만원의 학비가 드는 국제학교에서 주로 운영돼 온 IB가 공교육에 무상 도입될 경우 교육격차 뿐 아니라 내신 절대평가 도입 시 예상되는 부풀리기 문제, 학종 부작용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의 자율권과 자율학교 지정 권한이 각 시·도 교육청·교육감에게 있고, 과정중심 평가와 고교 학점제 등 정부 정책이 IB에 부합해 일본 보다 IB 도입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IB 도입에 신중한 모습이다. 교육과학혁신연구소가 IB 관련 세미나와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교직원 1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과정·평가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평균 4.59점(5점 척도·표준편차 0.82점)으로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반면 IB 도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평균 3.21점(표준편차 1.23점)이 나와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IB가 도입되면 학생들의 사고력과 교사의 자율성이 증대되는 동시에 업무 부담과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관료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인식했다.

나. 담당 담당자와 담당자 인터뷰 내용 분석

○ J 전교조 지부의 반대

「교육감의 IB 프로그램 도입 의지에 반해」 전교조 「지부 교사들은 IB 프로그램 도입에 대부분은 반대하거나 입장을 유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B 프로그램 도입에 찬성비율은 적었다. 반대하는 이유는 IB 프로그램 도입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학교의 내실화, 일반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IB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혁신노력을 했던 것도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시험체제에서의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때문에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학부모 이의제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두려움과 방어적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업무 부담의 가중도 반대를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대하는 이유가 「SI교육청이라든가 S교육청이라든가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대하는 사유는 지금 전국적으로 혁신학교가 있고 자발적인 교육, 교사 운동에서 올라오는 그거고 또 수업의 변화라든가 학교 문화의 변화라든가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평가라든가, 교육청에서 사실은 IB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큰 이유가 평가에서...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뭐 학생들이 의견을 중심으로 문서 수렴 평가를 하려고 해도 이제 이런 저런... 이런 저런 그 학부모 민원이라든지 뭐 쉽게 말하면 객관성, 공정성 이런 시위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출제한 교사가 그런 체제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 더 가게 되면 평가까지 갈 수 있는데 거기다가 외부에서 딱 들어... 이입되어 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해온 이런 자생력이 상실되어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조금 했던 게 좀 기억에 남고, 근데 「지역에서 한 것은 좀 그런 것 보다는 외국 것 아니냐? 우리 것이 아니다... 좀 그런 거라든가... 음...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아이들만 하는 또 다른 어떤 수월성 교육의 한 면 아니냐?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것이 또 들어오면 교사들한테 큰 업무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좀 강한 것 같아요.

○ 교육청의 평가에 대한 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고 과정중심평가가 등장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워하는 분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IB 프로그램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 보면 교육선진국과 수업은 비슷해 보이나 잘 볼 수 없는 속모습인 평가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려는 과정과 노력으로 IB 프로그램까지 접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고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객관식 중심으로 된 것을 좀 서술형 평가로 하고...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제 좀 개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표집, 표집으로 바뀌어서 좀 평가의 모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잘 안되다 보니 결국 2017년도에 들어서면서 개정교육과정 나오면서 과정중심 평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

그 비자가 허용되는 데에 따라서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뭐 이런 데를 가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조금 영어가 되면 된다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파견 보내고 기간제 쓰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6개월 전에 저희 계획으로는 2개월에서 6개월 나라별로 비자발급 있는...

사례 발표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후속적인 것들은 하긴 진행하기는 했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조직화 시켜서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이... 덜 한 것 같고 동아리 모임 하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만약에 그걸 하려고 하면 진짜 딱 갔다 온 다음에도 딱 묶어서 좀 후속작업을 하면서 만들고 연구회로도 발전을 하면서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o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실질적 일체화: 2015 개정교육과정 VS IB

2015개정교육과정이 초중등 일선학교 현장에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총론과 과목별 각론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수업하는 모든 초중등 일선학교 교사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 교육과정을 수업에 녹이고 평가에 녹이는 모습은 쉽사리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만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수업이나 평가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재상이나 핵심 6개 역량을 강조하거나 수업시간 마다 역량별 체크하는 모습은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 교실 외에는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일체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업이 안 되거나 평가가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모든 과정이 별도로 존재하거나 분리되어 있는 오랜 유습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중심이 아닌 국가중심주의 교육과정 개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IB 프로그램은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질적으로 일체화되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업과 평가가 되지 않는다. 분리가 안 되는 철저한 통합체제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만약 IB제도가 도입되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역량을 워크숍과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에 보니까 2015개정교육과정 만들어지면서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고 되

어 있어서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그 자료를 보면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 IB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루브릭과 비슷하게 제시가 되기는 했어요. 최근에...

교과 별로 평가, 세부 계획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근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실제로 할 수 있을까. 뭐 수능 체제가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뭐 IB 프로그램을 다 우리도 국가기준인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있는데 다 하겠다는 것 아니고...몇 학교를 활용하겠다고 하면 '아, 그렇게 평가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려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지 않는가...

○ 한국어판 도입 현황과 향후 진행

IB 한국어판 도입은 현재 D와 I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C교육청은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S교육청은 혁신학교를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다. IBO에서는 한국어 판 도입 문제에서 6개 과목 군 중 한 과목을 더 영어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도입판단 결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은 뭐 수업 교수 언어이기도 하지만 제일 문제는 학생들이 답을 글로 쓰는 거죠...답을... 에세이를 어떤 언어로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이 저희들의 생각으로 영어를 영어로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다른 과목 하나를 더... 수업할 때에는 뭐... 어떻게 어떤 언어를 써도 그 나라 모국어를 써도 큰 거는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실제 아이들의 결과는 그걸로 해서 평가가... 외부 평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저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 제일 문제는 교육과정 운영의 주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학교를 누가 희망을 하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연구학교를 공모할 때도 과반수이상의 기초 동의를 얻는 것을 좀 관행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한국어판 도입 가능성: 6개 과목군 중 예술(드라마)를 영어로!

IB 한국어판 도입가능성은 결국 6개 과목군에서 영어로 된 한 과목군을 더

하는 것을 J와 D교육청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J와 D는 협의를 통해 6개 과목군 중에서 예술 쪽 계열을하기로 했고, 예술 쪽에서 드라마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연기이고 실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평가자체도 시험이 아니라 촬영해서 보내면 되기 때문에 평가의 용이성도 고려되었다.

3개의 핵심영역은 한국어로 한다는 것은 IBO에서도 허용을 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영어 말고 그러면 뭐를 할까? 처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제일 쉬운 과목 뭘까... 영어를 해도... 해서 내부적으로는 수학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할까하다가 교사들이 좀 고민했던 부분은 이 최종시험을 아이들이 안 보고 오는 과목이 6그룹에 있는 예술 쪽 계열... 그래서 특히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우리도 보면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연극이라는 과목을 한다라고 하면 ...

그와 비슷하게 그러면 드라마하게 되면 뭐 기존에 있는 영어선생님 중에서 그쪽에 넣어서 그쪽에 연습시켜서 투입하면 언어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 IB 도입과정: 3단계(관심-후보-인증)

IB 도입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선 도입 단계는 3단계인데 ○○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로 나뉘어져 있다. ○○학교로 신청을 하면 인증과 관련된 자료들을 받게 되고 이러한 자료와 서류를 통해 할 수 있다는 판단과 상황이 되면 후보학교 신청서를 낼 수 있다. IBO는 후보학교 신청서를 받은 후 3~4개월 정도의 서류검토 시간을 가진 후 6개월 안에 후보학교 선정여부를 해당학교에 통보하게 된다. 그 후 후보학교 회비를 내고 관리자와 코디네이터는 카테고리1워크숍을 가야한다. 그 후 인증학교까지 되는 시간은 2년이 걸리고 과정에서는 IBO의 계속적 컨설팅이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모든 교사는 카테고리1워크숍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패스하면 드디어 인증학교가 된다.

후보학교로 넘어가면 그 서류를 내면 3~4개월 이 서류들을 훑어봐요. 이분들이... 그리고는 한 6개월 이내에 6개월입니다. 6개월 쯤 지나고 나면 '음... 당신네 후보학교 됐어.'라고 하죠. 그럼 후보학교 회비를 납부하라고 해요. 그 후보

학교 회비를 납부하죠? 그럼 그때 후보학교예요. IB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관리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후보학교가 바로 되기 직전에 후보학교가 되기 시작하면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이 관리자랑 코디네이터가 카테고리1 워크숍을 갔다 오셔야 해요. 그래야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작성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보학교에서 인증학교까지 가는데 약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걸리고 그 2년 사이에 저쪽에서 계속 컨설팅을 해줘요. 어떻게 알아? 과학 시설은 어떠니? 이런 것도 다 보고하거든요. 그리고 한번은 검증단들이 와서 직접 다 봐요. 한 2박 3일정도 학교를 정말 컨설팅을 하고 가는 겁니다. 수업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단계까지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카테고리1 워크숍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IB학교로 도입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통과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인증이 되는 거죠. 인증이 되기 전까지 모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카테고리1 워크숍을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 IB 도입 후 평가인증: 5년마다 갱신

인증학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5년마다 제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주로 보는 것은 교사연수와 워크숍이다. 코디네이터의 주도아래 학교자체 워크숍을 많이 다양하게 열었던 것도 평가인증 요소이다. 워크숍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하다. 다만, 오프라인 워크숍은 현재는 외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수비용 외에 출장비라는 부대비용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만약 한국어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한국에서 워크숍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5년에 한번씩 evaluation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 학교 평가예요. 5년에 한번씩. 그 학교 평가하러 왔을 때 그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건 교사 연수를 얼마나 했는가? 아까 말했던 PD를 얼마나 했는가를 봐요. 그래서 학교는 꾸준히 그 PD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in school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자체. 자체인데 이거는 기본 12명이 만들어져야합니다. 그럼 IBO에서 교사가 와요.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워크숍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초등은 가능하겠죠. 초등은 12명이 만들어지는데 중학교는 동일과목 12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리고 그럴 때는 연수를 만약에 우리가 DP를 한국어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한국어로 가능하다는 거죠. 워크숍이.

○ 학교급 별 문제 개선으로서의 IB 제도 도입의 필요성

중등과 초등은 다르다. 중등은 우선 과목이 분절적이고 상대적으로 출신 지역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평적 문화가 있으며 관리자의 리더십도 수직적 관료제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로 인해 중등 교사의 관심도 학교문화 보다는 수업의 변화, 교수학습 방법에서의 개선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초등은 일부 전담과목 외에는 과목이 전 과목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지역교대 출신이 다수이고 선후배 관계가 상대적으로 철저해 서열화 된 기수문화의 공동체적 요소가 강하다. 관리자의 리더십도 중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 요소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업무적 측면보다는 관계와 관계에서 파생되는 문화적 요소가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교사들은 이러한 관계 문화로 인한 피로감 등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좀 더 수평적인 문화와 체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등의 수업의 변화, 초등의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로서 IB를 고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두는 부분이 수업의 변화 그것에 관심... 물론 학교 문화의 변화도 있지만 수업의 변화가 좀 더 있고, 초등은 또 학교의 문화... 초등 같은 경우는 중등과는 달리 기존부터가 중등은 조금 더 수평적이지 않습니까?

관리자하고 교사하고. 근데 초등은 어느 특정한 학교를 중심으로 되어서 쪽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타파... 타파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바꾸는 게 더 우선시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경남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 IB 도입의 현실적 과제: 자료의 비공개

IB 도입의 현실적 과제는 우선 자료가 비공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자료를 보려고 해도 일부 공개된 자료 외에 정말 보고자 하는 자료는 다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의 논리를 타당하게 반박할 수 있는 담론의 장 마련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교사의 평가권 자체를 건드리고 있는 건 우리나라 교육청이 아니라 오히려 IBO인데 한편으로는 교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IBO가 평가권을 컨트롤하는 핵심과정은 DP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MYP는 자율권이 많았다. 따라서 새로운 평가체제를 공부하려면 역시 DP를 봐야한다.

IBO에 직접 질문을 해서 아주 가까워지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해도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협상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질문하면 그 질문과 관련된 딱 그 페이지만 PDF파일로 보내주세요.

IB의 답그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한다. 정말 최후의 순간 우리가 인증을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후보학교를 신청하고 나면 그 자료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연구를 해서 차라리 인증을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IBO... IB의 평가 체계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한다면 역으로 DP를 공부하시고 그거를 우리학교 현장에서 MYP를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해보셔야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 말해주는 모든 것은 DP 평가 제도입니다.

○ 평가에서의 한계로 인한 IB 교육과정 도입 필요

우리나라 현장의 일선 학교에서 결국 수업이 아닌 평가에서의 한계로 인해 IB 교육과정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고 이로 인해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업 개선과 혁신은 일선 학교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수업의 혁신은 결국 평가와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를 평가의 포선과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한 평가의 왜곡 상태도 심각한 수준이다. 평가의 왜곡으로 인해 수업과 교육과정도 연달아 어긋나 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IB는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일체화되어 있어 평가로 인한 왜곡 우려는 적은 편이다. 다만, 평가를 위한 백워드 설계가 일반적으로 진행되며 이를 위한 연찬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수업혁신 방법으로 배움의 공동체라든지 혁신학교들이 수업에 초점을 맞추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학교문화도 있지만? 수업혁신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 평가 형태가 그대

로이다 보니 이게 넘어가주질 못 한다... 그래서 평가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수업혁신도 결국은 종결 점에 도달이 안된다라는...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교육과정이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 정확하게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그 수업에 따라서 평가가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이 평가가 너무 왜곡되다 보니 교육과정도 왜곡되어 버리고 수업도 왜곡되어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되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뭐 교육의 변화를 주려고하면 결국 평가를 흔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거 같아요.

그걸 사실을 말하면 IBDP를 하는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수업이나 평가를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 수업과 평가권한은 본질적으로 교사 권한이나 현실은 어려움 상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수업과 평가권한은 본질적으로 교사의 권한이다. 이를 표면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수업과 평가를 직접적으로 건들지는 않으나 다른 것으로 수업과 평가권한을 온전히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행정업무 및 잡무가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위해 본질적 수업을 희생하고 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IB는 수업과 평가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수업과 평가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들의 권한이니 내가 여기에 몰두할게. 다른 업무 빼주세요 하면 저도 온힘들 다해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다른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니까 평가 그냥 객관식으로 100%하게 해 주세요 하면 제가 너무 화가 나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권한... 의무가 아니라 권한이죠. 이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학부모도 침범할 수 없는 건데 객관식이니 뭐니 해서 학부모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시험문제에 침범하다보니 우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사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역이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왜 이거는 포기하고 업무에 매달릴래? 라고 하면 제가 좀 그런 민원을 겪을 때 마다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하지...

지금 국정감사 자료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요. 지금 제가 저번에 평가 말으니까 시험지 관련해서 무수히 내려 보내면서 정말 이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학교현장에다가 얘기합니다. 국회 게시판에 글 좀 올려주라. 너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없다라고 좀 누가… 대통령 청와대 글을 올렸다고 하길래 청와대에 올리는 거는 아무 필요 없다. 청와대는 눈 깜짝 안한다. 국회에 올려줘야지.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우리들이 우리들의 권한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안 되니까라고 그냥 냅두지 말고… 물론 처음에야 힘들겠죠. 힘들지 않겠어요?

○ IB 공립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어려움

IB 공립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한 교육과정과 그로 인한 수업과 평가 준비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 IB 교사들은 방학 내내 PD(Professional Development) 즉, 교사역량강화를 통해 다음 학기 수업과 평가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립학교 제가 외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공립학교에 도입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립학교에 오히려 외국의 공립학교는 우리보다 교육 과정이 더 엄격했어요. 그 엄격한 교육과정 속에 IB를 들여놓으려고 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던 얘기들이 올라오는데… 힘들어해요. 죽을 것 같았다고 다 해요.

그러니 오롯이 수업만 하다가 IB가 들어온 거였는데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2배에서 3배가 된 거죠.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 우리도 사실은 하면서 막 선생님들한테 푸시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론하자, 얘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IB있는 학교에 모든 선생님들이 방학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PD, 보통 PD라고 쓰는데 Professional Development. 우리로 치면 교사 역량 강화거든요. 방학을 오롯이 그것에 보내지 않으면…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 IB 교원연수에서 카테고리 1과정은 모든 교사의 의무과정: 과목별로는 7년 주기로 카테고리 2 워크숍 수강

IB에서 교원연수(교원 역량강화연수, PD)는 의무과정이다. PD(Professional Development)에는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카테고리3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중 카테고리 1단계는 전 교사가 모두 다 받아야 되는 의무과정이다. 다만 카테고리 2나 3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는 선택과정이다. 카테고리 2는 보통 교과목별 평가 심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데 7년 주기로 과목이 개정되기 때문에 7년 주기로 카테고리 2 워크숍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숍을 수강하는 방법은 오프와 온라인이 있다. face to face는 2박 3일이고, 온라인은 4주 과정이다.

원래 PD는요. 처음 IB로 들어갈 때는 모든 교사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PD에는 카테고리1, 카테고리2, 카테고리3이 있어요. 그럼 1단계는 전 교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교사가 받고 그다음에 카테고리2나 3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받으라는 얘기는 없어요.

D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교육과정 개정한다고 그러죠? 저희들은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면 DP는 7년에 한 번씩 과목별로 교육과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 내 후년애가 국어죠? 우리로 치면 국어랑 수학이 교육과정 개정시기입니다.

IBO의 입장에서는 해마다 과목 하나씩을 개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7년 주기. 그러면 이 7년 주기가 되었을 때는 그 과목별로 대표 한 사람은 반드시 카테고리2 워크숍을 갔다 오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face to face일 수도 있고요. 온라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사실은 face to face는 2박 3일입니다. 온라인은 4주입니다.

○ IB온라인 연수의 특성

IB온라인 연수의 특성은 1주일에 3개의 과제를 내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강의라고 하면 강좌를 쭉 듣고 끝나면 시험을 보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온라인 강의 내에 별도 주제가 없고 이를 위한 별도 세부자료를 읽어야 하는 강좌는 없는 편이다. 온라인 수강시기도 보통 1개월 내외가 많다. 그러나 IB는 온라인 강좌 내에 별도의 모듈이 있고 이러한 모듈 단계별로 자료와 과제, 같이 듣는 온라인 수강자의 피드백 등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1주일에 3개 과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수강기간도 6개월로 길다. 또한 별도의 Facilitator가 있어 인스턴트 question이라고 해서 궁금한 상황은 바로 올리면 답을 해주는 상호 피드백이 잘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프라인 강좌보다 어렵다는 경우도 있었다.

그 중에서는 계속 이거하세요. 이거하세요. 이거하세요. 하는데 이거를 할까하는데 다른 걸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를 들면 제가 코디네이터 과정을 받아봤는데 아까 그 온라인 강좌를 한다면 첫 번째가 IB의 Mission statement와 Learner a profile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당시 교육목표와 Learner a profile를 만드세요.

가장 힘들었던 것이 1년 연간 스케줄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전 과목의 시험에 대한 특성도 다 알아야죠. DP 시험날짜도 다 꿰고 있어야죠. 그리고 그 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과목… 과목 교육과정 편성도 머릿속에 담아야죠. 아이들이 어느 과목을 받을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그걸 전부다 세워야 되잖아요. 연간 스케줄 짜는데 저는 제 머리가 하얘지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 연간 스케줄 짤 때는 처음에 뭐하나면 당신네 학교가 제공할 과목. 왜 그 과목을 제공하는가? 두 번째. 그거에 따라서 타임 스케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캘린더를 만들라는 거죠. 그 1주일 과제예요.

카테고리 2, 3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나는 카테고리 1을 마쳤기 때문에 카테고리 2까지도 갈 수 있죠. 근데 원래는 아마 접속하면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자기소개를 하면 그 Facilitator가 당신 여기 안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올라오는 거죠. 조정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 영어교사의 부담과 MYP와 DP의 연계

IB가 도입되면 영어교사의 부담이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가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MYP는 한국어판이 없기 때문에 영어가 더 중요하다. 또한 MYP와 DP의 연계가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어 판 IB가 만들어지면 DP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MYP입니다. 그렇잖아요. MYP선생님들은 한국어판이 없을 거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MYP 관련 가이드 북 같은 거는 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자료들은 어떻게 하든지 본인들이 영어로 접속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PYP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단한 게 Framework 같은 경우. 그리고 PYP의 교사용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을 Scope and Sequence라고 하거든요. 여섯 권이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 그 정도겠죠? 왜냐하면 일본도 Framework 정도만

되어 있지 사실은 Scope and Sequence도 안되어 있어요. MYP같은 경우는 그 과목별 그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정도지 실제적으로 번역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DP가 만들어지죠. 저분들의 관심도 그거니까...

○ 채점관 양성문제가 장애가 될 수도

IB는 평가를 위한 채점관 양성이 중요하다. 채점관 양성은 IB가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대학 사범계열 단과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PYP와 MYP는 한국어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채점을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관은 IBO가 인정을 해주어야 되죠. 네. IBO가 인정을 해주어야지. K대학교가 인정해준다고 될 거는 아니고 그럴 수는 있겠죠? IBO가 이 채점관을 전부 양성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있는 대학중의 하나를 지정하여서 그 쪽에서 채점관을 좀 양성해 달라... 우리가 양성을 할 때 교사를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채점관은 IBO가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갈 때는 사범대학에서 키워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 들어갈 때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영어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평가를 하는 건 DP만이잖아요. PYP와 MYP는 어디서든지 여기서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로 답안지를 써내게 되면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IBO에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IBO의 입장에서 지금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이 시작과 동시에 채점관을 양성해야 돼요.

○ 대입전형과의 연계

대입전형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IBDP를 수료했을 경우에는 현재 대입제도로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다. 대학에서도 IBDP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IB를 졸업한 학생들이 drop을 거의 안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 적응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어떤 탐구활동을 많이 했었고 논문 수행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부담감을 학생들이 안 느낀다는 것이 장점이다. 영어를 잘하는 것은 덤이다.

우리 애들이 그냥 DP를 하게 된다면 수능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보지 못했을 경우 대학... 한국에 있는 대학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학생부중

합전형이에요.

딱 그거를 통하여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쩌면 뭐 학생부종합전형에만 매진한다고 하니까 더 좋을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맨 처음에 생각할 때 자, 100%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30%밖에 안 되면 그럼 우리 아이의 대학기회가 30%로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 교사설득의 어려움: 2015개정교육과정의 철학, 역량이 IB와 비슷

IB 도입과정에서 교사설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과제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의 철학, 역량이 IB와 비슷하다는 점도 도입에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15개정교육과정과 IBO가 추구하는 철학을 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Learner a profile* 이라든지 우리들의 역량도 비슷해요. 그러면 교사 설득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2015개정 교육과정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혁신학교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데 왜 IB는 약야 하는데요?

○ 수업 역량의 기준화를 통한 교사 트레이닝

교사들의 수업 역량의 기준화를 통한 교사 트레이닝이 IB의 장점으로 나타났다. 역량강화를 통해 루브릭이 정교화 되고 역량이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등, 고등까지 수학적으로 해야 될 역량들은 자기네가 꼭 기준화되어 있어서... 다만 그 기준들을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공식적으로 같이 *consensus*를 같이 모으고 그 *consensus*를 또 IBO 쪽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그게 아, 이 그룹에서 이 아이의 기준이 뭐 이런 역량의 기준이 3이라는 것을 했을 때 IBO에서 믿을만하다고 했을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에서 *face to face*를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지.....

루브릭을 했을 때 구성이 매우 좋다와 구성이 좋다. 이거를 DP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트레이닝 받는 거랑 같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준 점수를 IBO가 계속 간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트레이닝이 돼요.

○ 평가에서의 DP와 MYP 차이

평가에서의 DP와 MYP 차이는 회의문화와 회의 횟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DP는 딱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교사들을 그 기준으로 이끌고 간다면 MYP는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정말 끈질긴 토론과 토론 끝에 이게 기준과 경계선을 구축해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P처럼 주어진 것과 MYP의 만들어가는 것의 차이로도 볼 수 있다. 이는 회의문화가 토론 위주이고 횟수도 많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DP는 딱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우리 선생님들을 여기로 밀어 넣어 간다면 MYP는 같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정말 끈질긴 토론과 토론 끝에 이게 매우 잘이고 이게 매우 잘이야. 이 경계선을 구축해 간대요.

MYP 교사들이 제일 힘든 거가 그거래요. 학교 내에서 MYP 중에서 약간 경험이 있는가? 그거를 계속 끌고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역시 코디네이터가 그렇고... 차라리 DP 같은 경우에는 딱 IBO가 설정되어 있는 그제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할 때 어쩌면 이게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제일 힘들 사람은 MYP 선생님들이예요라고 말하는 게 PYP나 MYP는 여전히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들 스스로가 계속 구축해 나가면서...

○ IB교육과정과 혁신학교의 관점 차이: 로컬의 세계화 VS 로컬

IB교육과정과 혁신학교의 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IB는 로컬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혁신학교는 J의 문화, 역사를 강조하는 로컬을 추구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그 혁신학교는 굉장히 로컬을 강조한다. J의 문화, J의 역사를 강조한다. 그런데 자기가 IB의 PYP를 보다보니까 대단히 세계를 향하게...글로벌 맥락이다.

그러면 로컬을 부정하느냐? 라고 해서 아니 그와 정 반대다. 내가 IBO랑 이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교육목표를 말할 때 영어교육목표를 쓰면서 무엇을 썼냐하면 제일 몇 마디만... 영어 교육의 맨 마지막은 이거예요. 우리 문화를 잘 이해하게 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린다. 이게 항상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알린다라고 했더니 그 분들이 딱 하는 말이 그게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해주시더라고요.

○ IB와 우리교육의 차이: 성취수준-수업-평가의 일체화 VS 성취수준-수업-평가의 분리

IB와 우리교육의 차이는 성취수준-수업-평가의 일체화를 통합해서 하는가와 성취수준-수업-평가를 분리해서 하느냐로 나눌 수 있다. IB는 끝까지 이게 연결되는 거를 계속 추적하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는 것이 IBO의 힘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교육목표가 있고 교육을 이렇게 해야 하는...성취 수준이 있지만 성취 수준이 어떻게 수업 속에 녹아나고 있는지 누구도 확인도 안하고 그걸 확인 할 생각도 안하고 성취 수준 따로 있고 수업 따로 있고 평가가 따로 노는데...

IB는 끝까지 이게 연결되는 거를 계속 추적하고 그거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는 게 이게 IBO의 힘인 것 같다. 왜 사람들이 여기에, 거기에 매진하는지...

○ DP 내부 평가의 어려움

교사는 DP 내부 평가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예상점수 기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후 피드백은 다음 학기 수업 및 시험 준비와 연계하는 의미로 활용된다.

DP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시험문제를 내고 낸 것을 저쪽에서 랜덤으로 가지고 간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랜덤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 보이잖아요. DP 선생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는 게 뭐냐면 학생의 예상 점수를 써서 보내줘야 돼요. DP final score예요. final test예요.

시험도 안 봤는데 애는 점수를 몇 점 받을 거라는 걸 예상점수를 써서 내요. 그러려고 하면 이 선생님들이 그 점수만 가지고도 선생님 IBO는 이 선생님의... 예측 가능한...척도... 평가에 대한 척도를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학생의 점수가 나올 때 IBO에서 점수를 보내줄 때 선생님이 보내주신 예상 점수랑 실제 점수를 다 보내요. 즉, 그거를 받으면 DP선생님들이 하는 그 성적이 ○월 초에 나오거든요? 초에 나옴과 동시에 DP 선생님들이 하는 건 코디네이터랑 다 모여서 우리가 평가 설계를 뭘 잘못했는가? 척도가 뭐가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엄청난 토론을 벌인대요. 그래야 그 다음에 수업... 다음 시험... 수업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IB 인정학교 규모의 확대 결과: 워크숍 국내개최 가능

IB 인정학교 규모가 확대 되면 그 결과로 교사역량강화 워크숍을 국내에서 별도로 개최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드러났다.

워크숍을 진행하실 선생님들의 학교가 많아지게 되면 IBO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굳이 우리가 face to face를 요청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11개, 12개 학교가 생기고 그거보다 더 많아지면 S이면 S, J면 J. 한 곳에서 여름방학 때 모여라.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한국 선생님들 중에서 워크숍 리더로 키워진 사람들이 가서 강의를 하면 된다.

우리가 자생... 거기는 굳이 교육청이 개입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교육청? 하고 question을 던지니까...

○ IB는 인증신청과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인식차이/ 사립과 공립의 인식 차이

IB는 인증신청과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교단위 신청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세계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학교는 학교단위신청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IBO는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립과 공립이 같은 국가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IBO에서 그 얘기 했어요. 학교가 인증신청을 들어오지. 이렇게 국가 단위로 들어오는 것은 일본이 처음이고 기관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처음이다...

교육과정 운영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왜 갑자기 교육국가가 왜 교육청이 이런 걸 하지? ...

우리나라에서 사립 고등학교나 공립 고등학교나 똑같다. 왜냐하면 fund의 70% 이상을 국가가 대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을 개내들도 따르고 있다. K외고가 운영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어느 고등학교든지 다 운영할 수 있다는 증거다. 그걸 그렇게 설명해줘야 '아, 그런가?' 외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나름의 걸로 하니까.

○ 일본의 IB 도입현황과 우리나라 도입과의 비교

일본의 IB 도입 현황과 우리나라 도입과의 비교에서 두드러진 것은 일본 공립에서의 승인과정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대학의 진입 용이가 IB 승인학교의 확장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학과 연계된 일본 일자리의 풍요로움도 제도 확대의 장애물로 나타났다.

공교육에 많이 들어 와있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DP 졸업생 숫자가... 그러니까 일본어 판 DP를... 그런데 일본어도 아까 얘기 한 것처럼 두세 과목은 완전 영어로 하거든요? 하여튼 일본어판 DP를 졸업한... 지금까지 졸업한 학생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요즘은 또 일본에 또 하나의 요소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 대학은 일자리랑 상당히 맞물려 있잖아요. 요즘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뭐 너무 쉽게 일 자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대학의 경쟁률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 그 생각만큼 안 된다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인지 IBO랑 얘기할 때 IBO가 계속 교육부에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아야 되냐? 교육부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 자꾸 물어봐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교육감이 결정하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아주 여러 번 설명을 해야 돼요. 교육부에 얼마나 승인을 받아야 되냐? 교육부로 승인을 받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냐? 교육부가 하는 권한이 뭐냐?

○ IB 도입문제 해결 방법: 제도설명이 아닌 역할과 생각을 부여

IB 도입에 반대하는 교사들이 의외로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IB 제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교사들에게 제도에서 나오는 역할과 거기에 따른 생각을 부여하여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관심 있는 선생님들끼리 해서 온라인 과정이라도 밟고 그리고 난 다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P는 이런 거예요. 설명 전혀 하지마시고...

그런 다음에 자, DP 코디네이터는 이런 역할을 한대요. 우리 학교에서 코디네이터는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을까? 하면 막 스스로 분석해 나가요. 선생님들이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하면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죠. DP는 이런 겁니다. 막 하고 참 좋지 않나요? 아닌대요? 다 이러거든요.

들어오자마자 2015개정교육과정이란 똑같은대요. 이거 뭐 하러 합니까? 라

고 하나까 그렇죠? 선생님 이거 왜 할까요? 똑같아요. 한번 여기 읽어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할 거면... 근데 좀 다른 것도 있네요?

○ 채점관 양성: 한국어 채점관 보다는 영어 채점관

제도가 도입되면 가급적 채점관 양성은 한국어 채점관 보다는 가능한 영어 채점관으로 양성하고 양성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트레이닝도 영어로 할 것이고 외국 학생들의 사례를 채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점관이라면 저는 J 만약에...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게 된다면 채점관한테는 영어 채점관으로 활동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전 세계 IB있는 학교 학생들을 채점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의 어떤 나라에서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을 채용해주겠어요? 굉장히 문이 좁잖아요. 근데 외국 학생들의 그거를 보고 채점을 해본다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할 수도 있거니와 그리고 다른 나라의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를 채점해볼 수 있다는 경험은 그건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IBO의 입장도 그래요. 와서 채점관으로 자기가 양성하는 목표는 이 그... 지금 현재 있는 채점관의 수준만큼 버금가는 수준으로 키우는 거를 목표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 싶다는 게...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수(워크숍) 안내 및 효과적 이용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수(워크숍) 안내 및 효과적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연수의 비용은 600달러로 우리나라 비용으로는 약 60만원이 된다.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연수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참고로 코디네이터가 우리로 치면 교감 선생님과 교무부장님과 수석교사가 결합되어 있는 사람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연수는 다 웹사이트에 IBO에 들어가서 Professional Development하면 거기에 과정들이 나와요. 온라인 나와 있고 지금 개설되는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3주 전에 하면 돼요. 3주 전에 마감됩니다. 비용은 강좌 당 60만원입니다. 60만원이 아니고 6십몇만 원이 될 겁니다. 600불입니다. 미국달러 600불.

face to face는 좀 오래 전에 문이 닫힙니다. 한 2개월 전에 닫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계획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

카테고리1 워크숍 말고 카테고리 general가 있습니다. IB in general. IB 철학에서부터 그런 걸 짝 설명해나가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skip해버렸거든요? 근데 IB in general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전반적으로 IB에 대한 설명하면 철학이니 이런 거를 말하고 싶다면...

○ 온라인 연수의 장점

온라인 연수의 장점은 동료효과 극대화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동료가 돼서 연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금한 점이나 자료 요청... 교류가 필요할 것 같으니 이메일을 공유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동의하니까 이메일이 전부다 공유가 됐죠. 그러면 수업하다보면 '아, 진짜 잘 하는 아이였어.' 이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할 수 있죠.

배우는 내용 중에 학교랑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다운받아서 어떤 거로 배워두고 그때 하면서 저도 배운 게 그... 커리큘럼... 교육과정 편성표, 편제표 만들 때 어떤 융통성들이 발휘되고 있구나. 왜 문서상에는 안 나오는...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고 밑에 facilitator가 그 어드바이스를 써줄 때 거기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니까 그거 가능하다고...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 교육에 들어가면 코디네이터 복이 하나 나와요. 한 500~600페이지 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1년 통 학교를 움직이는 내용 전체가 다 담겨져 있어요.

○ IB 파이널 시험은 세 번까지 가능

IB 파이널 시험은 세 번까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DP과정 2년을 마치면 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스탠다드 레벨 3개의 과목 중에 2개 나머지 과목은 1년 만에 파이널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미국 학교에서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BO도 그 DP 파이널 시험은 삼수 할 수 있더라고요. 세 번 볼 수 있어요.

스탠다드 레벨, 3개의 과목 중에 2개 과목은 1년 만에 마칠 수 있데요. 그러고 있는 시험을 봐도 된답니다. 먼저 4과목, 6과목 중에 2과목을 먼저 애들 시험 보게 만들고도 할 수 있데요.

1년 만에 시험을 봐요. 미국이 그 방법을 많이 채택한데요. 다른 나라는 그냥 2년 만에 스탠다드 레벨이나 하이레벨로 동시에 쪽 나가는데 미국은 2과목을 먼저하고 나머지를 하는 학교들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 외부평가 및 내부평가

외부평가 및 내부평가는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어떤 단원은 내부평가로 하고 내부평가도 발표 평가 또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담임교사하고 같이 토킹 하면서 토의하는 평가도 있다. 어떤 유닛은 외부평가, 페이퍼1, 페이퍼2 이런 식으로 다르게 구성될 수도 있다.

국어인 경우는 보니까 국어가 예를 들어서 단원이 4단원 4개 단원인데 4학기면... 쉽게 말하면 한 학기에 한 단원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원 별로 이 단원은 내부평가, 이 단원은 외부평가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우리는 수능 같은 경우에는 4개 다 학기 마치면 그 중에서 관련 된 거를 시험을 내고 그러는데 거기는 어떤 단원은 내부평가로 하고 내부평가도 그 발표 평가하고 뭐 프레젠테이션 한다... 여기는 담임교사하고 같이 토킹하면서 토의하는 평가한다... 이거는 외부평가, 페이퍼1, 페이퍼2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아까처럼 1년 만에 그 단원이...

○ 공동 협의 및 공동 시험 출제: 학교에서 규정 가능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과 마찬가지로 IBO에도 그러한 규정이 있어서, 공동 협의 및 공동 시험 출제는 학교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평가에 보면 우리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그게 있죠. 동일... 그러니까 2명 이상인 교사가 한 학년을 같이 가르칠 때에는 같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공동 출제한다. 그 부분이 있어요. IBO에도 그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한... 같은 과목을 2사람 이상이 할 경우에는 같이 협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평가 할 때도 반드시 서로가 같이 교차해달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게 코디네이터의 그 거에 보니까 ...

○ IB에서 핵심은 교장과 코디네이터

IB에서 핵심 역할은 교장과 코디네이터로 나타났다. 교장은 과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 리더로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디네이터는 IBO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디네이터도 종류가 많았다. 예를 들어 DP 같은 경우에는 DP 코디네이터가 있다. 그 다음에 CAS 코디네이터가 있고, EE(Extended Essay), 그 다음에 또 하나가 TOK코디네이터가 있다. TOK나 EE나 CAS 코디네이터는 과목 선생님들 중에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DP 코디네이터는 업무량이 너무 방대해서 대부분은 수업을 하지 않고 IBO에서도 가능하다면 DP코디네이터는 수업을 하지 않기로 공식문서로서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P 코디네이터는 학생 입학에 IBO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는 역할, CAS 모니터링 역할, 그 다음에 파이널 시험 볼 때 시험 볼 아이들 과목별 선택, 배정의 역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시험문제 탑재한 것 모니터링 및 서포터 역할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DP코디네이터는 세 명의 코디네이터들을 연계해서 전체가 움직이도록 만들고 동시에 각각의 개별 교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까지 다 이분이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leadership, management, administration 이 세 가지를 전부 할 수 있고 교사 counselor 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DP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PYP나 MYP 코디네이터는 DP 보다는 역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디네이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핵심인물이에요. IBO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합니다.

그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가 정해지겠다. 마음먹으면 첫 번째 갔다 올 사람이 교장선생님하고 코디네이터. 그분들이 교장의 리더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이 통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서.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PYP나 MYP는 그것보다는 좀 적어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래서 PYP나 MYP는 약간의 수업을 겸할 수 있기는 한데 DP 코디네이터는 아예 딱 IBO의 공식 문서에 가능하다면 수업을 배제해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아예 안하지

는 않아요. 예를 들면 K외고 그 선생님은 역사만 가르치시죠? 그 코디네이터가, 제가 배정된 거를 알고 있거든요?

2. D교육청

가. 도입 현황

D교육청은 J, C교육청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IB 도입을 선언했다(오마이뉴스, 2018.09.04.). D교육청이 D지역 공교육에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 도입을 추진하기로 선언하고, 싱가포르에서 IB본부 회장단과 협상을 했었다.

D교육청은 IB의 공교육 도입을 국내 처음으로 선언한 J교육청 및 C도교육청과 연계하여 IB 프로그램의 한글화를 추진 중이다. IB 프로그램을 한글로 번역하기로 확정하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초중고 각 1~2개교를 2019년부터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초중고가 IB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D교육청 교육감은 4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주입식, 획일식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면서 "청소년들을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선 현재의 정답찾기 평가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IB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은 강 교육감의 선거공약이었다.

IB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주관하는 시험 및 교육과정으로 세계 146개국 3700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 IB는 특히 '수업 평가 기록 일체화'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에서 강조하는 과정 중심 평가의 방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D교육청은 IB 도입에 대비하여 지난 5월에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했다. 팀원 60여 명 중 초중고 교사는 40여 명으로 수업 현장에 IB가 도입되면 어떻게 수업과 평가를 할지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D교육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가이세이 중등교육학교에 조사단을 파견해 일본 공교육의 IB 도입 및 운영 사례를 파악한다. 조사단은 15명으로 구성되며 교육국장, 중고교 학교장 2명, 초중고 교사 9명, 대학 관계자 1명(K대 교수), 교육전문직 2명(글로벌 교육부장, 담당자)이 포함된다. 조사단은 IB 수업 참관, 교사-학생 인터뷰, 일본 교사와 토론회, 삿포로 총영사관 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D지역에서는 IB에 관한 호기심이 교사들 중심으로 일어났다. 교사들의 교육혁신연구가 바탕이 되어 2017년 'IB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수를 하여 호응을 받았다. 관심 있는 교사들은 자체 연구회를 만들어 IB의 교과별 적용방안을 탐색했다.

K대사범대부설초등학교는 2018년 2월에 학교 자체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초등학교에서의 IB 교육과정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재 이 학교에서는 'K대 학교 사대 부설초 평가혁신 1.0'이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IB에서 추구하는 '생각을 끄집어내고, 자신의 생각을 만들 수 있는' 평가를 학교 자체 실정에 맞추어 실시하고 있다. IB 도입을 선언한 K대사범대부속초등학교는 IB 실무를 담당할 교감(코디네이터)이 지난 1일자로 부임하여 IB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교육적 변화를 수용하여 D교육청 산하 D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D교육현장에 IB를 적용하는 방안을 2018년 연구과제로 지정했다. IB 적용방안을 모색 중인 TF팀은 자체적으로 학교급별, 교과별로 연구해 온 과제를 함께 토론하며 교수학습역량을 키우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IB의 '학습자상'과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재상을 연계하여 수업에 적용한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교과별 벽을 허물고 융합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

TF팀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는 월마다 열리는 워크숍이다. 우리나라에 IB를 운영하는 학교는 외국인학교, 국제학교로 거의 대부분 외국인 교사들이 많아 강사 섭외가 어려웠으나 IB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IB 수업 사례를 접했다. IB 학교인 K외고, 대전외국인학교, IB와 유사한 교육활동을 하는 C S고등학교도 방문하여 사례 수집을 하였다.

P○○ 담당자는 "IB 도입을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 간(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그 교육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합의 도출하기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서 "IB 프로그램의 한글 번역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K대학교 사범대는 IB 공식인증 교원양성기관으로 IBO와 제휴하기 위한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2019년부터 IB 대학원 과정과 교원연수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이다. K대에서는 사대부속 초·중·고등학교에 IB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교사들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속학교 교사를 위한 IB 석사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K교육청은 최근 일본 쓰쿠바대 IB 과정 담당자와 세미나를 하는 등 IB 교육과정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했다 (매일경제, 2018).

나. 담당 담당자 등 인터뷰 내용 분석

1) 한글판 IB 도입 준비

○ 제도 도입 이유

수업과 평가가 일체적으로 움직이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IB 인증학교를 몇 개 운영을 통해 부분적 일반화 가능성과 모델링을 찾아내고 싶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으로 '아, 이게 답이겠구나. 애들의 진짜 생각을 꺼내는 수업, 생각을 꺼내는 평가... 이렇게 나가야겠구나.' 이게 이런 교육과정이나 수업 평가가.

그전에 우리가 스스로, 이게 뭔지 한번 보자. 그런 시점에 교육감님께서 IB를 공약하셨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IB가 뭔지 전면적인 거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 호기심을 갖고 하니까.

IBO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사회를 지금 열어서 자기들이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10월말 경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네요... 한글판 IB는...그 IBO에서 하는 거는 듀얼 프로그램을 하는 거지. 다 한글화를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2) ○○학교

D교육청은 제도 시범학교인 ○○학교⁴⁾ ○○개를 모집했다. 중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학교 자체가 ○○학교예요. ○○학교라. 한글 IB가 된다면 ○○학교를... 지금 저희들 학교 자율진행인 거 같아서 학교가 희망을 하면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들 이 전단계로 ○○학교라고는 하지만 한글 IB와 관계없이 IB가 뭔지 공부하는 학교 정도는 지금 올 ○○월 달에 모집을 했는데...

3) IB T/F 운영 및 자생연구동아리 운영 지원

D교육청은 적극적으로 IB T/F를 운영하고 있었고, 자생 연구동아리에 대한 운영 지원을 하고 있었다. T/F는 주로 교사로 구성되었고, 과목별로 선생님들도 다 따로 들어 와 있었다. 지원은 책 구입, 연수 지원, 보고서 간소화로 나타

4) IB를 공부해보고 싶은 학교임.

났다. 연구동아리 지원을 위해 수업혁신을 위한 ○○협력센터도 마련되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카페처럼 언제든지 와서 수업 연구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전에 IB가 뭔지를 하는 연수 이런 거는 있거든요. 9시간짜리 연수 그다음에 저희들 TF팀이 있으니까 그 TF팀은 워크숍을 정해가지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자체적으로 공부하는 수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문직들 공부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 이게 뭘까?' 이런 호기심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학생들이 그런 수업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인사 체제에서 이거를 교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입시적인 수업을 하면 중학교를 못 버텨내요. 몇 년 되면, 고등학교 몇 년 되면 반드시 중학교로 오도록...

그거와 연계를 계속 더 교수평가 일체화를 계속 추진해서 실제 고등학교 수업들도 장학 가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100% 못 하더라도요. 한 학기에 적어도 한 4차시, 어느 기간 동안은 그런 수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특히 1, 2학년들은 학생들이 모듈식 수업 이런 걸 안하면 자기내들이 힘들어 하죠.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좀 현장을 많이 바뀌게 만들었죠.

4) IB 교육과정 중 중점 방향

D교육청의 IB 교육과정 중 중점 방향은 DP의 성공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서술형 평가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질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의 관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중학교에서도 저희들 계속 한 몇 년동안 저희들은 수업에 매진을 했거든요? 교실 수업 개선? 그게 진짜 바탕이 되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단 수업이라고 하는 안은 안 보지만 일단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넣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수업 혁신 교육센터가 하나 있고...거기는 선생님들 날마다 와서 서로 수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립니다.

5) 채점관 양성

채점관 양성은 특별히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경력 있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채점관 양성을 기획하고 있었다. D에선 K대가 IBO랑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에 우리가 한글 IB를 도입한다면 자신들이 채점관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우리가 양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채점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결국 채점관하면 우리나라 선생님을 구해야 하니까. 특별히 수업을 잘하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채점관 양성 이런 거는...

K대가 IBO랑 협상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연수 센터 기관 이런 거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6) 일본 IB 학교 방문

D교육청은 일본을 4박 5일 갔다 왔다. 3일은 가이세이학교 수업참관 및 관찰을 했고, 나머지 1일은 지역 교육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가) 수업: 수업방식은 비슷, 교육과정 재구성은 프레임워크로 진행

일본 학교 수업자체로만 본다면 그 방식은 우리나라와 비슷했고, 교육과정 재구성은 프레임워크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간 학교가 시립인 삿포로 가이세이학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말고 중학교가... 그래서 이 학교는 아주 탄탄하게 잘 했더라고요. 이거는 수업만이 다른 게 아니고 IB라는 거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완전히 일체화되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다루거나 이런 거는... 수업 자체로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그 수업 장면만 따진다면 이걸 우리 교육청이나 어디든지 시스템화 시킨다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는... 근데 이 위에 뭐가 있느냐하면 교육과정을 짜는 게 완전히 우리랑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선생님들이... 우리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딱 정해주잖아요. IB는 공부하셨으면 아시겠지만 framework잖아요? 이러이러한 큰 역량부분을 두고 이제 선생님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자기 수업에 교육과정을 짜 넣는 부분이라서 자기가 디자인하고 그것을 구성해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수업에 모든 근본 출발선이 거기에서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한다는 거죠. 수업을 하루 이를

보고 일반화 시키면 모르겠는데...

나) 평가: 형성평가 및 과정중심 평가

평가는 형성평가 및 과정중심 평가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평가를 바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었다.

평가 자체가 우리 과정 중심 평가예요. 수업하면서 수업하는 걸... 바로 평가하더라고요. 그건 과정 중심평가의 한 장면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평가 영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자료 공개의 어려움: 질 관리와 보안 철저

일본 학교를 방문했지만 루브릭 등 완전한 자료 공개는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 관리와 보안이 매우 철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IB 관계자들하고 말을 해보았을 때 루브릭이나 이런 거를 그 IB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조차 근무하는 선생님들조차도 완전 오픈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IBO에서 이런 거 자체를 공유하고 이런 거를 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개로 자기 수업한 예를 우리한테 설명해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거 연수 이런 거 운영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강사... 뭐 영어선생님 같으면 언어로 영어가 되지만 보통 영어선생님 아니고 타 과목 선생님들은 언어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을 하는 IB 선생님들을 모셔서 강사로 이제 위촉해서 설명하는... 그런 제한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자기가 수업하는 평가 내용, 평가 결과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IB 신청 학교가 되면 인증학교로 들어가면 그 IBO에서 제공하는 그 루브릭부터 시작해서 무궁무진한 자료를 교수학습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IBO는 자신들의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서 제가 부탁하는 바로는 관리를 정말 잘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해서 IB 유사품 자체를 철저히 막는... 것 같아요. 질 관리를 참 잘하고 있구나. 보통 50년이라는 세월을 버티오면서 더 증가하고 있구나.

7) IB 승인 후 과정 로드맵

가) 시범학교 도입 후 모델로서 일반화 및 확산

D교육청은 시범학교 도입 후 성공 모델로서 일반화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들의 성공적 역량 확산과 제도로서의 공유가 관건으로 보인다.

지금 중요한 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IBO는 학교 단위로 다 하는 거예요. 학교 단위로. 그럼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IBO 선생님을 하다가 그 선생님들이 이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IB 수업을 하게 되면 IB 수업에 대한 정말 매력이 교사로서 너무 크기 때문에 나가서도 IB 수업을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점을 크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몇 개 학교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 거기서 그대로 해서 훈련된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 선생님들이 퍼져서 이걸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 비용 처리: 교육청 지급예정

만약 한국어판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비용 처리는 교육청에서 지급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별로 내는 돈, 그리고 학생들 평가 비용, 선생님들 연수비용, 교육청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파이널 개별 평가 비용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IB를 도입을 하면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교별로 내는 돈, 그리고 학생들 평가 비용, 선생님들 연수비용, 교육청에서 지원 예정입니다. 평가 비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애들 시험 치는 DP비용... 아직까지는 DP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초, 중, 고에서 일단 OO학교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비용은 저희가...

다) 하고자 하는 학교만 지원예정

D교육청은 별다른 수요조사는 안 하고 하고자 원하는 학교만 지원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전체학교 대비 목표 비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를 위해 압력을 가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려주고 학교가 희망하면 학교 단위로 신청을 하는 건데 우리가 뭐... 만약에 이런 학교에 관심 있는 학교를 하면 이 학교에 지원을 해줄 뿐이지 우리가 뭐 전체로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늘려갈 수도 없고 우리는 어느 정도 모델링 학교만 ○○학교들이 많아서 ○○학교들이 뛰어가서 인증신청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들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인증신청해서 인증이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 학교들 모두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하지... 이 학교들은 목표가 있으니 푸시해가지고 넣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라) 교원 연수는 온라인 보다는 집합 고려

IB는 교원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 D교육청은 이러한 교원연수를 가급적 온라인 보다는 집합연수를 고려하고 있었다. 물론 이 비용도 교육청에서 부담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어가 되는 교사, 영어 과목 교사는 온라인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는 저희들은 온라인 연수를 생각해봤는데 온라인 연수는 뭐 아시겠지만 집합연수보다는 영어하시는 분들, 영어를... 몰라요. 영어선생님들 같은 경우인데 그런데 보통 다 가면 영어인데 온라인을 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 검토했다가 안 했습니다. 일단 집합으로 하고 난 다음에 언어적인... 뭘 영어 선생님들은 온라인 할 수도 있겠죠.

마) 교사 행정업무 경감방안: 관리자 연수 및 예산지원

IB는 수업연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행정업무 경감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D교육청은 관리자 연수 및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다. 관리자의 인사이동도 고려하고 있었다.

이제 이 학교는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학교 자체로 선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 다하고 하겠다. 그러면 교육청 그거를 좀 지원해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관리자의 따로 연수, 그거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관리자 학교가 된다면 그런 관리자분들이 신청을 하실 거고 또 인사이동 할 때 그걸 적극

반영해서 그런 인사를 받아야겠죠.

바) 평가 혁신은 교사의 자율권 존중이 핵심

IB에서 제공하는 루브릭이 대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평가 혁신은 교사의 자율권 존중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학교급별로는 다르게 되어 있다. PYP, MYP는 교사가 2015개정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평가 기준을 조금 융통성 있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DP는 철저하게 다 구성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새는 우리가 거의 루브릭을 만드는 것까지는 선생님들이 훈련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IBO에서 주는 루브릭도 아주 대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거기서 더 세분화시키는 것은 우리... 그다음에 IBO에서 주는 게 좀 대강화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교사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교육과정이 커리큘럼이 아니고 교육과정 프레임 워크이기 때문에 이거에 들어가는 큰 기둥을 세워줄 뿐이지 안을 채워 넣는 거는 교사의 몫입니다. 이거는 초등학교랑 중학교인데 다만, 고등학교는 철저하게 다 짜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DP니까 짜여져 있는데 초, 중은... 그래서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그 용역을 두는 부분이 이 교육과정하고 우리 국내의 2015개정 교육과정하고 어느 정도 매치된 상태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지 안을 하나 뒤야 학교가 그걸 보고 쉽게 따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뒤서 하고는 있어요.

V. IB 교육과정 전문가 면담 내용 분석

1. L○○ 박사 면담 내용 분석

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시사점

○ 한국어판 도입과정과 해외대학 입학문제

한국어판 도입과정과 해외대학 입학문제는 다음과 같다. 한국판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한국어판 42점과 영어판 42점을 동등하게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의 quality assurance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냥 하면 되고요. 고등학교는 지금 타당성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하반기에 뭐 10월이나 그때쯤에 이거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착수를 해서 내년 뭐... 번역을 하고 이런 거가 들어가겠죠?]는 2022년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고등학교 1학년을 뽑을 생각이예요. 2025 대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교학점제하고 맞춰서.

한국판을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은 한국어판 42점과 영어판 42점을 동등하게 전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의 quality assurance가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걸로 해외대학을 가야하니까요.

대학에서 인정하는 건 토플과 ILS예요. ILS는 영국권. 토플 점수로 보통 하죠.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쓰고 말하기가 중요하죠.

○ 대학에서의 입학전형 연계

대학에서의 입학전형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 일부에서는 대입제도와 연계가 안 돼서 IB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도 상위권 대학은 IB수료자를 선발하고 싶은데 지원자가 없어서 선발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능 최저 없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능 최저가 있는 고려대는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지금 S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카이스트,

중앙대, 포스텍, 지스트까지... IB 해외 입학생 다 있고요. IB 국내 입학생 여기까지 있고 여기는 뽑고 싶은데 지원자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이거예요. 수능 최저 없는 수시 일반전형. 즉 학종이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고려대는 특기자 전형으로 뽑는대요. 근데 특기자 전형에 국제학 뭐 이런 게 있대요. 제가 다 입학처에 담당 책임자를 연락을 해서 이거를 다 질문을 했고 이걸 다 긍정긍정... 너무 그걸 좋다... 그런데 그들의 일반 된 얘기가 IB가 만약에 학종으로 들어오면 기존의 학종 애들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보다 신뢰롭고 공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놀랐던 거는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IB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그랬더니 재외국민 전형이잖아요? 그거로 IB를 평가를 계속 수년간 누적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 교사 인사이동 및 비용 문제 : 혁신학교의 일환으로. 공모선발

IB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사의 인사이동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혁신학교처럼 공모로 선발하고 기간을 5년정도 보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용은 혁신학교 지원비용처럼 거기에 맞춰 지원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일단 5년은 중간에 갈 사람 말고 새로 한 사람으로 인사이동을 한 학교에 한다. IB 학교로. 공모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이거는 IB에서도 강력하게 반드시 합당하게 하면 안 된다... 원하는 학교와 원하는 교육청은 원하는 학교가 할 수 없게끔 하는 그 제도를 걸림돌을 치워주는 역할이지 하기 싫은데 하게끔 하는 역할이 아니다. 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을 때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육청이 할 일인데 그거를 그렇게 되면 이제 인사배치를 공모를 해 가지고 교장하고 몇몇 선생님들을 적어도 5년, 4~5년은 한 학교에 있을 수 있게끔 인사배치를 미리 하는 거예요.

혁신학교의 일환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돈도 혁신학교 학교 이름으로 몇천만 원씩 받잖아요? 처음에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만 볼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교사 연수는 어차피 측정된 게 있잖아요. 교육청 내예요.

○ 교원 연수비용 문제와 연수강사의 역할

IB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교원 연수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교원 연수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판이 도입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통해 비용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이소장은 보고 있었다. 만약에 IB 학교가 몇 개가 있으면 IB 학교를 정돈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선생님이 일반 공교육 가서 퍼트리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시범학교에서 이들만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다음번에 다른 공교육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연수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별도의 비용지원을 하면서 그 연수를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무성도 함께 주는 것이다. IB 채점관 양성은 우선 K대학교 사범대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비가 비싸다. 해외 나갔다 오면... 데리고 와야죠. 한글화를 한다는 거는 연수 강사를 데리고 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글화한다는 전제는 비싸다. 귀족교육이다. 이것을 다 무마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커요.

이제 그니까 만약에 IB 학교가 몇 개가 있으면 IB 학교를 정돈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 선생님이 일반 공교육 가서 퍼트리는 효과가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시범학교에서 이들만을 위해서 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다음번에 다른 공교육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연수 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그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책무성을 주는 거죠. 그니까 교원 연수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 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이 뭐냐면 사범대에 교과 교육 전문 전공 교수가... 플러스 영어권, 플러스 교사 경력, 근데 이 세 가지가 조건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게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일본은 대부분이 국내 박사인데 우리는 일단은 대부분 교수가 영어권 외국 박사예요. 대부분...영어권 외국 박사라서 일단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요. 그다음에 어... 교과 교수가 올해는 거의 대부분 대학이 사범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 교육 전공 교수가 많고 그다음에 영어권 유학파가 많고 K대 사범대만 해도 절반 이상이 교사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 고교학점제와 문제: 충돌이 아닌 협력 요소

IB를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고교학점제와의 충돌 문제를 제기한다. 그런데

L박사는 충돌이 아니라 협력 요소이므로 반드시 고교학점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대평가 도입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IBO가 절대평가에 대한 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편으론 학부모 이의제기부터 보호를 해준다고 했다.

고교학점제가 되어야 해요.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IB에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해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써져 있는 걸 보면 내신 성취도 평가가 있잖아요. 내신 성취도 평가처럼 되어야 해요.

절대적으로 고교학점제로 가야 해요. 그니까 고교학점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이제까지는 절대평가를 구현한다고 해도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는 내신을 센트를 뽑아가지고 그 학교에서 내신을 부풀리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 학교 전체 내신을 다 깎아요. 그래서 내신을 모더레이팅한다고 그러거든요.

조정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신을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차단해서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이에요. 교사가 항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부에서 채점센터에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교학점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라도 IB 같은 제도가 너무...

o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과정중심평가: 생기부 기록은 안해도 무방

2015 개정교육과정과 과정중심평가가 도입되고 학생부종합전형이 활성화되면서 교사는 생기부 기록으로 업무가 증가되었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B는 생기부 기록은 안 해도 무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과목별 점수만 기입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기록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 도입 국내 학교는 시간적 부족으로 인해 국내 과목은 고 1때 마치고 고2~3에 DP과정을 수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 교육과정도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하는데 과정 중심 평가에 취지는 너무 좋은데 사실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교사들을...

근데 여기는 무지하게 과정 중심 평가의 극을 달려요. 그런데 교사들한테 그렇게 뭐... 성취 평가... 이거 대부분 붙여서 come and face 하는 이런 거 전

혀 없어요. 생기부를 안 써요. 원래. 검토만 나가요. 그래서 교사들이 만약에 IB 만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기부를 쓰라고 강요를 하지 않는 한 IB에서는 생기부가 없어요. 그냥 내가 국어 선생님이다. 그러면 국어는 7점 만점 중에 몇 점이나 7, 6 이것만 나가요.

국내 교육과정은 1학년 때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IB 교육과정은 2학년, 3학년 때도 IB만 해요. K외고도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1학년 때에는 IB 학생들이 안 하던 것들을 다 해요. 1학년 때, 근데 IB는 2~3학년만 하는 거잖아요. 2~3학년 때에는 국내 교육과정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 학종(학생부종합전형)과의 차이: 수능+내신 형태 평가로 구성. 모두 기회

IB는 제도로만 보면 수능과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신 생기부도 없고 학종 비교과도 없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비교과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교과 속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으로 보면 학종 같은데 제도로만 보면 정시 수능체제와 비슷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IB는 소논문이 100% 들어가고 창의체험 활동이 100% 들어간다. 소논문도 누구나 쓰게 되어있다. 그런데 학종은 소논문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생기부도 학생에 따라 편차가 있다.

다만 내용은... 그러니까 제도로만... 제도로만 보면 되게 간단하게 수능과 내신으로만 뽑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생기부도 없고 학종 비교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무지 우리가 비교과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교과 속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무지 학종스러운데 제도로만 보면 무지 정시예요.

IB는 되게 학종스러운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걸 어떻게 봤냐 하면 이걸 제도로만 본 거예요. 수능 학점을 전면 폐지하고 이걸 검증하지 않으니까 공정한 수능과 내신으로 봐야 하는데 수능과 내신을 선진화 하자예요. 수능과 내신화를 선진화... 수능을 IB 문제처럼, 내신을 IB 문제처럼 하면 그거는 수능과 내신 제도로만 가는데 성취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학종 쪽으로만 막 이렇게 애는 학종파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애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공정하고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유지가 되면서 어... 학생부 교과 처럼 보일 수 있죠. 내신과 수능으로만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내신과 수능 그 대신에 소논문이 100% 들어가고 창의체험 활동이 100% 들어가요. 그러니까 소

논문도 누구나 쓰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종은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고 생기부를 쓰는 학생이 있고 생기부를 전혀 쓰지 않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종은 100%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 교사의 소논문 지도 문제

교사의 소논문 지도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L○○은 교사가 소논문을 지도할 수 있게끔 가이드 라인을 준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논문 수준은 대학교 수준이 아니라 고교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범학교를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매울 수 있다고 했다.

교사가 그걸 지도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줘요. 소논문을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논문 수준으로 생각해요. 교수랑 해가지고 자꾸만 컨설팅업체에서 해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논문은 고등학교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을 원해요.

그건 어쨌건 학교 내에서 교사가 정해주고요. 지도교사가... 그리고 그 지도교사랑 자주 만나면서 진행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 IB는 제가 전면도입을 하는 시간을 금방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본이...

시범학교를 하다 보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 소논문 지도가 좀 부실하다 이러면 이런 거에 대한 보완책을 다른 방식으로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통해서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의 문제점을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KB를 만들 때 그것은 시스템을 우리는 좀 modify 하게 할 수 있잖아요.

다. 평가개선에 대한 시사점

○ 내신 시험출제: 본부에서 관리 및 교사 보호

IB는 내신 시험출제는 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샘플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교사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학생들의 이익제기로부터 사전에 시스템으로 막아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이익제기를 해도 '본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컨펌 받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가 개인적으로 학부모에게 시달려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데에도 소극적으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

본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샘플링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왜 간섭이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막 항의하는 거를 사전에 시스템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교사가 왜냐면 그 교사는 아무리 학부모가 항의를 해도 본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컨펌받으면 교사는 큰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개인적으로 시달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사들은 학부모들이 항의할까 봐 굉장히 시험 문제를 내는데 소극적...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안 한다고는 하지만 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 일본 도입이 계획보다 늦는 이유

첫째, 대학의 평가에서 채점관 양성이 원활하게 안 되는 측면이 그러하다. 둘째는 공립의 인증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지금 57개가 인증을 완료했다. 관심 학교까지 140개의 학교가 지금 대기 상태로 추정된다. 그리고 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2년에서 2년 반, 3년을 기다려야 하는 데 기다리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학교가 140개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공립이 5개라고 하는데 사립이 훨씬 속도가 빠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은 재단에서 그냥 하면 되지만, 공립은 지자체 의회에 얘기해야 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과정 때문에 사립보다 훨씬 더 오피셜한 프로세스가 많아서 시간이 더디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것들이 아까 대학의 평가가 채점관 이런 게 원활하게 안 돼서... 일단 그게 제일 커요. 연수는 일본에서 해요. 프로그램 연수는 일본에서 하는데 채점관 양성이 안되요...

일본은 지금 57개가 인증을 완료했고요. 관심 학교까지 140개의 학교가 지금 대기 상태예요. 왜냐하면, 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2년에서 2년 반, 3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기다리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학교가 140개예요.

공립이 5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립이 훨씬 속도가 빠를 수 있어요. 사립은

그냥 하면 되는데 공립은 어... 지자체 의회에 얘기해야 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이 사업보다 훨씬 더 오피셜한 프로세스가 많아서 시간이 더디게 걸릴 뿐 140개 중에는 공립이 무지하게 많고 그 공립을 하고 있는 교육청의 리스트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 혁신학교 교사들의 반대

혁신학교 교사들의 반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이유는 첫째, 혁신학교 예산 지원이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둘째, 외국의 제도라는 것이다. 외국에 우리 평가주권을 팔아넘긴다고 오해하고 있다. 셋째는 혁신학교라는 브랜드가 IB로 인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반대이유로 나타났다.

현재 혁신학교보다 지원을 덜 해준다... 예산지원을...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치면 우리 지금 수학, 과학도 다 외제다. 이게 외국의 우리 평가 주권을 팔아넘기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체점을 다 우리나라 사람이 할 거고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를 보면 우리 애들의 생각 이거지. 이게 왜 어디에 적용되는구나. 이 내 생각을 한다면 그랬더니 결국은 그것도 다 논리적으로 안 돼요.

마지막에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혁신 교를 독립군으로 잘 이루고 있는데 웬 갑자기 광복군?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다 같이 독립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다르데요.

○ 교육과정 평가원의 반대

교육과정 평가원의 반대도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금 우리나라 대입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수능을 개발하고 출제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IB가 도입되면 대입이 투 트랙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통제권의 주도권을 IB로 인해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금 우리나라 대입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수능을 개발하고 출제하고 이런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이게 IB라는 게 오면 대입이 투 트랙

이 되는 거죠. 적더라도...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IB가 오래가려고 한다면 여기 한국에서도 별도의 평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인적 구성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들이 IB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것도 없던 기구를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KBO라는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한국 사람이 하든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아니면 완전히 carry가 될 때까지는 투 트랙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o 다른 나라 대입제도 소개 및 IB와의 차이점: 다른 나라언어로 번역

외국의 대입제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 대해 소개했다. 영국의 A 레벨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다. 파이널 시험은 우리나라 수능형태를 유지하지만 전 과목 논술과 서술형을 유지하고 있다. 내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권한은 없다. 근데 미국의 SAT는 객관식이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내신이 없고 변별 없이 추첨으로 선발한다. 그러나 1학년 때 마지막 학기에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유급시킨다. 이는 영국의 대학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아비투어는 전체 중에서 내신이 몇십 퍼센트 들어간다. IB도 45점 만점 중에서 내신이 일부 포함된다. 내신이 포함되면 공교육이 충실해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다른 나라 대입제도와는 달리 IB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호확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이다.

영국의 A 레벨은 내신을 반영하지 않잖아요. 딱 수능이예요. 근데 미국의 SAT는 객관식이지만 A 레벨은 문제 자체는 무지 IB 스텐다 거예요.

전 과목 논술 서술이예요. 근데 내신은 없어요. 그래서 교사의 권한은 없어요. IB는 교사 프랑스 바칼로레아 할 때도 내신은 없었어요. 그냥 시험이예요. 근데 프랑스는 1학년 때 마지막에 많이 떨어뜨려요. A 레벨도 떨어뜨려요.

독일의 아비투어는 전체 중에서 내신이 몇십 퍼센트 들어가요. IB도 45점 만점 중에서 내신이 몇십 퍼센트 들어가요. 내신이 같이 들어가면 공교육이 굉장히 충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학교가...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맥락을 봤을 때에도 IB가 교육학적으로도 타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

요한 거는 A 레벨이든 아비투어든 프랑스 바칼로레아든 그 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이고 그 나라의 *basical*이잖아요. 그래서 딴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생각… 그런 관심 전혀 없어요.

○ IB의 특징과 교육학적 관점: 전인적 교육 실천

영국의 A 레벨은 세계의 좋은 대입제도를 다 벤치마킹 했다. 그런데 교육학적으로 이상적으로라고 해서 애들한테 가장 좋으냐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A 레벨은 이과성향이 강한 학생은 문과 과목을 힘들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IB는 국, 영, 수, 사탐, 과탐, 예능에서 한 과목을 다 해야 되고 예능 하나 빼고 사탐, 과탐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문과도 사탐을 해야 되고 이과여도 과탐을 해야 하고 무조건 언어를 해야 하고 무조건 수학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다. IB는 교육학적 이상인 전인적 교육, *well round person*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데 반해, 영국의 A 레벨은 수학, 물리, 화학만 해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언어를 안 해도 되고 사탐을 안 해도 되고, 단지 세 개과목만 선택해도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 레벨은 하고 싶어도 자기네들은 영어권 국가로 확장되는 건 OK. 그러나 번역은 NO. 그런데 번역을 한 사례가 있기조차한 거는 IB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IB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테크니컬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게 IB밖에 없는데다가 플러스 교육학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교육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게 왜냐하면 영국의 A 레벨은 프랑스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이런 거 다 모아놓고 고려해서 만든 티가 나요. 그런데 교육학적으로 이상적으로라고 해서 애들한테 가장 좋으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애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게 더 필요해요. 근데 이과성향이 매우 강한 애는 문과 과목을 힘들어해요.

IB는 국, 영, 수, 사탐, 과탐, 예능에서 한 과목을 다 해야 되고 예능 하나 빼고 사탐, 과탐을 추가할 수는 있지만, 문과도 사탐을 해야 되고 이과여도 과탐을 해야 하고 무조건 아니 이과여도 사탐… 무조건 언어를 해야 하고 무조건 수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well round person*을 만드는 건데 영국의 A 레벨은 수학, 물리, 화학만 해가지고 대학갈 수 있어요. 언어를 안 해도 되고 사탐을 안 해도 돼요. 세 개만 선택해서… IB를 하다가 이과성향이 굉장히 강한 애.

혹은 문과 성향이 굉장히 강한 애. 근데 다른 반대 성향의 과목을 점수가 전혀 안 나오는 애는 하다가 A 레벨로 갈아타요.

○ 제도에 대한 선택권 부여 및 동의 필요: IB반 VS 수능반

IB는 제도에 대한 선택권 부여가 필요하다.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교육과정, 수업, 과제 부담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입 준비를 위한 IB반과 수능반으로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IB는 철저하게 선택권을 줘야 해요. 저는 IB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IB 학교로 인증받은 그 학교 전체가 다 IB를 해야 돼요. 근데 고등학교는 IB를 할지 IB 반을 할지 수능 반을 할지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IBO로 본부에서 줘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허용해요.

본 학교를 IB 학교로 인증을 받으면 IB를 하면 수능을 못 봅니다. 이거는 수시로만 갈 수밖에 없습시다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미리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리이러한 교육입니다. 그걸 감수하고 가시게끔... 선택권을 주면 그러면 IB 반이 나오고 수능 반이 나뉠 거예요.

○ 글로벌 인재인가? 국내용 인재인가?

IB는 공부를 못 하는 애를 잘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세계적으로 나가서 경쟁력이 없는 공부만 잘하는 학생 일 수 있다. 그러나 IB는 비판적,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이다.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는 교육이 아닌 차이를 보이고 있다.

40점 이상이면 거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아이비리그 다 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준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전 세계 평균이 29점~30점이에요. 이 말은 IB를 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중에 29점 밑에가 절반이에요. 못하는 애들도 무지 많이 해요. IB는 못 하는 애를 잘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이게 종류가 다른 종류인 거예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잘하는 애가 세계적으로 나가서 경쟁력이 없는 잘하는 애인 거예요. 지금... 근데

IB는 이 잘함이 아니라 이런 잘함이에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잘함인데 여기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있어요. IB는 공부 못하는 애를 잘하게 만들어 주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질적으로 종류가 다른 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IB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리고 이 잘하는 애들은 이 잘하는 애들보다 아... 수능을 잘 하는 애들보다 세계적인 경쟁력이 훨씬 더 있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역량을 가지고 나갈 거고 다만 이 못하는 애들조차 여기서 공교육에서 못하는 애들과는 차원이 다른...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나갈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비판적, 창의적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에 제가 놀라거든요? 비판과 창의력이 필요한 리더 그룹이 있고, 메인 트랜스를 하기 위한 수동적 학습을 해야 할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K외고 애들이 눈물을 울컥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성적이 낮다고 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 성적이 낮다고 내 생각을 기를 수 있는 기회조차 처음부터 박탈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평가방식의 차이

평가방식의 차이로 사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다. 왜냐하면 IB는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사교육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B 평가는 수업 밀착형 평가이다 보니 교사마다 다 평가가 다르고 평가가 지향하는 영향이 수업과 공부에서 조합되는 것이므로 교사마다 시험 범위가 다 다르다. 따라서 일제식 내신용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사마다 유닛 진도도 다르며 시험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사교육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사교육이 가능하다면 책 읽고 토론하는 학원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다고 해서 내신이 올라간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줄 수 있다.

IB는 과정이잖아요. 학원 뺀이 덜 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수업 밀착형 평가이다 보니까 교사마다 다 평가가 다르고 근데 그 평가가 지향하는 영향이 공부에서 모더레이팅되는 거지 시험 범위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을 배운다고 그러면 누구는 어떤 선생님은 난중일기도 가르치고 누구는 징비록을 가르치고 누구는 조선왕조실록을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시험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길러지는 능력은 거의 무신론자 수준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논리력을 기르는 거죠.

수업 밀착형 평가는 내신 반이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은 SAT, ACT, AP는 학원이 무지하게 많아도 내신반이 없잖아요. 한국의 강남에 짝 깔려있는 미국 그 학원들은 SAT, ACT, AP 학원이지 내신반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IB도 사교육에서 뭘 학원에서 벡터의 개념을 안다, 숙지한다, 적분의 개념을 안다, 이런 거는 인강을 듣거나 사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념을 숙지한 다음에 아이들 과제는 계산기는 내가 놓고 어떻게 정적분을 다르게 하나 이런 걸 보고서 쓰는 게 과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만큼의 종류를... 왜냐면 내신 반을 다니는 이유는 내신 반을 다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점수가 내신 학원을 안 다니면 불리한 거예요. 그 문제풀이 유형이 그런 거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근대 저는 수능 시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험이 내신이라고 봐요.

○ IB도입에서의 다시 생각해 볼 문제: 평가 영역

대한민국의 시험이 IB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IB스러운 시험 즉, 객관식이 아닌 논술과 서술형 중심으로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하자는 거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으니까 IB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하자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시험이 IB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IB스러운 시험을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모델을 우리가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으니까 IB를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자는 그런 거고

이 프레임 속에서의 연구만 하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완전히 문제다라는 생각 자체는 못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원래 교육평가 정통에서는 질적 연구 전공한 사람은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질적 연구는 교육인류학 쪽에 있고요. 교육사회학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지. 측정평가 한 사람은 그냥 다 측정평가예요.

OECD 35개국 중에서 수능과 내신이 둘 다 객관식 상대평가인 나라가 딱 두 나라래요. 일본하고 우리. 근데 일본은 바뀌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우리예요.

2. 김○○ D교육청 T/F 수학분과 팀장 면담 내용 분석

가. 교육과정 기획, 운영 등 전반에서의 시사점

- 일본 IB학교의 출발점의 차이: 건물 및 교육과정 설계

일본 IB학교는 출발점의 차이를 보였다. 설립자체에서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설계를 한 것이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코디네이터의 교과 간 융합을 통한 수업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 S고도 교육과정 적용을 위해 건물 설계와 동선을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가 그걸 일본학교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지점보다는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학교 설립 자체가 그 IB 교육과정을 겨냥해두고 설계를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MYP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느낀 제일 큰 특징으로는 교과 간 융합이 진짜 되고 있다. 1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수업을 교사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IB로 특화되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IB실이 있어요. IB의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있는 실이 있고 그다음에 TOK라고 왜 그 지식이론 지식론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외국 분으로 계시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가 있으니까 일반 선생님들끼리 교과 간 융합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더 전문적인 IB...

- 교사: 행정부담에서의 배려

IB는 교사의 수업연구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정부담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일본 학교도 행정부담과 잡무를 덜어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수업 연구에 엄청 가치를 많이 두고 있으니까 잡무를... 잡무에서 그거를 많이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잡무가 똑같은 양으로 오지만 왜 사립선생님들 보면 뭐 이렇게 안 하는 건 안 하잖아요? 업무 중에 막 이렇게 다 막 공문처리 해야 되고 이런 거에 좀 덜 매이잖아요.

다른 교육과정을 해도 그 샷포로에서 좀 인정을 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사립 같이. 그러니까 잡무의 양이 좀 적은 것 같고 그에 IB에 특화된 거라는 걸 활용하는 느낌?

- 고등학교 학생 선발은 우리나라 특목고랑 비슷

고등학교 학생 선발은 우리나라 특목고 선발방식이랑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전형, 면접전형, 조별 토의활동 평가로 이뤄진 3단계 전형이었다.

3단계 전형이에요. 처음에는 생기부 원서, 그다음에는 면접,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모의로 조별활동을 하게하고 모니터링 하고 선발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수준도 다르고...수업 분위기도 다르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 샷포로 가이세이 중·고등학교가 공교육에 이제 IB를 적용한 것 중에 보고 있는데요. 이게 잘되고 하는지 안하는지... 근데 어떤 DP 신청률이 조금 낮아서 이거를 막 확산시키기에는 좀 그럴 수 있어요.

- D 교육청은 IB가 아닌 미래교육과정으로 안내해서 반발 최소화

D교육청은 교원들과 학부모, 학생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교육과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IB에 대한 도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교육가족에게 이해시키고 인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희 TF팀 짤 때 IB를 이제 최근에 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연구 팀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IB라고 명명을 안했어요. 그 반발감을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덜 된 상태에서 원대? 원대? DP 원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만약에 개들이 거기에 에너지를 안 쓰게 되면 그거는 또 자연스럽게 아무도 신청을 안 하니까 거기에 IB 선생님이 들어간들 산출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시키고 인지시키는 과정들이 없이 도입이 되는 게...

- 20개 ○○학교와 그 학교의 노력

D는 20개 ○○학교가 신청을 했다. 특히, K사대부고, 그다음에 K사대부중, K사대부초 등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고 같은 경우는 소논문을 이미 과정중심평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도 스무 개 학교나 신청해서 깜짝 놀랐어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K사대부고, 그다음에 K사대부중, 그리고 교대 거기 PYP에 엄청 또 관심 있거든요.

K대부초. 그러니까 좀 일하는 마인드가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일단 한쪽에 찬성을 하는 심리에는 우리는 이미 이만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MYP를 하는 거지. 이미 융합을 하고 있고, 애들 토론식 수업을 하고 있고, P고 같은 경우는 소논문을 이미 과정중심평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덜 부대끼는 거죠. 이거를 할 때.

- IB 선도교사의 어려움과 문제점

IB 선도교사교사로서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는 좋으나 막상 IB학교로 발령이 나면 업무 부담과 소논문 지도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를 하겠다고 진짜 나름 진짜 새로운 거에 열정을 가진다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일반학교 문과생 같은 K외고 김선생님도 듀얼로 하고 있잖아요? 문과생 외잔업 수업, 일반수업도 해야 하고 여기 DP과정도 봐줘야 하고... 그러니까 일반학교를 가면... 일반학교를 가면 ... 그냥 내가 예상되는 범주 안에서 일을 할 건데 여기는 딱 가면 무조건 다 연구해야 되고...

그렇죠. 나도 당장 고등학교 가면 그 소논문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 강사가 아닌 교육자로서 IB의 매력: 전인교육, 잠재력 / 학부모의 신뢰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자로서 IB의 매력이 있었다는 것을 일반학교방문을 통해 느낀 것으로 보였다. 특히,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하고 학생의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신뢰를 주는 환경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평가에서의 학부모의 신뢰가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그 교실에 학생이면 너무 많은 잠재력을 발휘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솔직히 IB의 매력으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과학 선생님도 그런데

우리가 따로 사비를 들여서 IB교사 인증을 받고 싶은 정도로 이게 계기는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해주는 환경이 자꾸자꾸 만들게 하는 거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신뢰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BO 탕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교육과정도 나쁜 게 아니라 다 핵심 역량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조금 지식 전달자 같은 게 많고 거기는 내가 만약 학생이면 너무 전인적으로 키워줄 거 같아요. 평가 자체가 평가가 다른 거예요. 일단. 평가가…

- 공립학교체제의 한계: 인사이동과 축적, 전수의 어려움

공립학교체제의 한계도 느끼고 있었다. 이는 교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숙련교사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지 않아서 후임 신규교사에게 인수인계 및 전수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경험과 역량의 축적보다는 보여주 기식, 실적위주 행정관행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 새로운 교육과정에 동의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가 있는 공립학교 발령은 소진과 같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게 이제 공립… 공립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누구 승진하고 자리 비워버리면 또 흐지부지하고 제로에서 시작되고 아무 전수도 안 돼… 인수인계가 안돼요.

그렇다고 또 뭔가 활동을 진짜 내실 있게 정말 쪽 IB가 관심이 점점 생겨… 그럼 5년 간 뭔가를 좀 묵직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니까 이제 살을 붙이는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뭔가 확 확 바뀌고 뭐…실적 위주니까.

- 인사규정 개정을 통한 팀으로서 장기간 근무 유지가 바람직: 시너지 효과

대안으로는 교사에 대한 인사규정 개정을 통한 개인이 아닌 단체 팀으로서 장기간 근무를 유지하여 팀워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가 있다는 전제아래 혁신학교처럼 7년 정도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제도에 대한 철학적 공감도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철학적 공감 기반아래 제도를 운영하고 기간이 쌓이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혁신학교는 최장 7년... 가장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게 7년이에요. 원래 5년 있을 수 있는데 추가로 2년 해서 7년.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교사들 간에 그 역량이 잘 되면 정말 시너지가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달린 그게 되게 큰 건 맞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재량을 많이 주고 신뢰하는 분위기니까.

일본은 그 교장선생님만 이례적으로 7년 이렇게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핵심적인 몇 몇은 유예가 계속 되어서 이게 정착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온 사람이 정글을 와도 이 문화에 좀 더 흡수가 되는 거죠. 5명에 3명이면 한 명. 한 명씩 옆에서 뭔가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 일본 교육정책 문화의 차이: 100년 지기

교육을 흔히 백년지 대계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언으로만 존재하지 실천하진 않는다. 그런데 일본은 실천하고 있었다. 다만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교육이 100년 지기라고 해가지고 그 만들어지기 전에 엄청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변수들에 대해서 다 진짜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책을 내리기 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고 한번 걸리고 나면 무조건 100년을 시행한대요. 중간 중간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의 수정은 있겠지만 그렇게 막 개정이라는 걸 쉽게 하지 않는대요.

그런데 우리는...이렇게 할 거야하고 어느 정도 했다가 아니면 또 정권 바뀌면 서 또 뭐가 되고... 근데 일본은 그게 다르대요. 시작 전에,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그 IB를 시작할 때도 그 가이세이 고등학교도 엄청 걸렸을 거 같아요.

- 외제 이미지와 로열티에 대한 부정적 의견

IB에 부정적인 교사는 그 이유로 외제 이미지와 로열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1000만원을 로열티로 지불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를 외화낭비로 보고 있었다.

그 MYP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또 이미 우리가 하고 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로열티 적혀있는 것만 1000만원 나가잖

아요. 1년에. 1000만원이 나간 데요.

IB 코스를 하니깐. 하고 있으니까 1000만원이 나가는데 우리 그런 외화 낭비와 이렇게 DP 같으면 그걸 따니까 따는 거에 대한 대가로 나갈 수 있잖아요. 특수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동의 된 학교들이니까 학비를 이만큼 내고 국제학교나 그런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공교육에 도입을 하면 그 소수의 몇 명을 위해서 로열티는 그 인원에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 연계교육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IB는 연계교육이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YP, MYP를 받더라도 DP로 연결되지 않으면 배운 것들이 사장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혁신학교도 초등학교 위주로 개설되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그 수가 적어져 확산과 일반화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 어떻게 보면 잘 하는 애들 중에 비인간적인 애들도 많아요. 뭐 다 완벽한 애들도 있지만... 인성도 되고, 실력도 되는 애들도 있지만 결국 가서는 MYP식의 수업을 중학교에서 받고 나서도 그게 안 되는 고등학교 가면 식을 뿐이에요. 실속도 없고...

- 사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

IB를 통해 사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B교육과정은 학생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수업방식과 내용 등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사교육에서는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일정수준까지만 올라가면 된다. 나머지는 스스로 익히고 글을 쓰고 비평, 창조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IB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만 교과 선생님만 할 수 있거든요. 관찰하고 애들 막 수요에 따라서 수업을 바꾸고 하기 때문에, 사교육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획기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이게 사회적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야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걸 어느 수준까지만 애들이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엔 사교육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 스킬습득과 속도가 아닌 문화공유 방향성과 가치관이 핵심

빨리빨리 습득하는 스킬 위주 교육이 아니라 문화가 공유된 방향성과 가치관 교육이 IB 제도의 핵심으로 나타났다. IB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IB자체도 수업과 평가에서의 스킬습득의 도구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문화가 그 공유되지 않은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인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해도.

새로운 거는 엄청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그 스킬적인 면은 진짜 흡수력도 빨라요.

-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의미: 교사로서의 정체성, 개성 회복/ 무기력증 극복/ 교사대의 교육과정 전환 필요

IB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단순 전달자가 아닌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수업이나 평가에서 교사 개인의 개성을 반영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이러한 개성을 회복하는 데에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의 투입은 부족하고 끊임없이 산출만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로서의 무기력증과 소진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서의 가치관과 교육관을 채 정립도 하지 못하고 임용시험만을 달려오고 또 현장에 와서는 학교에 매몰된 것에 대한 반성도 묻어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의 전환, 임용고시 제도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산출을 하고 내거를 자꾸 꺼내는 기분이... 그래서 내 정체성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느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에 대해서 진짜 막 교사라는 꿈, 진로 희망에 대해서 그냥 그거 하나 놓고...

염증이 있으니까 막 그런 연수 다니는데 이게 알고 나니까 사실 요즘 저와 싸우는 거는 무기력증이에요. 그러니까 이리이러 해가지고 결론을 알게 되니까

색깔이 있던 선생님은 색깔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IB에서 감동한 게 그 교장선생님이 개성을 얘기하네?...교사의 개성을 얘기하는 게 나는 너무 와 닿았어요.

-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의미: 체험 통한 가치인식, 가치철학 공유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의미로서 학생들이 체험을 통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 이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 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방학이 단순 휴식을 하거나 사교육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턴 등을 통해 경험을 하고 체험후기를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가치를 알고 공유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로체험이 1회성인 경우가 많고 체험 후 피드백이나 성찰하는 실질적 과정은 부족한 형편이다. 이로 인해 진로체험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게 된다.

우리는 다양한 진로교육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면 근처 회사하고 연계 되가지고 방학... 아, 방학 있다. 방학 때 가서 인턴하고 실제로 뭐 진로 그걸 하고 그걸 갔다 오면 자기가 3학년인데 강당에서 1학년, 2학년 대상으로 강당에서 자기 체험 후기를 15분 동안 태블릿 PC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고 진로, 봉사 이런 것들이 진짜 하는 거예요. 그냥 합류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사고를 할 때에도 ...

가치를 정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네요. 자기가 선배들한테 그런 거를 배웠으니까 나도 가가지고 나도 전달해야 될 의무, 공유해야 될 의무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철학을... 그걸 잘 공유하려면 잘 알아야 하고 지혜를 알고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하고...

- 비난과 재촉이 아닌 지원 통한 성장, 배려 중심 교육과정이 본질

일본 IB학교는 학생들에게 성장 중심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못하거나 부족하면 알아갈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하는 철학이 묻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이나 활동에서 재촉, 압박, 강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는 피드백이 주제가 성장이니까 뭘 해도 성장 중심으로 하는... 비난도 아

니고 그리고 못하는 걸 학교에서 배워가야 된다. 자기 경계를 아는 거지...

내가 잘하는 거, 탁월한 것도 알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아야 어떤 협업의 전제 조건이 내가 부족한 거 채우고 내가 남는 거는 좀 나눠주고... 좀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는 교육과정이라는 느낌?

우리는 동아리 활동도 압박하고 강요하고 빨리 찾아서 학생들 진로 쓰라고 어려워지. 찾을 시간은 안 주고...

- 전인교육 회복의 기로

IB교육제도는 우리나라 교육을 전인교육으로 회복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는 전인교육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 이후부터이다. 또한 부정적 피드백은 아이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이러한 것이 악순환이 되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도 되게 그렇게 이제... 전인교육이 실현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살리느냐. 아니면 그거를 매장시키느냐? 그거 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린다는 거는 그거를 적정히 사람 피드백... 그러니까 개가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중학교 1학년 1학기에 이 적절한 피드백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 피드백이 안 간 거죠.

피드백의 문제 인 거 같아요. 애들은 타고났고 그거를 가르침을 받아서 이 교육과정에 적응을 잘 한 게 아니라 지금의 초등학교에서는 그거의 가치가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괜히 나대는 애가 되고... 부정적, 부정적인 게 오니까... 피드백이 부정적으로 오니까 오히려 그리고 수업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그런 농땡이나 막 이렇게 지적받는 애들이 더 애들한테 인기가 있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지 않나. 살려지지 않는 거 같아요. 꺼지는 거 같아요.

- 대안학교의 하나로 IB학교 선택

현재의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반대하여 깨어있는 학부모는 대안학교의 하나로 IB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학교 신설 문제와 IB 도입 문제는 같은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학교나 IB제도가 아닌 현재 공교육 내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입시위주로 운영되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쳐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비유한다면 대입이라

는 본류를 놔두고 즉 엔진은 교체하지 않고 부품만을 갈아 끼우는 것은 언젠가 큰 고장이 나기 마련이다.

지금 아니더라도 결론을 심각하게 내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일단 난 이거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 의미부여를 하는 학부모들로 인해서, 또 독심 있는 선생님들이 결과를 내야 하겠죠. 결과를 내서 가능하네라고 이게 되면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학생들이 보내서 오는 경우 보다는 부모님들이 그거를 소개를 해서 오는 거고 개들이 스스로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다들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확대가 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 대안학교를 우리도 대안학교가 될지 좀... 전체... 오래됐잖아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있는 공립학교를 변화시켜야지. 너희가 공립학교 안 된다고 하니까 밖에 나와서 세운 거잖아라고 얘기 했어요.

나. 수업개선에서의 시사점

- 영어 또는 일어 2개로 수업과정 개설

일본 IB학교는 영어 또는 일어 2개로 수업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영어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어과정은 신청이 많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수학 수업이라도 영어로 배울 사람, 일어로 배울 사람 두 개를 개설해 요. 같은 단원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디플로마는 아마 공통으로 영어인 것 같 아요. 왜 신청을 그렇게 많이 안 해라고 그러면 영어의 어려움 때문이래요. 애 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 수업설계만 해주는 IB 코디네이터 존재

일본IB학교는 수업설계만 해주는 IB 코디네이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수업설계와 흐름을 위해 유닛플랜을 설계해 준다.

그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그 유닛 플랜을 가지고 하는데 약간 우리나라 지도서

보면 교육 뭐지? 교수 학습 사항의 유의서 같은 것 있죠?

그 주안점까지 넣어요. 이거는 이 계산기를 여기서 사용해서 이 계산을 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유닛 플랜의 대강 어떤 수업 흐름도 대강 짜있고...아예 유닛 하나를 짜주는 거네요? 네. 그것만 짜주면서 전담을 하시는 거예요.

- 교과 간 융합은 늘 함께 / 수업 교육과정은 융통적 운영

일본 IB학교는 교과 간 융합을 시간을 내서 늘 함께하고 있었다. 수업 교육 과정은 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교과 간의 융합을 하는 시간이... 나 이번 주에 무슨 단원 가르칠 건데... 또는 여기에서 들고 나는 이번 달에 이것 가르칠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막 학년 초에 정한 것 같지는 않았고 이렇게 하니까 사회시간에 가르치기로 플랜이 짜졌다. 그거는 수업 후의 협의회 시간이 얘기했고... 네. 공개 수업 수에...

- 수업활동은 삶과 사회문제 연계

학생들의 수업활동은 삶과 사회문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용적인 역량 목표 때문이기도 하고 교사의 사회적 책무성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원은 제가 그 본 수업이 산포도라는 표준편차 그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바로 그냥 쓸 수 있는... 실생활 과제 같은 거 던져주고...네. 실물 화상기처럼.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계산기 활용하고 그리고 또 계산기 잘 활용했는지 활용하고... 이거 똑같이 그 계산기고... 주식 그거 사이트 보여주고 한 거는... 이 식을 보고 제가 표준편차인 걸 알았어요.

주식 그래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단순화 시키고 뭐 얼마에 사고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이걸 기업 맥도날드, 스타벅스 각 모듬별로 판단하기... 근데 그 답이 다 답이 되는 거죠.

- 제도 도입위해 수업개선 열정적 교사 활용 방법

IB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는 수업 개선에 열정적인 교사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기되었다.

우리 같은 과학 선생님 같은 스타일은 좀 원래도 이렇게 좀 실생활이랑 연계에 대해서 동기유발이 되는 자료에 좀 목말라 있었고...

그래서 이 선생님도 막 스위스 가서 자기가 혼자 공부 해 와서 그 새로운 물리 트렌드에 맞는 거 자기가 돈 들여 가지고 물건 사가지고 올 정도고... 그러니까 사람은 없지 않은 거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더 왜 오타쿠 같이 수업에 미친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회만 주면 저처럼 뭔가 내가 추구하는 거랑 뭔가 맞다고 느껴지면 에너지는 있으니까.

- 시험과 연계 또는 학생·학부모·교사동의가 되어야만 지속성 담보가능

IB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대입시험이나 평가와 연계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과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동의가 되어야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야만 수업준비, 행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선생님도 너무 부담이 크다고... 자기가 수업, 행정적인 걸 안하는데도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힘들... 좀 뻥세긴 한데 가치는 있다고...

근데 실컷 준비해서 갔는데 애들은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라고 해버리면 이걸 수업 상처 받아요. 백방... 차라리 노력안하는 선생님이 덜 데미지가 있지. 데미지 적으로... 공을 들였는데.

학부모 그리고 학생, 적어도 교사들 간 이게 동의가 어느 정도 철학은 맞아야 돼요. 그게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철학이 좋으니까 따라와. 따라와 했을 때에는 그런 문제? 문제가 보장되지 않은 불투명한 것들이 다 뜻을 돌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임한 건데 상처받고 또 나가는 거죠.

- IB는 수업자료 차이가 아닌 활용 시간의 부족

IB는 수업자료 차이가 아닌 활용 시간의 부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자료는 현재 공교육 교사들도 새로운 자료를 많이 만들고 찾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발표 등으로 활용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원이 있으면 그 차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말하는 거 같아요. 30차시 까지. 근데 문제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학습지랑 별로 차이를 못 느꼈어요. 어떤 단원을 보면 이런 거 함수 아닌가요? X, Y 대응되는 표 그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프 나타내고...

그게 되게 융합된 거니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일 뿐 우리 선생님들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활용할 시간이 없는 거지. EBS, 매스 얼마나 좋은 영상 많아요.

다. 평가개선에서의 시사점

- 평가지표(루브릭) 모호성의 어려움

IB 평가지표 즉, 루브릭은 생각보다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평가역량은 루브릭을 바탕으로 교사가 채워진 경험역량을 바탕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같은 것도 솔직히 좀 3일간의 워크숍을 하고서 IB 인증... IB 교사 인증도 받고 또 뭐 달라지는 교육과정 같은 것도 딱 3일 워크숍 하고서 이제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재량이 많고...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 이거는 좀 우리가 선부르게 3일짜리 연수받고 와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게 제공이 안 되니까.

그게 두루뭉술해가지고 아까 담당자님은 뭐 교사의 자율성을 준다고는 하지만 자기는 너무 모호해서 지표가, 세부가... 이게 점수를 협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자세하고... 우리가 더 문제 만... 근데 거기 루브릭은 이 문제에도 적용해도 되고 저 문제에도 적용해도 되고 이 문제도 적용해도 될 것 같은 거였어요.

- 교사의 평가 책임 변제

IB 평가제도는 교사의 책임 변제의 용이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IBO에서 평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그걸로 좀 교사들에게 뭔가 설득하시는 뒷받침하는 근거? 평가에서 민원에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1차로 점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IB가 책임을 지니까 자기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 MYP와 DP평가의 차이

MYP와 DP평가의 차이를 살펴보면, MYP는 시험이 유닛테스트, 형성평가 같은 유닛 테스트로 한다. 우리나라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행평가 10%에 넣는 형성평가 수준으로 문제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YP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중간, 기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DP는 서술형에다가 소논문도 작성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MYP와 DP는 좀 격차가 되게 많이 나는... MYP는 유닛테스트 수준이에요. 시험이 형성평가 같이 유닛 테스트예요. 그냥 우리가 수행평가 10%에 넣는 형성평가 수준으로 문제도 정말 딱 보면 아는 그런 문제들인데 DP는 이제 그 서술형에다가 이제 소논문도 써야 되고 근데 MYP는 그런 시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중간, 기말이 없어요.

자기가 문제를 오히려 만들고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봐서 좀 심화학습 하는 거는 DP가 하는 거고... MYP는 러너 프로파일있죠? 10가지 그거를 골고루 역량을 키워내는 게 목적인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도안에도 보면 어떤 핵심 역량을 키울지 그거를 적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수학수업이라도 의사소통을 내가 하게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단원 내용이었고 수업 설계였다는 거죠.

- 에세이(소논문): 영어로 제출

에세이(소논문)는 일본학교도 영어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이 에세이 지도를 하지만 그래서 더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세이를... 일본도 영어로 써야 돼요. 디플로마는 무조건 영어로 써야 돼요.

*듀얼처럼 일본어 선생님들이 하지만 답안은 IBO에 직접... 영어로 제출해야...
그게 그래서 그게...*

- 일본에서 국제 대학진학은 소수

일본에서 국제 대학진학은 소수여서 DP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이 일본 국내에서 잘 되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학은 영어랑 일어. 수학은 영어랑 일어. 근데 시험에 대해서는 영어로만 치는 건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DP를 안하는 첫째 이유는 영어였거든요. 그리고 국제적인... 그러니까 학교로 진학을 할 학생이 별로 없고...

국내에서 잘 되어가지고 이들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거죠. 일본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잘 되니까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나라는 반대잖아요.

- 서술형 평가와 학부모 이의제기는 우리와 비슷

일본 IB학교도 서술형 평가와 학부모 이의제기는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이의제기를 우리는 학교에서 처리하지만, IB학교는 IBO에서 처리하는 게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형은 솔직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 같아요. 채점기준 같은 게... 뭐 점을 좌표로 표현했으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우리가 루브릭을 되게 궁금해 했는데 비교하자면 평가나 이런 것들이 MYP는 자유학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미사여구를 좀 덜 주고 많이 주고의 차이이지. 그냥 한 학생의 결과만 봤었을 때에는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똑같은 민원을 겪고 있고... 학부모님들한테...

- 일본 IB학교를 한다고 해서 사교육 해결은 어려움

일본 IB학교를 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IB교육과정 때문에 사교육을 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를 위해서 사교육해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또 사교육 하는 애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 과목별로 수준별 나머지 공부시키기도

IB학교에서 학생개인별로 과목에 따라 수준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수준별 나머지 공부를 시키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닛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제를 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 클래스에 너무 다양한 수준이 우리 수학은 그게 큰 문제 아니냐? 그건 역시 아니라고 자기도 남긴다고... 자기도 남긴다고. 그리고 유닛 테스트 통과 못하면 또 숙제 내고 또 그걸로 민원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학부모가 IB나 MYP에 대해 좀 이해가 덜되어서 이제 평가에 대해서 좀 민원의 소지를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서술형 같은 경우...

- 생기부 기재의 간편성: 교사 부담 경감 가능

IB제도의 장점으로 생기부 기재의 간편성을 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나 고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학생부 기재에 대한 압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사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처럼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 활동을 탁월하게 했고 이정도 수준으로만 평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애들이 행복했다는 것과 애들이 행복한 거랑 그다음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봉사도 그렇고...

- 평가방식차이라기보다는 철학의 공유와 기다림의 차이: 경쟁 아닌 협력

IB는 평가방식의 차이라기보다는 철학의 공유와 기다림의 차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술형 평가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쟁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IB학교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철학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구도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들었다. 이러한 철학 속에서 학생과 교사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 녹아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과 교사의 개성이 두드러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회저변에 경쟁이 가치로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아무리 토론식 수업을 하려고 해도 학생은 실질적으로 원하는 역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필평가... 물론 서술형이긴 한데 그 평가 결과가 저는 영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90점 받은 애가 80점 받으면 되게 데미지를 느끼고 막 100점을 만들려고 90점짜리인 애들도 학원을 보내고 뭔가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들잖아요.

거기에도 없지 않겠냐마는 일단 그렇게 뽑혀진 애들이고 그 소통하는 능력까지 뽑혀진 애들이고 우리는 이리이리한 철학을 가르치고 한나라는 게 깔리니까 경쟁을 조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경쟁심 있고 막 이렇게 내놓이 안 되는 애들을 컨트롤 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 IB는 그런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나는 이 철학을 공유하고 이게 현실화 된다고 그래야 하나?

이 철학을 이해하고 몸에서 배어나오고 그 사람의 개성에 녹아나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타고난 그거에 이 철학들이 접목이 되어서 그것... 그 교사상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교사상이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 실용적 학문 추구가 현재 대입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IB의 실제적 삶과 연계된 실용적 학문 추구가 현재 순수 이론 중심의 대입을 위한 입시교육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MYP나 DP를 받았어도 대학같이 뭔가 연구하고 프로젝트 형 수업에는 맞지만 그거를 따기 위한 입학시험에는 부적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그 수학생님도 뭐라고 했냐하면 우리 IB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은 지식은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좀 순수과학인데 꼭 그렇게 실용성이나 그런 거랑 연결이 안 되도 되

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애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IB로 수업을... IB나 DP로 보면 소논문을 하나 되게 A+받게 적었다고 해서 수학에 전 과목에 대해 넓게, 깊게 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수능은 다양한 과목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 이르면 애들이 점수를 잘 받게 되어 있잖아요.

- IB와 대입(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연결고리

IB와 대입(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연결고리는 중요하다. 사실 대학은 IB를 좋아하고 있는 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종과 IB에서 나는 IB는 목적이 해외 대학을 가는 애들한테 유효하다... 학종을 바꾸려고 그래도 이 학종으로 국내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대학에서 IB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IB가 결국 대학에서의 학위의 연구와 이런 걸 연습을 하고 오니까요.

여기서 했던 평가 방식이 대학가서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대입과 연계되어야 도입의 지속성 보장

IB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입제도와 연계되어야 도입의 지속성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과 연계된 제도가 최소한 5년은 유지되어야 하며 5년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 계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경제 쪽에서도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 대학 관계에서 당연히 와야 돼요. 왜냐하면 5년... 되니까 5년 후엔 연대해서 이런 애들을 하는 거를 지금 연구해서 일단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되어야만 이걸 끌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합의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의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

어떤 식이든지 교육부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교육부의 역할은 여기, 교육청의 역할은 여기, 학교의 역할을 여기 이래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나

오지 않으면 지금 이제 가다가 학부모는 내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이런 거 할 줄 알고 갔는데 이거는 대안도 없는데 뭐야 뭐야 들러리...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 평가에서의 교사 전문성은 데이터 축적과 분석에서

평가에서의 교사 전문성은 데이터 축적과 분석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평가의 경험과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평가에서의 분석을 통한 역량의 성장이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그 선생님도 우리가 강의를 나온 게 처음에는 강의식으로 가르쳤데요. 그 DP 기술문제 계속 풀리고... 근데 나중에는 소논문이 계속 쌓이니까 애들 소논문에서 또 주제가 생기고, 주제가 생기니까 지도가 퀄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소논문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A가 나왔네, B가 나왔네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자기 나름 분석을 하는 거죠. C, C, C였지만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거에 역시 전문가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쌓여나가는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도 맨땅에서 해당하는 분명히 할 텐데...

- 평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

평가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환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점수 상으로 표현되는 수치가 아니라 교사가 학생 개인별로 잘하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에서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인간적이고 좀 그런 게 가치가 쳐줘야 되는데 진짜 제 그거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제 과정중심평가 표지는 학습지 한 거도 TOK인데도 있지만 저도 그거를 조금이라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기 것만 딱 풀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개는 만점이에요. 그 점수판에 의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영역을 모둠활동 우수 이런 것들 까지도 하고 마지막에는 왜 생기부에 적어주고 싶은 애들 있죠? 그냥 총체적으로 점수 잘 받았다고 넣

는 게 아니라 너는 이것 잘해. 너는 식을 잘 정리해. 설명을 잘해줘. 너는 친구 격려를 잘해줘 이런 식으로 그거 역시도 좀 도장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니까요

-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차이

IB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차이는 경쟁해서 이기려는 힘이 아니라 사고력의 높음, 높은 자존감, 좋은 인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런데 되게 애가 인간적이 느낌이 들어요. 뭔가 모르게 IB인 애들은 뭔가...

인간적이고, 공감이 되고, 그러면서 진지하게 뭔가 경쟁해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힘이 길러져있는 거예요. 자존감도 높고...

그거에 동의된 애들이 올 것이고, 나는 그 아이들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내가 그 교육과정을 하면서 얻고자 했던 보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 평가기준의 일관성과 체계적 시스템이 신뢰제고 방법

만약 IB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제도의 평가기준, 정책적 일관성과 체계적 시스템 이 제도적 신뢰를 높이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학생, 학부모, 학생의 동의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선생님에게 받았던 평가 기준이 내년에도 일관되고 내후년에도... 3년 후에도 일관되고... 대입 간... 이게 아이한테 체계화, 익숙하게 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초월적인 초당적... 초월적인 이게 있어 가지고 커뮤니티를 100년 교육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꼭 갈 학부모도 있어야 돼요.

VI. IB 교육과정 적용학교 면담 및 관찰 내용 분석

1. K외고

○ 국제 IB반 학생 선발

국제 IB반 학생 선발은 영어과에서 선발하는데 25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었다. 선발 방식은 에세이를 보고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과는 ○학급을 뽑아요. 평균 ○등급 내지 ○등급 조금 안되게 차이 나는 데 그 학생들 중에서 영어과가 ○○명이 되는 거죠. 중에서 IB를 희망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을 다시 우리가 에세이 시험보고 다시 선발을 하는 거죠.

○ IB반 구성

K외고에서 코디네이터는 원어민 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행정 및 운영을 지원하는 한국인 부장이 있었다.

저희 K외고 밑에 국내반 있고 IB 있고 IB에서 이제 부장이 있고 그 밑에 DPC 하고 칼스 카운셀러 있고 이 코디네이터있고. 그 분들은 다 원어민 선생님을 담당하시고요. 그리고 수업원어민 선생님들이 하시고요.

○ 교사 워크숍: 평가인증 요소

교사는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보내야 하는데, 이는 IB 5년마다 행해지는 평가인증의 한 영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는 워크숍을 보내야 되는 게. 그쪽에서 평가를 5년마다 할 때 '얼마나 PD를 시켰냐. 보내줬냐.' 이게 한 영역에.

선생님들의 PROFILE도 다 CHECK UP하고 5주년 될 때랑 5주년 평가할 때 이 선생님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지, 워크숍을 몇 회나 다녀오셨는지,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낸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별로 선생님들 면담을 통해서도 하고요. 다 5주년 때 합니다.

○ 교사 채용

IB 교사채용을 할 때는 그 나라의 교원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학교의 채용지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교육과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교직이수하시는 그게 교원자격증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거처럼 똑같아요. 저희도 선생님들 채용할 저희학교만의 재량의 그 룰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니면 저희도 뽑지 않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이 분을 뽑고 나서 바로 워크숍을 보내드리는 거죠.

○ IB 제도 도입 이유: 글로벌 인재 양성

IB 제도 도입 이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러한 것이 교육과정에 녹여져 있는 제도를 찾다보니 IB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걸 통해 해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려고 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자. 그런게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아볼까?' 했을 때 IB여서 그래가지고 IB교육과정을 도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서 수료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졸업장도 받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도 외국으로 가자. 보내자.' 그렇게 해서 이게 도입이 된 겁니다.

○ 국내교육과정과 병행의 어려움

국내교육과정과 IBDP를 병행하고 있어서 교사, 학생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K외고 졸업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산출을 위한 평가는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치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한국사 해야되고, 체육과정 해야되고, 음악과정 해야되고, 미술과정 해야되고.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은 2년만에 이수해요. 왜냐하면 K외고 졸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K외고 밑에 있는 거니까.

IB에서도 최대 이수시간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HL 같은 경우는 120시간 밖에 안되고 SL은 80시간 밖에 안 됩니다. 그거 말고는 지도를 할 수가 없어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수 단위를 또 저희가 이수단위를 과목 선정을 해야되는.

수행평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거 다 보는데... 객관식은 아닙니다. 저희는 다 서술형.

○ 국내 교육과정 시수와의 불일치: 시간으로 환산 조정

국내에는 50분 단위로 1개 시수를 이수한다. 이러한 국내 교육과정 시수와의 불일치는 시간으로 환산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B가 통합적으로 무조건 한시간만 해야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총시간이 120분, 8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간대에 대한 환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맞추는 거죠. 시간을.

○ 국가교육과정 과목과 IB과목과의 불일치 문제

국가교육과정 과목승인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과목과 IB과목과의 불일치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청은 승인은 내주고 운영은 시키게 하지만 관심도는 떨어지다보니까 매번 교육과정 승인 할 때 보면 매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애로점이 많이 있죠.

○ IB이수학생과 국내 학생의 차이: 성향

IB이수학생과 국내 학생의 차이는 성향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학생은 수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해 IB학생은 자기주도학습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거주경험은 3분의 1정도이다.

일반 학생들은 선생님에 따라서 DISCUSSION나 PRESENTATION하시는 요새 선생님 많으시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학생들도 많고 어쨌든 수능에 집중을 할 때는 그런 거 하지말고 빨리 이 걸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 IB 학생들을 그 성향 자체가 일학년부턴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내가 내꺼를 주는 거를 좀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스스로 할라 그러고 자기네가 질문을 하고 자기네가 뭘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수업시간에 시간을 주면서 '읽고 하자.' 하면은 싫어하지. '미리

숙제를 내주면 우리가 다 해 올 건데.’ 그럼 우린 와가지고 토론하고 분석하고 이거지.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거 같아요.

○ AP, SAT이수 학생 VS IB이수 학생의 차이: 대학교 적응과 성취도

AP, SAT이수 학생과 IB이수 학생의 차이는 대학교 적응과 학업성취도에서 차이를 보이는 데 IB 이수학생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에 유창성보다는 애들이 머릿속에 넣고 논리적이면 영어는 좀 떨어져도 나중에 이 결과, 대학교 또 강조할게요. 대학교 가고 이럴 때 확실히 잘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논리력이 얼마나 있고 자기표현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외국대학교 아이들 우리나라에서 하다가 외국대학 간 아이들이 갈수록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주로 AP나 SAT를 자기가 물론 선생님의 도움은 받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갔던 애들하고 우리 IB 교육과정을 PREDICTION 교육부터 시작해가 지고 ONE, TWO를 한 애들이 지금같이 계속 훈련을 받고 거기 가서 한 애들하고는 비교를 하면 안돼요.

훈련이 3년이 되어있다보니까 대학에서 하는게 오히려 더 쉽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쉽겠죠. 왜냐면 자기과 전공 하나만 하는거고 고등학교는 저기 여섯 개 교과부터 시작해서 TOK 이걸 다 해야되는데.

○ 소논문 지도

소논문 지도는 한 과목이 아니며 코디네이터가 주제에 맞게 교사를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소논문 지도 자질을 키우기 위해 교사워크숍을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논문이 그게 한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코디네이터가 있으면 이 EXTENDED 에세이 하는 게 애들이 주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 주제에 맞는 교사를 연결시켜줘야겠죠.

그런 자질이 있는 교사를 뽑고 만약 없으면 PD를 시키셔야되고.

○ HIGH레벨과 STANDARD레벨 과목 선택: 영어가 기준

학생들이 총 6개 과목에서 HIGH레벨 3과목과 STANDARD레벨 3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은 영어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개설은 과목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저희가 외국어고등학교다 보니까 영문학이나 영어 언어와 문화 중에서 영어영문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고 영어는 LITERATURE 문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을 영어를 조금 잘 해야지 문학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영어 ENGLISH B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상 SECOND LANGUAGE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적인 부분으로 7점을 받기 위해서 영문학을 선택하지 않고 영어학을 선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국 문학에서는 HL, SL 레벨 둘 다 제공하고 있고요. 영어 언어와 문학과 영어학 영어는 HL 레벨만 제공을 합니다. 이수단위가 그렇게 밖에 안 나와서. 그리고 일본어랑 중국어는 SL레벨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경제, 역사, HL레벨, SL레벨 둘 다 있고. 수학, 과학도 HL 레벨과 SL레벨 다 있고. 예술은 미술 이수 미이수로 빼고 있습니다.

○ 수업과 평가의 연계 : 토론수업자체가 시험(에세이)

IB는 수업과 평가가 철저히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수업자체가 시험이었다. 시험자체가 에세이이므로 객관식이 아니고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토론 수업이 시험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수행평가로만 안 끝나고 그게 지식으로 가지고 가는데요. IB 과정은 토론수업 자체가 시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에세이 형식으로 백점만점에 다 백점을 그걸로만 주기 때문에 객관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토론한게 평가방식이 되는거고 내가 이걸 시험문제 적을 게 하나라도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행평가로만 생각하지 않고 수업이라고 생각해서 연결이 되는건데. 한국 교육과정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토론 수업은 수행평가, 내 시험은 객관식과 주관식 조금 문학 정리하는 거 그거로만 주관식 객관식 나와져있기 때문에 이게 연결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 서술형 평가: 학부모 동의가 전제

IB는 서술형 평가에 대한 학부모 동의가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하시는 부분은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IB 교육과정의 좋은 우수성을 파악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연결고리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식에 지필평가가 들어갈 수 밖에 없고. 그게 안 들어가면 학부모님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것은 솔직히 감당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들어오실 때 저희는 다 에세이 수업이고 평가지침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은 없는데 ...

○ 수업개선이 아니라 평가시스템에서의 신뢰성이 IB와의 차이

IB 적용에서의 시사점은 수업개선이 아니라 평가시스템에서의 신뢰성이 IB와의 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수업방법 좋으신 분들 많고 젊은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원어민 선생님하고 한국인 선생님하고 둘이서 에세이 문제를 같이 채점해요. 같이 채점을 해서 그걸 평균 내서 하면 애들도 수긍하고 학부모도 수긍을 해요.

○ 서술형 평가문항의 출제수준 차이도 있음: 연수의 차이

서술형 평가문항의 출제수준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B에서 출제하는 서술형 평가문항과 국내 교사들이 내는 서술형 평가문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IB는 교사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역량이 쌓여서 그런 것이고 국내교사는 그런 실제적 워크숍이 많이 부족해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S시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경남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논술형 시험문제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30%이상 70%까지 내라.' 이런 식으로 내는데 그런데 보면은 수준차이가 있어요. 문항 수준차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IB에서 내는 아까 왜 그 질문하고 수준이,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잘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나 그런게 아니라 그런 수준도 감안을 해가지고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모색하는 거지요.

배움중심 수업이렇게 해서 굉장히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수능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내고 있는 문항라든지 질적 수준차이도 있고 그런 문제더라고요. 결국은.

○ IB평가는 두 가지

IB는 두 가지 평가가 진행되는데 INTERNAL ASSESSMENT라고 해서 IA가 있고 EA가 있는데, EXTERNAL ASSESSMENT라고 나눠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A랑 EA는 2년동안 한 번씩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평가도 하고 다 진행되고 IA도 제출을 하는데 IA도 약간 수행평가 PERFORMANCE TASK로 들어가지도 하지만 정식적인 IBO에서 요구하는건 IA 만이기 때문에 그 IA는 IBO에 보내고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수행평가를 더 하는 거죠. 다 접목시켜놓기는 했습니다.

7점 만점의 교과목은 6개 교과목 군 안에 두 가지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INTERNAL ASSESSMENT라고 내부평가. 온전히 선생님들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평가점수. 내신입니다.

피드백이 되어가지고 하나에 내 것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안에서 IA 소논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LAB REPORT 라던가 이런 것도 제출해야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상이하게 과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IB는 시험 문제 출제부터 채점까지는 모든 것은 교사 책임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사전에 루부릭이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의제의를 할 수가 없는 데, 그 정도로 거의 신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내신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평가자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시간과 많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일단은 시험 문제에 출제부터 채점까지는 모든 것은 교사 책임이에요. 이의제의를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거의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50점이야. 어떤 사람은 90점이야.' 그렇게 했다고 이의를 제기를 안해요.

IA는 전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이어서 학생들과 충분한 피드백을 주고 점수에 대한 합당한 인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그 평가 시스템을 IBO에서 하고 있는 걸 적용할 수가 있을까라는 물음이 드니까.

우리가 RUBRIC이 아주 SPECIFIC하게 나가야지. 내 맘대로 출제하는건 아니겠죠. 거기에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는 평가기준이 있으니까.

○ 평가는 교차 채점: 재채점 가능

평가는 2명 이상이 교차로 채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가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해서 재채점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차 채점합니다. 교차 채점하는데 EA하는 IBO 담당자들도 교차채점을 하시는데 그들의 피드백을 받고도 내가 은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수능 점수 자체가 하나 나오면 더 이상 끝이거든요. 더 이상 반발할 것도 없고 끝인데 IBO 같은 경우에는 EA 채점을 할 때 교차채점을 하고 점수를 내주고 학생들이 다시 재채점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요청을 해서 그것을 요청을 받아들여주면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 CAS : 창체와 비슷

CAS는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과 비슷한 활동이다. 그런데 카스는 창체처럼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스가 정형화되어있지 않습니다. 딱 되어있는건 아니고요. 품은 있습니다. 품은 있어서 내가 뭐 할거고 뭘 해야되고 그걸 매니지백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올리게 되는데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동아리 활동 안에서 제가 적게 되는 개인적인 세부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영문화시켜서 매니지백에 업로드 시키면 됩니다

뭔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다문화봉사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서비스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액션파트라고 하

는건 액티비티, 액션 둘 다 요즘 액션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내가 없었던 것들을 새로 창조해서 만들었다. 그런 의미도 되고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존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에 추가적으로 내가 만든 그런 어떠한 프로젝트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스활동을 네 개로 끝나는게 아니라 ...

○ 지정 교과서는 없음

IB에서 지정해 주는 교과서는 없고 교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는 IB에서 정해 준 건 없어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정해가지고.

그게 사이트나 이런데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는 거죠. 반드시 이 교과서만 사용해야 이런 거는 없어요.

○ 교원역량강화 워크숍의 종류와 차이

교원역량강화 워크숍의 종류와 차이가 있는데, 카테고리1은 기초과정, 2와 3은 심화과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화과정은 문항 출제, 평가에 초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B SCHOOL CODE가 필요한 워크숍이 있고요. 만약에 카테고리1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데요. 카테고리2나 3는 사실 학교코드를 넣어서.

심화과정 3가 과목별로 평가를 어떻게 할거며 문제를 어떻게 낼거며 그다음에 평가원들이 어떤 면에 초점을 두고 하며.

카테고리1은 ADMINISTRATION. 관리자 입장에서 왜 행정이라는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이란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실제적인 일은 안하셔도 전반적인 거는 알고 있고 DPT의 역할은 뭐고 TOK 가르치는 사람이 뭐 해야되고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뭔지 아셔야 제대로 하고 있는지.

○ 답이 없는 문제

IB 문제는 답이 없고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는 학생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정말 잘 자기 의사를 잘 표시했나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A문제를 봤거든요. 한국문학 문제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항상 시를 하나 읽거든요. 읽어서 그냥 COMPRESSION CHECK UP이 아니라 이 시를 읽고 이 시를 읽었으면. 답이 없는 거더라고요. 답이 없는.

답이 없는거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떤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애들을 끌고 나가야되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아픈거예요. 생각했는데 자꾸 너 왜그래 이러니까. 저는 예스, 노만 하고 싶은데.

2. S고등학교

S고는 K외고에서 IB 디플로마과정을 성공적으로 도입한 P○○ 전 K외고 교장이 새롭게 이동하여 운영하고 있는 삼성그룹 재단 소속의 사립학교이다. P○○ 교장은 K외고에서 IBDP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S고에서 IBDP 과정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며 고교학점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장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과 평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교생은 예비대학생이며 예비성인이라는 존중의 철학을 중시하며 기존 학교에서 해 왔던 관행을 타파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말시험 후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 즉 시험 후에도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고교생을 예비성인으로 본다는 관점은 자기관리 역량, 존엄한 인격체로서의 존중, 배움이 즐거운 학습인으로 키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3개의 학생상과 9개의 육성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5개정교육과정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바탕으로 한 6개 핵심역량과 유사하다.

창의사고역량의 기본은 끈기와 인내를 바탕으로 한 과제집중력이다. 윤리교육은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이 주인공이다. 따라서 내가 만드는 시간표, 삶의 주인이고, 수업과 학습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주인공은 대사분량이 가장 많고 자주 등장한다. 따라서 학생은 교사보다 수업시간에 가장 많이 말하고 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 일반적 학교는 수업은 교사가 주도하고 학습은 부모, 학원강사, 과외선생님이

주도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공교육의 최대의 적은 학부모라는 우스갯 소리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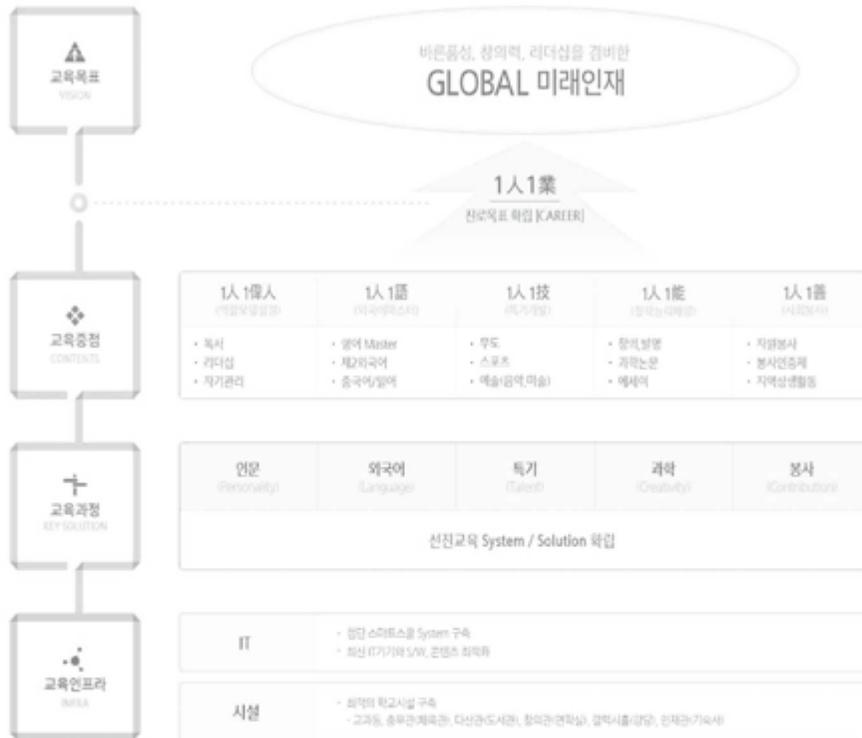


그림 2 건학이념

■ 교직원 현황 (2018.03.)

교직원의 현황을 보면 교사의 교육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실무사가 10명으로 다른 일반 학교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상대적으로 행정업무보다는 수업이나 교육연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교사는 일반 다른 학교와 달리 방학이 별도로 없다.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한다. 휴가가 필요하면 개인 연가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연가수당은 없다. 방학기간에는 주로 교사연수가 많이 진행된다. 이는 학생들의 논문 지도를 할 수 있게 함이 크다. 교사의 학술지 게재 비용(TRF)도 지원한다.

선생님은 기안만 하며 행정실무사가 실제 업무를 진행한다. 별도로 행정실이라고 불리는 교육지원팀은 6명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1명의 교과교사는 보통 200명에서 500명을 책임지지만 S고는 1명의 교과교사가 75~100명만을 책임진다. 즉 3개의 분반정도만 책임을 진다.

이를 통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은 감사의 피드백이 증가한다. 이는 또 하나의 문화 또는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사 채용은 석사, 박사를 우대하나 필수조건은 아니다. 서류, 논술시험, 1박 2일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심층면접은 레크레이션, 디플로마 시연 등이 포함된다.

표 20 교직원 현황

구분	교사	원어민	행정실무사	사감	기타	합계
교직원 수	99	1	10	14	74	198

* 기타 : 영양사(3), 조리사(2), 법인(4), 행정(9), 교육지원팀(5), 사서(2), 보건(2), 상담(2), 사회복지사(1), 시설(6), 미화(14), 보안(4), 조리원(20)

■ 학생현황 (2018.03.)

교사를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채용하여 교사 1인당 지도학생 수가 11명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표 21 학생 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남	여	합계									
학생 수	157	213	370	153	187	340	154	185	339	464	588	1049

* 교사 1인당 지도학생 수 : 11명

■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의 교과전문성 외에도 교육의 방향성, 철학, 기저를 구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특징을 보인다.

교육의 중점은 입시위주 교육탈피, 창의사고력 향상을 위한 지식암기방법 지양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실험, 글쓰기, 토론, 블록수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은 1인 2동아리가 필수이다. 특히, 무도대회가 있다. 동아리 중 1개는 반드시 체육 또는 예술을 해야한다.

- 학교의 교육목표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과정 설계
- 실현 가능하며 소통을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 학과협의회 및 학력 관리(NSLB: No Students Left Behind)

- 정기 학과협의회를 통한 교수능력 제고
- 담당 과목 책임지도를 통한 NSLB 실천 : 과목별 최소 이수기준 설정과 추가 이수 제도 운영

▶ 큰사넷(CNSA Net) 운영

- 교육활동 전체에 관한 정보 축적 및 공유의 장인 교내 포털 인트라넷 운영
- 학생-교사-학부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의 매개 역할
- 학력 관리, 비교과 활동, 생활관리, 교무지원, 학사교과관리 등의 체계적인 업무 지원

▶ 교사 전문성 함양 시스템 운영

- 전문성 향상을 통한 사교육 없는 학교 구현
- 학교 자율장학 활성화 : 전교사 수업 참관 후 관찰 내용 공유 및 환류 이를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 수강과목 개설 및 신청

학생들의 수강과목 개설과 신청은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설하는 것이 특징이다. 학급단위 수업은 하지 않으며, 고교학점제 방식으로 수강신청 후 클래스를 분반하여 진행한다. 매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8개 ~ 55개의 클래스가 운영된다. 다만, 본인의 소속 담임반 개념 같은 흐름은 32개가 있다.

모든 학생의 시간표는 다르다. 교과교실제가 아니라 교사교실제로 운영된다. 학생들의 수강변경기간은 2일을 준다. 예비신청도 가능하다.

건물은 이동의 편리를 위해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과목은 진로와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신청한다. 수업의 열정을 위해서는 수업의 환경이 중요하다. 학년이나 학급개념은 없고 무학년제로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 학년제가 아니라 학번제이고 기수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수업에서의 활용을 위한 태블릿은 개인별로 입학선물로 증정한다. 와이파이 기능이 되며, 카톡 등의 SNS는 사용이 불가

하다. 복도마다 태블릿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내신산출은 분반 형태이므로 쉽지 않다. 이를 다시 네이스를 통해 과목별, 수강생, 학기별로 등급을 산출한다. 상대평가이므로 원하는 내신 등급 취득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이해시키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다.

- 계열 및 과정 이수를 위한 과목 개설
- 학생 수요가 반영된 과목 개설 및 신청



그림 3 수강과목 개설 및 신청

■ CNSA 디플로마 이수 모형도

디플로마 이수 모형도를 보면, IBDP의 교육과정을 많이 준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과목군을 6개(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체육)로 구성하고 창체를 IB의 CAS처럼 운영하고 있다. 개인봉사시간은 의무적으로 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메이커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학년 말에는 1인 1개의 논문 창작물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IB의 에세이의 기능을 하게 하고 있다. 과제연구로 꺼내는 교육을 지향한다. 1인 1논문을 위해 3월에 연구계획서를 제출 받고 지도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다. 11월에는 이들간의 학술제를 통해 최종결과물을 발표한다. 모두 포스터로 전시하며 우수 학생은 대표로 발표한다.

한편, 단체 수학여행은 수업을 중요시하므로 별도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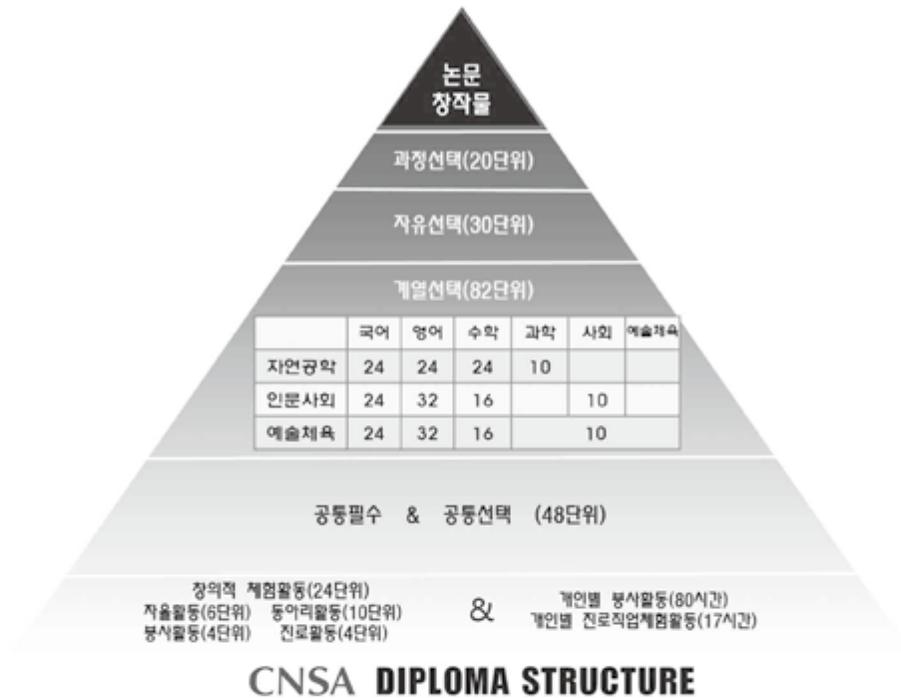


그림 4 디플로마 이수 모형도

■ 디플로마 취득 유형

과정별 디플로마 취득을 위해서는 공통필수 과목 48단위, 계열선택 과목 82단위, 과정선택 과목 20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들은 자유선택 과목 30단위를 활용하여 융합 디플로마(Dual-diploma)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디플로마 취득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이 있다. CNSA Diploma, 융합디플로마, 고급 디플로마, 이중언어 디플로마가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나와 있다.

<표 22> 디플로마 취득 유형

계열	과정	종류 및 이수조건
자연공학	자연과학	1. CNSA Diploma- 교과활동(180단위+논문/창작물) + 창의적체험활동(24단위+MSMP수료+개별봉사80시간 +진로체험활동17시간)
	공학	

	IT	2. Dual Diploma(융합 디플로마)- CNSA Diploma + 과정선택 과목30단위(6과목)중 타과정의 과정선택을 최소 10단위(2과목) 이수
	생명과학	
인문사회	국제인문	3. Honor Diploma(고급 디플로마)- CNSA Diploma + 과정선택 과목 중 각 학과에서 고급과정으로 개설한 과목(Ⓜ) 3과목 이상 이수(고급과목은 수강 조건 및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사회과학	
	경제경영	
예술체육	예술체육	4. Bilingual Diploma(이중언어 디플로마)- CNSA Diploma + 영어로 진행되는 과목이나 영어 교재로 수업하는 과목(Ⓝ)을 20단위(4과목)이상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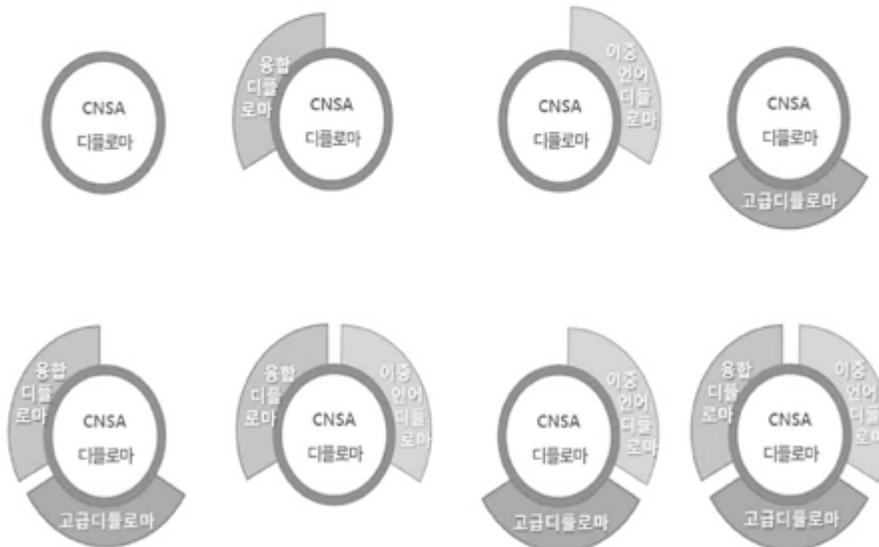


그림 5 디플로마 취득 유형

■ 학비 및 기숙사 비용

학비는 분기당 45만원 정도로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3배의 비용이 든다. 기숙사 및 밥값은 별도로 받는데, 1년에 240만원(80만원*3회) 정도가 든다.

기숙사는 전원 기숙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다. 1000명 재학생 중에서 600명 정도만 선택으로 사용한다. 다만, 1학년 때에는 습관의 확립을 위해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2학년과 3학년은 일부만 사용한다.

특히, 1학년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 전 66일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집단합숙을 한다. 부모님과 학원 강사로부터의 탈피인 것이다.

■ 시험 출제 및 평가

시험출제는 과목별 3인의 교사가 협의하여 한다. 최종 시험의 편집은 1인이 한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시험출제문제를 확인하고 학과장이 확인하고 이 문제를 교육과정센터에서 형식에 대해 피드백한다. 이를 다시 학과장이 최종 확인한다. 이렇게 확정된 문제는 교감, 교장이 최종 결재한다. 이 때 채점기준표, 평가루브릭도 같이 결재를 받는다.

다음 학기의 수업 및 평가계획서는 그 학기 전 방학기간에 작성한다. 17주 1학기를 기준으로 5단위 기준이다. 따라서 85시간이다. 1차시에서 85차시 수업계획과 평가루브릭을 적어도 개학 한달 전에는 확정한다.

평가는 수강신청 학생의 성비, 성적을 고려하고 수업목표를 고려하여 서술형 위주로 낸다. 평가의 이의제기는 온라인으로 제기가 가능하다. 방학기간 내 가능하다.

3. J국제학교

가. B학교(초중고)

- 학기 운영 및 학년 구성, 입학시험

B학교의 학기운영은 8월부터 6월까지로 나타났다. 또한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 10학년까지가 중학교, 11학년, 12학년이 고등학교로 분리가 되어 있었다. 한국 학생들의 비율은 평균 8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기운영은 8월부터 6월까지고요. 5학년까지가 초등학교, 10학년까지가 중학교...그리고 11학년, 12학년이 고등학교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6학년부터 10학년의 시험은... 입학시험은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그리고 모

국어 40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학생 1:1 인터뷰가 있어요. 영어로. 모든 학부모님들은 학년 상관없이 저희 인터뷰 또 있고요. 학부모님 인터뷰.

영어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수업이 다 영어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4천 단어 에세이를 애들이 써야 돼요. 영어로 주제를 가지고... 그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전에 10학년 때 Personal project라고 개인프로젝트가 있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고, Survey도 만들고, 발표회를 만들고 리포트 만들고 발표를 한 걸 모국어랑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 수업 운영 및 교과서

수업은 클래스마다 다 다른데, 거의 대부분 Discussion, Project 수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학력인정 때문에 교과서는 국어, 사회, 역사는 한국 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내내 글쓰는 연습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는 필수로 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는 딱 한 나라의 교과서가 아니라 미국 교과서도 쓰고 캐나다, 워 영국 여러 가지를 저희가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IB에서 틀에 짜여진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채우는 것은 어느 각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국 학력인정 때문에 국어, 사회, 역사는 이제 한국 교재를 쓰고 있고요.

수업시간은 학년마다 들려요. 나이 아직 어린 아이들은 조금 더 짧게, 고학년은 조금 더 길게.

- 유닛: 주제

유닛은 주제가 있어서 정해지는 데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닛에 따라 교과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학년에 유닛은 4-6개 정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학교급과 학년별로 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은 넓게 배우고, 중등은 깊게 배우면서 지식의 구조를 나선형식으로 계속성, 계열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유닛은 이게 주제가 있어요. 아이들 관심의 위주로 조정이 가능해요. 이 주제에 맞는다면 아이들의 관심을 이 주제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주제 이런 유닛은 IB커리큘럼에 있어요. IB커리큘럼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선생님들이 조금 더 주제적으로...그러면 이제 디자인이 IB에서 제시하는 유닛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라이트닝 이런 것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디자인 안에 그런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게 있죠. 그것을 9학년에... 9학년에 배우고 디자인의 Writing, Inquire을 8학년에는 조금 다르게 하고... 디자인의 writing이 아니라 뭐 엔지니어링을 10학년은 다르게 하고...

유닛 테마는 IB에서 테마만 정해주면 선생님들이 학년에 따라서...왜냐하면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꼭 저희가 잘 가르치죠. 똑같은 거 안 가르치고 Skip하는 게 없고 저희들이...수업이 아이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4학년을 여기서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매번 주제는 똑같은데 똑같이 못해요. 매번, 아이들의 관심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아이들하고 그럼 협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주제 할 건데 어떤 관심 있니?' 그거부터 시작이 되죠. 짜놓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벗어나면 같이 가야 해요. 학생들 위주죠. 학생들...

한 학년에 유닛은 6개 할 수 있어요. 1학년부터 5학년은 6개에 6주씩 하고요. 중·고등학교는 제 생각에는 4개에서 6개. 수업마다 조금씩 틀리죠.

당연히 일반 수업도 뭐 이런 클래스 룸에서 일반 수업도 Discussion 많이 하고 Debate 쓰는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있죠. 하여튼 교실이 다 이렇게 모둠 식으로 되어 있어요.

- 10개 인재상, 12개 태도, 5가지 스킬

10개 인재상, 12개 태도, 5가지 스킬을 교육과정-수업-평가에서 녹여서 진행하며 매 시간마다 강조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B learn of profile. 10개의 IB의 learn of profile.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Attitude. 내가 뭐 수업에 대한 태도... 12개의 태도도 있거든요. IB에서. 10개 인재상, 12개 태도 이거를. 수업이든, 밥 먹든, 놀든, 밖에서 놀든, 그거는 항상 선생님이 생각하게 하죠.

선생님이 항상 이번에 유닛에서는 이 주제에 맞게 우리 커뮤니케이션. 말을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거를 조금 더 포켓을 하고 그다음에 균형 잡힌 사람을 포

켓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채점을 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계속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계속 생각을 한…보통 한 유닛 당 2개정도를 더 좀 보겠다… 10개 중에…

스킬 위주. *communication skill, research skill* 그리고 *presentation skill* 1… 5가지의 스킬도 그 유닛에 몇 개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개념부터… 그게 되게 많아요. 개념도 지정이 되어야 하고… IB에서 정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주제에는 뭐가 있을까…

- 평가

내부평가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발표평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필평가도 소수로 있고, 소논문 발표평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가 이제 중학교부터는 *Criteria*가 여러 개가 있어요. 스킬 위주의 *Criteria*가 있고…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개념 같은 평가도 있고, *Commentary Discussion*하는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서요. 그거를 이제 9학년 위로는 이제 앉아서 보는 시험이 채점이 많이 되고 그전에는 프로젝트 되어 있도록 있고요. 그 전에는 프로젝트로. 뭐 유닛⁵⁾을 하나를 배웠는데 그 이제까지 배운 것을 자기가 표현을 하고 선생님한테 그리고 다른 아이들한테 이제 발표를 하는 식이죠.

유닛 한 개에 6주면 17주 정도… $6 \times 3 = 18$. 세 개 정도? 3개하고, 3, 3 그러면 6개 하면 1년 지나가고…유닛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학년이라면 그 평가가 프로젝트로, 이런 프로젝트로 될 수 있고 고학년이면 조금 더 *Skill base*로 해서…DP는 에세이를 쓰기도 하고 발표도 하기도 하고 시험지도 쓰고

루브릭은 평가하기 전에 수업 할 때 교사들이 만들어서 아예 배포해요. 루브릭을 써서 아이 개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다른데 뭐 1등, 2등 그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아이가 배운 것을 얼마만큼 표현을 하고, 얼마만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평가죠.

- 학생부 기록과 전학

5) 한 주제를 가지고 배우는 것을 유닛이라고 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주에 한 유닛을 배움. 중학교는 6주에서 7주에 한 유닛을 배움.

우리나라의 학생부 같은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학생 개인별로 리포트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 학생부 같은 건 없고, 리포트는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전형 전학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특목고를 가겠다... 이런 것은 근데 여기 잠깐 있다가 다시 가실 생각이시면 아이에게 힘들어요.

한국학교는 다시 갈 수 있어요. 뭐 인증도 되고 한국어도 계속 배웠고... 근데 힘들어요. 이 스타일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한국적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가면 힘들고 나중에 오는 게 더 낫죠. 네. 조금 더 준비 잘 돼서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초반기 그 때 오는 게 더 낫죠.

- 학생들 질문

학생들의 수업시간 질문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별도의 30여분의 플렉스 시간을 통해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모르는 게 있으면 저희는 학생들에게 와서 물어보라고 해요. 학생들이 교사 선생님들 잘 사용하는 게 저희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서도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별도의 교무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메일을 써서 언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되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고...

flex라는 게 하루에 30분씩 있어요. flex라는 게 선생님한테 가서 여쭙보는 시간이에요. 하루에 무조건. 근데 저희는 graphic design, digital design, product design 있어요. graphic design 같은 경우는 아이콘... 패키지... 그리고 이제 digital design은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 로봇 그런 것들 하고요.

- 학생들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들 생활지도 및 상담을 하는 교사가 별도로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이제 생활지도에 대한 상담선생님이라고...아, 네. Social counselor

라고 계시고요. 두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새로 왔을 때 새로 저희 학교로 전학 왔을 때 선생님이 만나주시고 그 외에 아이들이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 항상 스케줄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대학교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세분이 계셔서 맡은 분에게 가서 9학년 때부터 준비가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꿈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뭐를 공부하고 싶은지 해서 이제 10학년이 되면 자기가 택하는 수업이 좋아지거든요. 자기가 진짜 공부하는 분야, 싶은 분야 그 위주로 수업을 택하고 이제 고등학교 11학년, 12학년이 되면 완전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죠. 그걸 이제 University counselor가 도와주죠. 그 외에 이제 6학년부터는 Advice teacher 하는 분이 계시요. 그래서 그분은 수업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지만 Advice 그 그룹에서는 한 30분 동안 매일 만나서 수업 외에 대해서... 매일 만나서 이제 Social skill에 대해서 배우고...

- 교사 및 선발

국어, 사회, 역사 교사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한국교사를 채용하지만 그 외에 다른 교사는 영어하는 나라의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채용박람회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어, 사회, 역사 선생님들만 우리나라 자격증이 계시지만 그 외에 다른 담임 선생님들은 영어하는 나라의 자격증이 있어요.

교사 채용하는 박람회가 여러 나라에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앨버튼, 런던, 싱가포르 그런데 가서 박람회에서 교사들을 채용하죠. 근데 그 채용박람회를 가려면 교사는 영어하는 나라에서의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못가고요. 그리고...

IB도 그리고 IB가 한번은 IB되면 계속 IB가 아니고 매년... 아, 3년마다 한번씩 와서 인증을 다시 받거든요. 교사들도 다 보죠. 그때...저희 가르치는 걸 다 잘 가르치는지,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그런 거를 다 인증을 받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PYP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을 받았고요. 초등학교, MYP는 이번에 다시 인증을 받을 거고요. DP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받고요.

- 대입 현황

대입현황을 보면, IBDP 수료자들은 50%가 미국대학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DP를 마치면 주로 애들이 한 50%가 미국으로 가요.

IB라는 게 처음에 유럽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 학교들은 다 알고요. 이제 미국, 캐나다 그 외에 싱가포르, 홍콩도 다 알죠.

- CAS

CAS는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비슷한 활동이다. 동아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나 기능, 예술, 개인개발, 학습의 4개 분야를 하나씩은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T따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안 하기 때문에 학생이 리더가 돼서 그것을 콜라보 시작했어요. 선생님 한분 Supervisor을 찾아서 그 클럽을 만들 수 있는 게 케이스라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든지 어느 동아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4개의 분야가 있거든요. IB에서는 되게 기능적 잡힌 아이들을 두기 때문에 예술적인 것, 그다음에 그리고 개인 개발 이거는 뭐 새로운 학습에 관심이... 이 4개의 분야를 하나씩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예술적인 아이라도 체육 해야 되고, 체육만 하는 아이라도 봉사활동 생각해야 되고 다 그렇게...

- IB의 매력

모국어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IB의 매력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 대입제도와의 차이점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학교들은 모국어 통제를 해요. 그래서 모국어랑 영어랑 같이 발전이 안 되는데 저희는 통제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업은 다 영어로 하는데 선생님이 '이 말 단어가 무슨 말이지?' 그랬을 때 친구랑 '어... 이 말은 이런 말이야.' 배우고 영어로도 배우고 저희 목표는 영어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모국어...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영어로 수업하다가 다시 이렇게 질문할 때나 그럴 때 모국어로 할 수도 있죠? 왔다 갔다가. 네. 근데 선생님들은 거의 다 저같이 한국 말을 못하죠.

Practical thinking 사무적인 생각 그거 하는 게 영어로도 안 되고 한국어로

도 안 되고... 그거를 없애려면 이거를 같이 배워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안 되서 한참 걸렸어요. 이거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서... 이게 연결이 되려면 7년에서 11년이 걸린대요.

나. N학교

가) 고교 DP만 운영

N J는 고교과정(12~13학년)인 DP만 IB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IB는 고등학생만 하고 있어요. 12학년, 13학년만 해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으로 10학년, 11학년은 IGCSE라는 코스를 또 해요. (입학처1)

영국 커리큘럼이에요. 영국에서 저희가 그대로 커리큘럼을 다 따와서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입학처2)

나) 수업방식: 토론+발표식

기본적으로 수업방식은 토론과 발표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은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해야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방법들이 있고요. 본인들이 이제 선택해서 이제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어... 저희는 이제 그 수업을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수업은 아니고요. 학생 참여가 좀 많은 수업들이라서 학생들이 직접 이제 서치해서 뭐 에세이도 써야 되고 서로 이제 디베이트도 해야되고 뭐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다) 평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걸로 순위를 매기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성적 확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있어요. 있기는 한데 그걸로 순위를 매기는... 순위를 매기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적만... 본인 성적만 보는 거지. 이게 반에서 몇 등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IB 평가는 그 날... 그... 그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시기가 따로 있는데 저희 학교는 개별적으로 물론 준비하는데 보기는 하지만...그건 나중 DP 다 끝날 때에 하고...

라) 한국학력 인정 여부

국어, 사회, 역사 수업을 통해 한국 학력도 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 없이 한국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학교를 계속 다녔거나 한국학교 다니다가 저희 학교 와서 이제 졸업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력도 같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 없이 한국 대학 지원하실 수 있어요.

마) 학생들 지원 및 적응 여부

학생들 지원 및 적응 여부를 종합해서 보면, 수업과 평가방식의 차이로 인해 좀 더 일찍 학교를 지원해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여기 고등학교 과정 들어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1학년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데 11학년을 저희가 선발을 안 해요. 11학년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11학년을 저희가 이제 10학년하고 11학년이 IGCSE라고 2년 전에 코스로 묶어 있어요. 그래서 11학년 그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코스 중간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 중3 학생들이 지금 시험을 보면 지금 현재 중3학생들이 내년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3 학생들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11학년을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거라서...

12학년으로 해서 들어올 수는 있는데 12학년은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학년은 이제 그 대학 준비반이라고 해가지고 IB코스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 학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보세요. 영 어실력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잘 해야 되고... 원어민처럼 잘 해야 되고 영어실력 뿐만이 아니고 다른 합법적인 수준까지 굉장히 높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2학년으로 지원

해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지원율도 낮지만 합격률이 엄청나게 낮은 거죠. 외국에서 공부한 학생이 아니면 거의 합격하는 게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바) 교사구성 및 환경

교사 구성은 아무래도 영어를 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인해 대부분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인은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그러면 그 한국 과목 외에는 다 외국 분들이신 거예요?

어... 한국이나 외국어,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들 중국어는 중국분들이 하시고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영국분들이신데 그 중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영국분들이라고... 영국대학이랑 미국대학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가요.

생님들이 다 연구실 같은 게 따로 있으세요? 교무실? 아까 보니까 되게 넓은데... 아... 선생님마다 다 있으신 건 아니고요. 각 과목 별로? 과목 별로 같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 교과서

교과서는 출판사에 의뢰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 교사마다 본인이 준비해서 그 자료로 공부 한 수업을 하시는 교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는 저희에게 들어와서 그 렌트 빌려서 쓰고 나서 졸업할 때 같이 학생이 반납하는...형태예요.

교과서는 저희가 출판사에 의뢰해서 쓰는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를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선생님마다 본인이 준비해서 그 자료로 공부 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VII. 결론 및 제언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혁신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내실화와 배움 중심 교수학습방법의 변경은 쉽게 일반화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끄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현장학교의 접목에서의 형식과 실제사이에서 괴리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가 실제적 일체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리와 통제⁶⁾ 형태를 바탕으로 분절적이고 단절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혁신을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IB 교육과정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IB 교육과정 한국어판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J교육청과 D교육청 관계자를 인터뷰했다. 또한 IB 교육과정 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 IB 교육과정의 핵심적 의미, 수업과 평가 혁신에서의 시사점 등을 추출하려고 노력했다.

1. 결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교육과정

IB는 10개 인재상, 12개 태도, 5가지 스킬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다 연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설계는 학교단위로 설계하고 결정했다. 사립과 공립의 교육과정 설계는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IB 교육과정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회의와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 100년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 일본의 IB 교육과정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IB를 도입하는 데 필수 요소로 인식했다. 평가도 절대평가로 변경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IB는 6개 과목군을 상대적으로 수준화 하지 않고 균등하게 반영하여 운영했다. 교과서는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했다. 교육과정 설계의 단원은 1년에 학교급에 따라 4~6개를 유닛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데, 1개 유닛은 보통 6주정도가 소요되었다. IB는 그 나라 모국어 사용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 대입제도와 차별점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IB 교육과정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

6) 빈스타인의 용어를 준용하여 사용함

히 DP코디네이터는 수업과정 설계, 확인, 학생 등록 및 과목별 배치, CAS 확인, 파이널 시험관리 등 업무과다로 수업을 가급적 안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leadership, management, administration, 교사 counselor 역할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업무 부담이 상당했다.

한편, 선도 교육청의 IB 교육과정(프로그램) 도입현황 분석을 보면, 현재는 J교육청과 D교육청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초에는 S교육청과 C교육청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도입을 포기했거나 도입에 대한 여론추이를 보면서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J교육청과 D교육청은 자체 팀을 꾸려서 2018년 3월과 9월에 IBO 대표단과 한국어판 도입에 대한 상호연계 협의를 했으며 IBO에서 조만간 한국어판 도입에 대한 결정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J교육청은 IB 도입에 대한 용역연구를 진행했고 그에 대한 발표회를 진행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전교조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일반 교원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J교육감은 반대의견중의 하나인 현재 2015개정 교육과정과의 충돌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사업운영 명칭을 'IB 교육과정 도입'이라고 하지 않고 'IB 프로그램 도입'이라고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시범학교 선정을 도시 일반학교에서 읍면지역 학교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D교육청은 현 교육감 이전에 IB에 대한 풀뿌리 학습단체가 있었다. 수업과 평가혁신에 대한 새로운 방안으로 IB를 알게 되고 이를 더 잘 알기위한 공동체가 생기고 이 공동체가 현재의 IB T/F로 구성되어 진행 중이다. 이 T/F를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감 공약으로 IB가 제시됐고 이를 위한 전담 부서가 중등교육과가 되면서 IB 교육과정에 대한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D교육청은 로드맵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IB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교' ○개를 모집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IB T/F팀을 이끌고 일본의 IB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평가관찰을 실시했다. 2018년 12월경에는 영국의 IB운영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과 평가관찰 등을 할 예정이다. 광역시라는 이점을 살려 지역적 집중도를 높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교사들이 많으며 이로 인해 교육변화에 대해 거부감이 부족하고 혁신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이 많았다. 주변여건도 호의적이다. K대학교 사범대학이 IB 채점관 양성연수대학을 준비하고 있고, D교육청과 용역연구를 체결하여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판 IB가 도입된다면 현재로서는 J교육청보다 D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IB ○○학교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업

IB 교육의 수업방식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강의식 수업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혁신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방식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B 교육의 수업방식은 강의식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학교 급별로 보면 특히,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IB 교육의 교사의 수업설계 및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에 맞춰 교사 본인이 재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수업연찬을 위해서는 행정업무 경감이 중요한데, D교육청은 관리자 연수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S고는 교무 행정원을 10명 내외로 채용하여 교사의 업무경감에 힘을 쏟고 있었다.

수업개선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학교 급별 연계가 중요하다. IB는 PYP(초)-MYP(중)-DP(고)를 통해 연속성을 높이고 있었다. 수업의 내용은 삶과 사회 문제의 연결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의 사회적 책무성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의 몰입도가 상승하고 있었다. IB 교육의 수업활용 자료는 우리나라 혁신학교와 비슷했으나 이에 대한 활용에서 매우 적극적인 것이 우리나라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수업혁신에서의 시사점 분석 내용을 정리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수업에서 중요한 것이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같은 스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간 수업에서의 본질적인 것은 배워야 할 주제에 대해 배워야 할 학생이 중심이 되어 교사와 상호소통하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거기에 파생되는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온전히 개별적으로 체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업은 배워야 할 진도, 범위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단순하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는 것이었다. 물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즉, 하부르타, 배움의 공동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기반학습, 플립러닝 등이 일부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IB라고 해서 강의식 수업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개념을 학생이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 개별적으로 인지하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우리 초중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은 엄밀하게 말하면 학생중심이 아니라 교사중심이다. 교사가 이미 수업지도안과 프로그램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수업 배치와 수업진행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속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수업내용과 형태가 평가로 정확히 연계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시행되는 수행평가의 비율은 미미하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대표되는 지필고사가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학생들

은 지필고사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본인의 생각을 수행평가 및 체험, 발표 및 토론, 에세이를 통해 활동하고 이 활동이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IB는 그렇게 수업하는 것이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모두가 그러하기에 입시준비를 수업에서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수업도 그렇게 되어야만 수업이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 결국 평가와의 일체화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IB를 통해서 살펴본 수업혁신에서의 시사점은 수업자체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질을 형식화하고 사문화하지 않고 실제로 수업에서 적용하여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으로 돌아가자는 생각과 관점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었다. 수업방법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IB 교육과정은 교사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 개발하는 것이 차이였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역량이 성장하고 있었다.

다. 평가

IB 교육과정에서의 평가는 형성 및 과정평가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본적으로 7점 기준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IB 교육의 평가는 외부 및 내부평가로 나누어져 있는 데, 과목별로 평가비율(외부, 내부) 및 방법(토의, 발표, 페이퍼)이 달랐다. IB 교육의 내부평가의 어려움으로는 IBO에 제출할 때 학생 예상점수를 미리 기입해서 추후 IBO로부터 평가받는 것이었다. IB 교육의 평가와 피드백은 다음 학기 수업 및 시험 준비와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IB 출신 학생들을 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특기자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IB출신 학생들을 실력과 영어역량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되는 IB 교육의 CAS는 활동 내용중심으로 운영되나 활동내용 확인을 통한 양적 점수가 아닌 이수의 성격이 강했다. IB 교육에서 학생 개인에 대한 학생부 기록은 별도로 없고, 7점 기준에서의 평가만 진행하면 된다.

IB 교육과정에서 소논문(에세이)은 모든 학생이 작성해야 하며 일본IB 학교에서도 영어로 작성하고 있었다. IB 교육과정에서 소논문을 지도하는 교사역량은 교원역량강화워크숍 등을 통해서 신장하고 있었다. IB 교육의 평가기준인 루브릭은 수업시간에 사전 제시 하고 학생과 이에 대해 소통하고 있었다. 또한 사전 평가에 대한 학부모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IB 교육과정에서 평가 루브릭은 대강화 되어 있어서 이걸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교사역량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IB 교육과정에서는 평가를 위한 교사의 자율권을 매우 존중하고 있었다.

IB 파이널 시험은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3번까지 응시가 가능했다. 6개 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을 먼저 평가하는 것도 가능했다.

IB 교육의 시험에 대한 출제 및 평가는 공동협의 및 공동출제가 가능했다. 혹시 평가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이 이의제기를 하면 IBO에서 그 이의제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거나 책임을 진다. 또한 이의제기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학생은 재채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재채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며 점수가 기존 점수보다 상향될 지는 미지수이고, 오히려 점수 재조정으로 인해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통해 평가혁신에서의 시사점 분석을 정리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건 평가에서 중요한 것이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변경하고, 출제와 채점을 공동으로 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평가의 본질은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될 역량 즉, 개념적 핵심 지식, 지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태도를 개별 학생이 온전히 체득했는지를 즉, 학생의 성장에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모니터링하여 학생 스스로의 발전을 격려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즉 지식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역량중심 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평가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은 타당성 보다는 공정성, 변별도가 더 높은 위치에 처해 있다. 이는 결국 신뢰 문제와 맞닿아 있다. 타당성이 평가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평가는 서열을 정하기 위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의 구간을 구별하기 위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는 객관식 지필평가가 아니라 주관식 논술과 서술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교제도와 학교문화에서 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 그러므로 평가의 본질이 서열, 변별을 통한 줄 세우기로 왜곡되었다. 평가를 위한 지침도 사전에 학생들에게 세부적으로 루브릭으로 제시하여 공개하기 보다는 채점에 대한 사후 대비용으로 출제 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IB는 교사의 평가권한, 출제권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IB를 통해서 살펴본 평가혁신에서의 시사점은 평가자체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평가의 본질인 학습역량이 부족한 아이를 찾아내고 발견하여 그 부족한 면을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보충하기 위한 지원의 의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틀린 보기 중에서 바른 답안을 찾아내는 훈련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글로 쓰고, 말로 하며, 체득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평가를 개인별 변별의 도구로만 삼고, 그걸 위해 타당성이 아니라 공정성만 강조한다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구호도 한낱 외침과 메아리로만 그

칠 것이기 때문이다. IB는 교사평가권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축적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사평가에 대한 노하우는 학부모, 학생의 신뢰와 교사평가권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더욱 고도화되는 것으로 보였다.

라. 교육철학의 중요성

연구결과를 통해 인지하게 된 건, IB교육과정 적용에서 중요한 것이 수업이나 평가개선이 아니라 결국 교육의 본질적 철학의 구현과 그 철학적 구현이 온전히 교육과정 전반에 스며들 때까지의 '기다림'이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것처럼 교육은 올바른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의 기다림이 중요하다. 교육의 목적은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다만 교육은 정치처럼 즉각적으로 제도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사람을 통해서 바꾼다. 그래서 교육적 성과는 잘 보이지 않거나 보이지더라도 더디 보인다. 그런데 교육을 정치적 관점으로 즉각적으로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진정한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기는 요원한 일이 된다.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했고 여전히 그 모습은 진행 중이다. 그러다보니 실제나 본질보다는 양적인 형식이나 수치에 치중했다. 짧은 시간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하니 상대평가에 매달렸고, 이를 통해 학벌을 서열화 해야 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적 고리를 끊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IB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가 우리나라 교육에 신뢰를 줄 것이고 그 신뢰가 결국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 기타 검토사항

IB 교육프로그램의 한국어판 도입은 J교육청에서는 2017년 12월 초등도입을 결정했고, D교육청에서는 2018년 7월 교육감 공약 및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IBO의 한국어판 도입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IB 6개 과목 중 4개는 한국어, 2개는 영어로 추진 중에 있다. 도입과정은 3단계로 진행되는 데, ○○학교-후보학교-인증학교 순서로 진행된다. 인증학교 이후에도 5년마다 갱신평가가 진행된다. 만약 한국어판이 도입되면 교원역량강화 워크숍은 국내에서 개최가 가능하다.

D교육청은 현재 IB ○○학교를 학교 급별로 ○개 모집했다. J교육청은 시범학교를 모집했으나 실패했고, 추후 읍면지역 학교를 지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J교육청과 D교육청의 IB 도입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평가에서의 시사점을 통한

모델 개발이었다. 이러한 모델 개발을 위해서 현재 IB자료가 비공개라는 점, 평가를 바꾸는 핵심은 DP라는 점이 일치했고, 이에 대한 평가한계 때문에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IB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검토할 문제 사항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교사의 어려움으로 제기되는 것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교육역량의 축적 및 후임 교사에게로의 전수 어려움이었다. 또한 행정업무의 과중한 부담문제, 수업과 평가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평균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때까지의 기다림 문제, 실적위주 행정관행의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IB 학교의 구성은 혁신학교 형태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공모제로 선발하며, 철학의 공유와 확산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MYP는 한국어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므로 추후 도입된다면 새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IB 교육 프로그램의 교사 채점관 양성기관으로는 K대학교 사범대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일본 IB 도입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사립은 빨리 승인 처리가 되나, 공립학교는 승인과정과 절차, 이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 더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일본 국내 대학보다 해외 대학 인기가 적고, 상대적으로 일본에 일자리가 풍부해서 굳이 해외대학을 나가려 하지 않는 경향이 높아서 그러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전문가들은 만약 IB 교육이 국내에 도입되면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왜냐하면 수업밀착형 평가가 중심이 되므로 내신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절대평가이므로 어느 수준까진 사교육이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스스로 해야 하는 글쓰기, 소논문 등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일본의 IB 학생선발은 우리나라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발은 단계별로 진행되는 데, 서류-개별면접-집단 활동 평가의 3단계 형태였다. 일본의 IB 교육에 대한 교사 신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가들은 IB 제도 도입으로서의 의미는 첫째, 교사에게는 단순 전달자가 아닌 교사 정체성 및 개성의 회복과 무기력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둘째, 학생에게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가치인식, 이로 인한 진로교육의 활성화, 발표 및 피드백으로부터의 역량 제고, 성장 중심(지원) 교육으로 인한 자존감 제고, 활동자체가 교육 및 평가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에서의 IB 교사 선발은 각 학교마다 달랐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영어가 필수인 나라의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교원 역량강화워크숍 중 카테고리1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았다. 학교에 따라

서는 교원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적 제언

연구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델로서 일부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IB 교육과정 도입 적용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가정한다고 전제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급으로의 적용도입은 상위학교로의 연계를 바탕으로 기저로 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질문으로 바꾸면, “어느 학교 급에서 도입할 것인가?”와 연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IB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은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 K외고의 1개 국제반에서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제학교와 외국인 학교는 초중고 교육과정이 IB 또는 A-LEVEL 등 학생활동 중심이 되는 수업방법과 주관식 또는 발표, 에세이가 중심이 되는 형성평가, 과정중심평가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으로 연계되고 있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IB 교육과정 체계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교육과정을 하는 학교나 우리나라 학교에 전학해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다시 IB 교육과정 운영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K외고는 고교 1개반(국제반)만을 운영하는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K외고 국제반 학생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살다 온 경우가 많거나 조기 선행학습을 통해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나라 학생들에 비해 영어실력이 월등히 높아서 영어수업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는 특성이 있었다.

만약 초등학교에서 IB교육을 받았는데 중학교에서 받지 못하거나 중학교에서 IB교육을 받았는데 고등학교에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격차로 인해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면 초중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설계되어야만 도입의 본질적 의미가 있다. 이는 혁신학교의 연계성, 일반화 정책과 같은 맥락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개의 학교 급에만 도입해야 한다면 K외고 사례처럼 교과과정인 IBDP가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결과에서도 IB 도입의 승패의 핵심은 DP라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의 본질적인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접목 가능성에서도 다른 학교급에 비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IB교육 프로그램 한국어판 도입과 대입전형(수시 학생부종합전형)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제학교나 K외고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IB교육과정을 동시에 이수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물론, K외고나 국제학교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수를 위해 고교 1학년 때 국사, 사회 등의 과목을 미리 이수하고 있었다. 이는 IBDP를 실제적으로 2년 만에 이수하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투트랙(TWO-TRACK) 교육과정은 각 교육과정 그룹 군과의 연계성이 미흡할 수 있고 학습효과성 면에서도 부족할 수 있다. IB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판이 도입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IB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연계는 총론과 현행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IB 교과목을 별도 절차 없이 국내 과목으로 인정하는 것과 신규 과목 개설 및 인정 부분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 IBDP 과목을 국내 교육과정 안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과목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목군, 과목명, 이수 단위, 교과서 문제 등이 법률로 묶여있기 때문에 IBDP 과목을 국내 교육과정 과목으로 편입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교육과정인 2015개정 교육과정 체제 내에 국내고교가 IB 교육과정을 도입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규정을 만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융합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교교육과정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달리 선택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 훨씬 더 IB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IBDP를 위한 과목을 국내 고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주기만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교생 중 디플로마 취득을 위한 종합적 IB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에서부터 일부 과목만 선택해 수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육과정과의 융합과 조화의 방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률적 문제와 더불어 각 시도교육청과의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통해 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타당한 적용이 가능한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원의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업에서의 교수학습방법역량, 과정중심평가에서의 주관식 문제출제 및 채점역량, 그리고 수업과 평가혁신을 위한 교원연수, 교원 이동문제 등이 있다. 교원의 수업이나 내부 평가역량 문제는 부산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지역 내 외국인 학교에 교사를 일정기간 파견하여 방법적 노하우와 스킬, 관점 등을 체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과 평가부분을 제외하고 검토할 문제를 2가지로 좁히면 교원연수와 교원 이동문제로 구분 할 수 있다.

교원 이동문제는 선도시범학교를 선정하고 난 후 모든 교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서류, 면접 등의 단계 순으로 선발하고 현재 행복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최소 5년 정도는 이동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리더 그룹의 안정적 양성과 5년 근무 후 다른 일반 학교에 수업과 평가역

신 등의 방법적 개선점을 연수나 전문직학습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것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연수는 채점관 양성, 리더 그룹 양성이 중요하다. 채점관 양성은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사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역사대가 여의치 않다면 교육청 내 교사 채점관을 양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성과 평가역량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법적으로는 오프라인 연수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강의 위주 프레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1명의 강사가 집단적으로 진행하는 집합 연수는 형식적인 효율성은 좋을 수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성은 상당히 미흡하다.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단순 연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에도 전혀 맞지 않다. 따라서 교원연수의 방향은 상호집단 토론, 토의가 가능하도록 월드 카페식, DACUM, 해커톤(HACKERTON) 방식 등의 집합 연수방식으로 변경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리더 그룹이 주도하며 사례나 샘플 소수를 가지고 끝장토론 하는 것이 IB연수의 핵심이므로 이러한 실질적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연수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클릭하고 피드백 없는 과정으로 시험을 통해 이수하는 형태로는 연수의 실질적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IB 온라인 연수는 매우 단호하고 엄격하고 타이트(tight)하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과제를 하는 데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와 피드백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온라인 연수를 듣는 전 세계 교원들과 소통도 가능하다. 우리도 이러한 연수방법을 준용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IB연수를 방법론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도 교사를 중심으로 교육청에서 온라인 연수 비용 지원, 오프라인 연수비용의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현재의 사립학교 도입 위주가 아닌 공립학교에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립학교 도입도 전반적이고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모델학교처럼 선도적 학교를 시범 또는 선도학교로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별학교에서는 도입하려고 할 때 절대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 사립의 경우는 법인으로부터, 공립의 경우는 교육청으로부터의 승인을 먼저 받고, 단위 학교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스터디와 준비가 필요하다. 개별학교가 IBDP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예산을 5년 이상 장기계획 하에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에서 IB 학교를 일단 승인해 운영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제도와 프로그램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전면 도입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IB교육 프로그램의 한국어판이 원활하게 도입된다면 경남의 행복학교 중에서 소수를 선정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한국어판 도입이 원활하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영어로 발표·토의·토론하고 에세이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학생들이 필요하므로 공립인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학교당 드는 약 천만원(10,000,000원)의 비용은 연구결과에서처럼,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 예산(3천만원 내외, 행복 나눔학교는 1억내외) 지원처럼 교육청의 사업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2년의 과정 후 개인적인 1인당 외부 평가비용은 9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개인 전부 부담 또는 교육청 일부 지원 등의 방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좀 더 숙의와 논의를 통해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IBDP를 하는 고등학교로 인증을 받으려면 준비 기간이 2년 반 이상 소요된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후에는 2학년부 터 교육을 하기 때문에 도입 결정부터 IBDP 졸업생을 배출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위학교에서 최소 4-5년을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제주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의 한국어판 IB 교육과정(또는 교육프로그램)의 도입현황을 지켜보고 이를 통해 우리 경남교육청도 IB 교육과정의 공교육 도입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순현(2016). 수업혁신. S: 에듀팩토리.
- 교육과정평가원(2018). IB교육과정 현황과 쟁점탐색 세미나. 2018.05.02.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별책1].
- 교육부(1997). 고등학교교육과정(1).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별책4].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80호[별책1].
- 강익수, P○○, 백경선(2008). 세계화에 대비하는 고교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탐색: 균형 있는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시론. 교육과정연구, 26(3), 69-96.
- 강익수, P○○, 홍후조(2007). 학습자의 진로를 고려한 IB Diploma 이수모형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25(3), 49-80.
- 강익수, 홍후조, 성열관(2006). 우수 고교생의 대학진학준비 교육과정으로서의 AP와 IB의 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16(4), 207-235.
- 권정화, 서용섭(2017). 국제 공인 교육과정(IB) 지리의 내용 구성 분석. 사회과학교육연구, 19, 63-100.
- 김경희(2016). AP와 IBDP의 대학입학전형자료로 활용가능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22(4), 135-156.
- 김명운(2005). 프랑스의 교육제도 연구. 교육연구 제2호, 1-19, 상명대학교 교육연구소.
- 김미강(2017). 한국어 수업에서의 IB 교육과정 도입 및 프로그램 설계: 국내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7), 169-188.
- 김상무(2016). 독일의 대학입시와 고교교육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1), 1~22.
- 김운삼(2008). 유럽의 교육제도: 영국, 프랑스, 독일의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08(6), 67-87.
- 김재춘(2008). IB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주는 시사점 탐색. 열린교육연구, 16(1), 21-38.
- 김태현(2015).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 S: 좋은교사
- 김해경, 손유미, 신은희, 오정희, 이선애, 최혜영, 한희정, 홍순희(2017). 초등평가혁신. S: 맘에드림.

- 맹진영(2017). IB 디플로마 시험 가이드. 경기: 부크크.
- 박순경, 이광우, 이미숙, 정영근, 김진숙, 민용성, 백경선(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0-23.
- 박승열, 이병희, 정재엽, 강운학(2017).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 리사카 터지음. S: 살림터.
- P○○(2014). 국내 고교의 국제공인 교육과정(IBDP)의 도입 및 실행에 관한 연구: K외고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백경선·민부자·홍후호(2008). IBO의 PYP와 우리나라 초등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교육과정연구, 24(2), 143-166.
- 성태제(2017). 현대교육평가 4판. S: 학지사.
- 손우정(2015). 배움의 공동체. S: 해냄
- 신명선(2018). 국어과 기반의 국제학교 초등프로그램(PYP)에 관한 실행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현주, 좌준수, 최승현(2015). 2009 개정 수학교육과정과 IBDP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서 비교 연구: 고등학교 대수 영역을 중심으로. 韓國 數學教育學會誌시리즈 E <數學教育論文集>, 29(3), 391-421.
- 이광우, 정영근, 민용성, 이근호, 이주연, 이미숙 외(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Ⅱ: 국가 교육과정 각론 조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5-25-1.
- 이향근(2014).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언어교육과정의 특성과 시사점 연구. 한국초등교육, 25(4), 91-110.
- 이현, 고용우, L○○, 조희연(2018). 입시의 몰락. S: 창비교육
- 이형빈(2016). 교육과정-수업-평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S: 맘에드림.
- 임영구(2015). J국제교육모델로서 IB 교육과정의 현황과 전망. 교육과학연구, 17(2), 49-75.
- 의정부여자중학교(2015). 수업을 비우다. 배움을 채우다. S: 에듀니티.
- 정성식(2016).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 S: 에듀니티.
- 정영근(2018). 일본 정부의 교육정책과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018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1호.
- 정형권(2016). 거꾸로 학습코칭: 실천편. 경기: 더메이커
- 정혜준(2013). 국내외 지역학교에서의 IB 교육과정 도입 및 접목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31(4), 195-212.
- 조문현(2010). IB: 초등교사교육에의 시사점. 교육논총, 47(2), 119-134.

- 하화주, 홍후조, P○○(2012).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IBDP 교육과정 적용의 현황과 과제. 교육과정연구, 30(4), 51-79.
- 한대호(2005). 프랑스와 한국의 대학입학제도의 비교연구. 서양사학연구, 13, 57-130.
- 한혜정, 박소영(2009).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와 호주 VCE(Victorian Certificate of Education)가 우리나라 대학입시성적 산출방식에 주는 시사점 탐색. 비교교육연구, 19(1), 83-109.

<해외문헌>

- Cambridge, James(2010).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and the construction of pedagogic identity :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9(3), 199-213.
-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2003). A Brief History of the Advanced Placement Program. College Board.
- Eugenio J. Gonzalez-Kathleen M. O'Connor-Julie A. Miles(2001). How Well Do Advanced Placement Students Perform on the TIMSS Advanced Mathematics and Physics Tests?. The International Study Center, Boston College.
- Hill, Ian(2002).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policy process in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 183-211.
- IBO(2011). Programme standards and practices. IBO
- Marc van Loo, Kevin Morley(2004). Implementing the IB Diploma Programm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B(2017). What is IB education? 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 IB(2018a). Find in IB World School. <http://www.ibo.org/programmes/find-an-ib-school/>(검색일: 2018.3.23.)
- IB(2018b). Find an IB World School. <http://www.ibo.org/programmes/find-an-ib-school/>(검색일: 2018.4.17.)
- IB(2018c). The Primary Years Programme Brochure. <http://www.ibo.org/globalassets/digital-toolkit/brochures/pyp-programme-brochure-en.pdf>(검색일: 2018.4.10.)

IB(2018d). The IB Primary Years Programme, Programme at a glance. <http://www.ibo.org/globalassets/digital-toolkit/brochures/1703-pyp-at-a-glance-en.pdf> (검색일: 2018.4.10.)

IB(2018e).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Primary Years Programme. <http://www.ibo.org/globalassets/digital-toolkit/brochures/parent-pack-faqs-about-the-pyp.pdf>(검색일: 2018.4.10)

IB(2018f). The IB Middle Years Programme Brochure. <http://www.ibo.org/globalassets/digital-toolkit/brochures/myp-programme-brochure-en.pdf> (검색일: 2018.4.10.)

IB(2018g). The IB Middle Years Programme, Programme at a glance. <http://www.ibo.org/globalassets/digital-toolkit/brochures/1703-myp-at-a-glance-en.pdf> (검색일: 2018.4.10.)

IB(2018h).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Middle Years Programme. <http://www.ibo.org/globalassets/digital-toolkit/brochures/parent-pack-faqs-about-themyp.pdf> (검색일: 2018.4.10.)

IB(2018i). The IB Diploma Programme Brochure. <http://www.ibo.org/globalassets/digital-toolkit/brochures/1709-dp-brochure-en.pdf>(검색일: 2018.4.10.)

IB(2018j).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the Diploma Programme. <http://www.ibo.org/globalassets/digital-toolkit/brochures/parent-pack-faqs-about-the-dp.pdf> (검색일: 2018.4.10.)

Walker, George(Ed.)(2011). The Changing Face of International Education Challenges for The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Haag,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Baccalaureate.

World Economic Report(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언론기사>

뉴스1(2018). J 공교육IB 도입 가시화...교직원 신중, 전교조 반발. 2018.04.26. 전국-1 기사.

매일경제(2018). C의 공교육 혁명 "객관식시험 이제 그만". 2018.02.09. 사회면 기사.

오마이뉴스(2018a). 청주 대성초교, 초등 공교육 첫 바칼로레아(IB) 도입 나서. 2018.02.23.기사

오마이뉴스(2018b). "시대변화 외면한 객관식 시험 고집하면 세계의 낙오자 전락". 2018.02.25. 기사

오마이뉴스(2018c). D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도입 선언. 2018.09.04. 사회면 교육기사.

[부록] 1. 개방형 설문지

【 질문범주 및 질문내용 】

I. IB와 우리 현실과 차이점

1. IB의 가장 큰 특징(우리나라와 비교해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 IB교원연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강의식 VS 토론식
3. 혁신학교와 IB학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교육과정과 수업혁신

1. IB에서 말하는 학생중심 수업이란? - 수업에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것?
2. IB와 백워드 설계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3. 일반학교 교수학습방법(배공) 도입이 IB에서 지향하는 수업방법인가?
4. 유닛은 IB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유닛이란 우리의 대주제인가? 유닛의 양은 우리교과서보다 적은건가?
5. 수업에 IB의 철학을 어떻게 녹여내는 것인가?
6.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공통과 충돌부분은?
7. 교과서나 교재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만드나? IB에서 목록을 제공하는 것인가?

III. 평가혁신

1. IB의 시험출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시험문제 출제(1인) 및 평가 : 과목 간/ 학교 간 공동출제 및 크로스 체크는 ib와 같은 건가요?
2. ib 내부평가는? 외부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국판 평가센터(채점관 양성 등)는 가능한가?
3. 스코어드 루브릭이면 해결되는가(만능? 보조전략은?)? 우리도 사전에 제시하면 같은 것인가?
4. 과정중심평가: 수행평가의 실질성?

5. 대입전형: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IV. 그 외 생각해 볼 문제

1. 학비
2. 한국어 번역판 도입: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대학교 다수의 IB를 위한 일반 전형 허용?
4. 시기상조? - 현직교원, 전문직은 왜 반발하나요?
5. 코디네이터는 우리의 교감, 교무부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6. IB학교는 공문이 없는가? 공문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부록] 2. J지역 탐방 보고서

(1) 탐방기관 : B학교

- 면담교사 : P 등
- (국제IBSchool) PYP초등교육과정, MYP중등교육과정, DP고등교육과정을 18개월만에 도입 승인된 국제 IB스쿨
- IB의 인재상과 학습자상에 기반하여 수업에 대한 철학이 분명함
- IB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철저하게 교사들의 수업 운영을 지원함
- 수업을 STEAM형태로 다양한 교과목이 융합된 형태로, 이론-아이디어도출-아이디어구현-모델안성-모델검증을 위한 공학적 도구 활용-실제제품 개발 등이 연결된 맥락이 있는 교육과 학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디자인구상 - 디자인설계도면작성 - 실제 제품 출력을 통한 실험 프로젝트수행
- 학생 수업 운영의 기본은 모르는 것을 철저히 교사에게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일 30분 학생들은 지도교사와 지속적으로 단체 면담시간을 가짐
- 수업활동지는 기본적으로 교실에서 직접 출력하여 재활용가능하며, 학생들은 모둠별로 수업을 실시함. 수업은 실험을 바탕으로 융합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짐
- 수업과제 설계는 반드시 학생들과 협의하며, 최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을 장려하는 것이 인상 깊었으며, 과제는 최대한 실제 세상과 연관된 것으로 하여 자신들의 수행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탐방기관 : N1학교

- 면담교사 : S 등
- DP고등교육과정만 도입한 학교임
- 인재상 및 학습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조는 미흡한 편임
- 기본적으로 대입에 초점을 둔 IB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초등과 중등교육과정과 DP고등교육과정의 연계를 둔 부분들은 눈에 띄지 않음

(3) 탐방기관 : J교육청

- 면담자 : K 등
- 국제바칼로레아(IB)공인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IB Workshop 중에는 비IB교사를 위한 코스가 설강되어 있어, 실제 IB의 교육에 대한 특징을 체험할 수 있음.

특히 각 워크숍은 6개의 주제로 약 3주간 실시됨

- 3개의 주제로 한 워크숍이 3주간 실시되어 2번의 워크숍을 통해 6개의 주제를 모두 이수하게 되면, 워크숍 수료증을 받게 됨
- (MYP 수학교육과정 연구에 관해) IB교육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확인해 보고, MYP 교육과정에 대한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함. 특히 워크숍은 영문으로 이루어지며,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워크숍 신청 후 팀을 꾸려 함께 과제수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추천해 주었음
- J교육청의 경우 기본적인 정책연구 수행은 마무리하였지만, 실제 과목별 교사로 이루어진 현장교사들의 검증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현재 IB 도입을 위해 IB교육 과정이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피상적으로 알려져 있기에 현장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가 한 곳도 없는 상황임. 아직 IB를 통한 학교수업, 수업설계, 평가방식 등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그 장점과 강점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순차적으로 도입에 대한 인식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함

[부록] 3. D지역 탐방 보고서

○ D교육청의 IB도입 검토를 위한 추진 현황

- 현 D교육감님은 공약사업으로 IB교육과정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2018년 IB교육과정을 도입에 관한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임.
- 현재 공식적으로 D교육청은 IB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근래 J교육청-C교육청 등의 진행 상황들을 모니터링하는 중임.
- 현장 도입을 위한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IB연구 교사연구그룹, 중학교 IB연구 교과그룹(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팀별로 조직하여 지속적인 관련 자료 검토 등을 진행 중에 있음.
- IB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 삿포로가이세중등학교(시립학교)를 3일간 방문하여 수업관찰 및 학교관계자들과 집중적인 면담 등을 하였음.
- 지속적인 IB교육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올 연말에는 영국에 있는 IB학교와 J에 있는 B학교(국제학교)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음
- IB연구 교사그룹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공유를 위해 밴드를 만들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팀장들은 일본 IB학교 교사와도 지속적인 이메일 교류를 통해 자료를 주고 받고 있는 상황임

○ D교육청 협의 결과

- (협의 참석자) P○○ 등
- (IB 도입 절차에 대한 고민) 현재 다양한 방법을 모색중이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선정(초중고학교, 자율적으로 참여 장려) → 인정학교(2년 정도 운영) → IB학교 승인
 - ※ 하반기에 IB교육과정을 탐구해 보기를 원하는 학교 공모에 ○개 학교 신청
- (현장교사의 관심 장려) IB교육과정 연구교사그룹이 주관하여 현장교사들을 대상으로 9시간 연수를 2번에 걸쳐 진행하였음. 연수 내용은 IB교육과정체제, IB교사초청 강연 등이었음.
- (IB교육과정 도입 관점)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교육과정-수업-평가로 이어지는 일체화 교육과정을 윈스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강점임. 수업철학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일체화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한 현장교사들의 체험사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소수학교가 IB교육과정을 도입할 수 있는 ○○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 교육체제에 도입가능하는 부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IB DP를 가기 위한 PYP교육과정, MYP교육과정 탐색 선행. D광역시교육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서술형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라도 IB교육과정의 평가 체제를 모니터링 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교사들의 긍정적 인식이 있음
- (IB채점관 양성에 대한 관점) IB 채점관 양성은 기본적으로 IB기구의 독자적인 판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K대 사범대에서 한국교사들의 IB 채점관 양성을 위한 연수지정센터를 운영해보려는 움직임은 있음
- (IB교사로서의 지속성) IB교사로서 수업을 꾸준히 해 온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IB교육 과정을 통해 변화해가는 학생들의 경험하면서, IB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학교로 이동해서도 IB교육과정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보인다고 의견을 주심
- (IB 교육과정 승인 방식) IB기구는 기본적으로 IB교육과정은 교육청을 경유하지 않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결정할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 통상적으로 IB교육과정은 IB교육기구와 단위학교의 협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승인해왔던 것이 관례임. 하지만, 한국의 특수한 교육환경으로 볼 때, 교육청은 단위학교와 IB기구의 승인 절차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지만, 단위학교가 도입을 원하게 되는 경우,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할 의지를 갖고 있음.
- (IB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의지) 현재 D교육청은 IB도입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중하게 정책연구 발주를 통해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연구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1차년도 연구용역을 공시해 놓은 상태라고 함

○ D중학교 IB연구교사 협의 결과

- (협의 참석자) K교사 등
- (IB 수업 참관에 대한 관점) 기본적으로 IB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협력적 수업, 학생 중심 수업, 프로젝트수업, 모둠수업, 공학기계 활용 수업, 역량중심 수업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업방법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과 다르지 않음. 큰 차이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수업에 대한 철학을 단위학교 전체가 공유하고 있으며, 교사들 간의 협력이 자유롭게 지원될 수 있는 교육환경, 학교관리자의 교사의 자율적인 수업 시도를 지속적으로 격려한다는 점, 학생들에게 배움은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수업을 통해서 진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장려하는 학교문화, 학생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학년이 바뀌어도 동일한 평가 루브릭(객관성과 공정성을 IB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됨)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장에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고 있다는 점 등임
- (MYP 수학교육과정에 대한 관점) 무엇보다도 수학이 실생활에 얼마나 중요하게 기여

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교사가 끊임없이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극단적인 경우,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지 않는 수업은 다루지 않는 경향도 있다고 함. IB수업을 위해서는 IB교사로서 이러한 수업문화에 충분한 기간 동안 경험을 선제적으로 해 봐야 하는 점도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음. 기존의 수업방식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변화할 수 있는 제반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함

- (일본 가이세이 고등학교의 IB수업을 받는 학생) 가이세이 고등학교는 일반학교와 다르게, 3차의 입학시험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로서, 교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가 매우 높은 편임. 실제적으로 다학문간 통합을 위한 회의가 굉장히 수업의 질을 높여주고 있었음.
- IB교육과정의 평가 루브릭은 매우 모호한 편이며, 실제로 수학수업의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수행평가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음.
- 수학기념을 일상 생활 속의 수학과 연계하여 진행
- IB교육과정 준비를 위한 교사연수의 특징은 학생의 풀이를 갖고 IB평가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세분화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관점을 공유하고 IB기구의 평가관점을 기준으로 개선해 가는 방식으로 교사들의 평가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교사의 경우 지속적인 가이세이고등학교 IB 수학교사와의 교류를 통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D광역시교육청에 초청해 집중연수를 통한 교류를 기획 중에 있음
- MYP교육과정은 IB DP교육과정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며, 이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한 학생의 대학 진로에 대한 사회적인 함의가 필요하며, 이는 IB교육과정의 지속성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가능자가 된다고 보여짐
- (참고자료) K교사의 일본 IB교육과정 운영학교인 가이세이고등학교 수학수업 참관 후기 사례 중에서

수업단원은 통계로, '평균과 산포도'로 내가 일본으로 가기 전 한국에서 가르친 내용이 나와서 더욱 몰입하면서 참관할 수 있었다. 처음 도입은 지난시간 배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한 예제를 교사가 풀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에게 계산하기 쉬운 숫자들을 제시해 유제를 직접 풀게 하고, 교사가 풀이를 하고 설명을 마쳤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수업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 IB의 수학수업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참고로, 나중에 직접 여쭙보고 안 사실인데 이 수학교사는 영국출신으로, 본인

도 IB교육과정을 받은 분이였다.)

유제를 풀고 나서 공학용계산기 (학생들은 수학하면 이 계산기를 떠올릴 정도로 능숙하게 다루고 수업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의 기능을 설명해 학생들이 주어진 자료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계산기로 구하게 하고, 학생 한명이 나와 실물화상기로 직접 과정을 TV에 보여주어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수학교사는 자신이 계산이 쉽도록 재구성한 '구글,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회사의 주식차트를 등장시켜 모둠 당 하나의 회사를 겹치지 않게 선택하여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각 계산결과를 학생들이 발표하여 칠판에 썼다. 이렇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쉬는 시간을 가진 뒤 2번째 수업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각 모둠이 모의투자자가 되어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지를 토론을 통해 정하게 하였다. 이 때, 학생들의 토론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회사의 주식이 더 높아질 확률이 높다.' '나는 이 회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 등등 서로 예측하는 것을 논거를 들어 설명하였다. 중간중간 교사는 순회를 하면서 적절히 코멘트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도 하면서 시간은 그렇게 10분 넘게 지난 것 같다. 모둠별로 발표자를 정하라고 한 후, 각 모둠에서 나온 의견들 및 결론을 발표하게 하였다. 모험적인 투자를 하는 모둠도 있었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모둠도 있었는데, 직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주식의 추세 즉, 학습목표인 분산과 표준편차를 파악해 그를 근거로 투자할 회사를 정해 발표하였다. 나는 이 부분이 너무 놀라웠다. 우선, 나도 협업이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 협동학습을 실시하려고 하지만 그때의 협동은 잘 아는 학생이 잘 모르는 학생에게, 제시한 학습지의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도와가며 해결하는 개념이었다. 즉 답이 정해져 있는 닫힌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며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하였다면 이 토의는 수학적 개념이 중요한 논거가 되어 학생들이 그 개념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각자의 의견이 답이 될 수 있는 열린 문제로,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임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학생들에게 투자한 회사의 '오늘' 차트를 보여주며 가상이지만 각 모둠의 수익을 계산하고 발표하게 하여 학생들이 가상이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것처럼 수익이 난 모듬은 매우 좋아했다.

학습지는 딸랑 3개의 문제밖에 없었는데, 그 마지막 문제가 바로 'How can we use statistics to help make decisions?'로, 수업 후 협의회에서 질문하여 들은 교사의 대답이 매우 이해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내가 한 수학교육과의 극명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었다.

무엇이 IB교사로서 가장 중요한가를 여쭙보니, '모든 지식은 학생들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라는 답을 주셨다. 나도 통계단원을 가르치며 '팩트체크' 영상을 보여주어 통계의 위험성과 유용성을 알리고 생활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느끼게 하였지만, 시험일정에 맞춰 진도를 끝내야 하기에 금방 단답형의 문제들이 가득한 학습지를 내주고 문제 풀이로 학생들의 이해도와 응용력에 많이 주목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주식'을 생각했고, 그것이 두시간 짜리 수업 안에 실현된 데에는 매 주 IB코치와 교장선생님도 함께하는 모든 교과 선생님과의 통합을 위한 '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이미 사회시간에 '주식'을 주제로 학습을 했다는 것을 알고, IB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모든 지식은 삶과 매우 밀접함을 느끼도록 교사들이 다학문적 통합을 위해 실제적인 시간과 회의를 하는구나가 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느껴졌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시하는 수업,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이 되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세이 고등학교는 일관학교로 따로 고입을 치를 필요가 없고, 3차의 입학시험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을 가르치므로 교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신뢰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 교사들의 노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 앞에, 진도에 쫓길 수 밖에 없고(적어도 수학은 말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의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지선다나 단답형의 문항으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어 벽에 부딪치고 있다. 그만큼 수업 준비에도 제한이 따르고, IB에 비해 교사의 재량은 적고, 교사의 책임과 잡무는 현저히 많아 실제적인 다학문간 통합을 위한 진정한 회의 같은 건 이뤄지기 매우 힘들 수 밖에 없다.

한국의 학부모님들도 입시점수, 대학간판보다는 학생들의 전인격적 성장, 삶에 유의미한 교육이 자녀의 삶을 길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의식들이 생겨나고, 글로벌한 무대에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치고자 하는 학생들의 요구들에 대해 IB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현 공교육에 너무 급한 도입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했으며, 지금 D교육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미래교실' '○○○학교'처럼 IB 교육과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IB의 철학과 교사상에 동의하는 교사들이 연구하고 실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직접 탐방하기 전, K외고 등 실시하고 있는 한국의 학교 교사로부터 초청강의를 들어서 느낀 IB보다 가이세이 고등학교를 직접 탐방하고 교사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수업을 보며 느낀 IB는 매우 실제적이고, 교육자로서 '단지 이상일 뿐이야.'라고 생각하고 접은 소망이 다시금 피어나게 하는 시간이었다. 다녀와서 더욱 큰 매력을 느껴 알고 싶고, 나의 수업도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3. 향후 추진 계획

- 지속적으로 D교육청의 MYP수학교사 연구그룹과 자료공유 및 일본IB교사와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함
- 과정중심평가를 역량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업설계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수업구현을 위해 경남수학교육체험벨트를 중심으로 파견교사 및 학습연구년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험적인 수업환경을 디자인해보는 연구를 차년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개별적인 수행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 사고 성장을 기술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짐
- MYP UNIT를 설계 사례를 조사해 체험탐구 과정중심 수학수업에 접목해 볼 수 있는 방안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IB교육과정의 장점을 검토해 볼 때, 수업철학과 단위학교의 수업환경, 연구하는 교사들을 위한 학교지원 수준 등은 모두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과차원을 넘어 교육체제 전체를 함께 조망해 볼 필요가 있음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IB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발행일 | 2018년 12월 28일 인쇄
2018년 12월 28일 발행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 장 황 선 준

기획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관 김진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이상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박소진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사 이화순

연구자문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한미영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유병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윤연경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연구위원 손영현

연구지원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주무관 곽동욱

발행기관 |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5114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로 111번길 20
누리집 : <http://www.gerii.go.kr>
전화 : (055)269-0777
전송 : (055)269-0789

인쇄 | 삼영인쇄 주식회사 (Tel. 055-252-3041)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견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경남교육사이버도서관 <http://ebook-lib.gerii.go.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IB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

14권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GYEONGSANGNAMDO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비매품/무료



9 791189 822033 00370

ISBN 979-11-89822-03-3